2003 문화관광부 8월의 문화인물

서계 박세당 종택 고문서

의정부문화원
www.iloveculture.or.kr

2003 문화관광부 8월의 문화인물

서계 박세당 종택 고문서

의정부문화원
www.iloveculture.or.kr

발간축사

- 서체 박세당 유품전시회를 축하하며-
향토문화의 향기를 밝게 지펴 올립시다

서계 박세당 서거 3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서계 박세당 유품전시회를 40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시회개최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의정문화관 및 서계종중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에 있어 문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척도가 되었으며 문화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에 서계 박세당선생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계 박세당선생은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대쪽같고 시들지 않는 푸른 기개로 평생을 살아가시며, 굳어버린 시대의 벽장을 뛰어넘어 생각과 배움이 보다 넓고 자유로운 새 시대를 꿈꾸며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선생은 많은 정치적 업적과 함께 색경, 사변록을 위시한 많은 저서를 통하여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자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계 선생의 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지정 8월의 인물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전시회는 우리 향토의 문화유산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향토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자부심과 긍지로 여길 때 우리시민의 가슴속에 애향의 마음이 자리잡게 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의 토대마련을 위하여 힘써 오신 의정부문화원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서계 박세당 유품전시회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적셔가는 밝은 향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3. 8

의정부시장 김 문 원

발간축사

의정부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의 인물 「서계 박세당」 선생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8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40만 시민과 더불어 경축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진 역사적 인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긍지일 뿐 아니라, 의정부 문화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발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의 문화를 소홀히 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이에 발맞추어 의정부 문화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지역 인물이신 서계 선생님이 선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고이지신 이라 했습니다.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이듯 옛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8월의 문화인물에 때 맞추어 서계 선생에 대한 기념 사업과 자료집 발간은 우리시의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성숙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기념사업이 의정부 문화를 꽃 피우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의정부시의회의장 허 환

발간축사

서계 선생 고문서 전시회, 의정부시의 긍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올해는 조선조 실학의 길을 열어 준 서계 박세당 선생의 서거 300주기입니다. 이제 선생의 행하과 사상이 오롯하게 담겨있는 고문서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선각자인 서계 선생의 유산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0만 의정부시민을 비롯하여, 7천만 우리 민족 모두가 경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시대를 영위하는 삶의 형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시대의 기득권층에 몸을 싣고 일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계 선생은 반대 입장의 삶을 사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계 선생이 사신 임·병 양란 후 17세기의 조선조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야기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환국(換局)으로 표현되는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났고, 사상적으로는 말 주자학적 경향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상황에서 중앙정계와 주류학계에서 전개되던 이념적 갈등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철학을 정리한 선각자였습니다. 특히 독자적 논리의 힘으로 탈 주자학적 사유의 체계를 정리한 '사변록'은 18세기에 전개된 사상계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수 농사를 지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소농층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서인 '색경'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술활동은 선생께서 40살이 되던 해에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수락산 기슭 장제울[長子洞]에 은거하며 제자를 가르치면서 부터 입니다. 선생께서는 장제울을 석천동(石泉洞)으로 개명하셨으니, 현재의 장암동 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실학 태동의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정치의 기득권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서계 선생의 미래지향의 비판정신이 도도하게 전해져 오는 의정부시! 우리 40만 시민의 자부와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선생의 올곧은 비평사상을 현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연계 작업을 통해 선생의 미래정신이 지면에 확산된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에 애쓰신 반남 박씨 서계공파 종손들과 의정부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국회의원 홍 문 종

발간축사

후손들에게 값진 문화유산으로 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인물 조선후기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2003년도 8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되어 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재조명하는 서계 박세당 관련 "유품 및 고문서전시회」도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계 박세당 선생이 타계하신지 3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선구자적 시대정신으로 실학적 사고를 제기하여 발주자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섰던 인물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의 유교사상적 일탈은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으며 현 실개혁론을 주장하여 노·소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학문적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문화의 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문화·역사일 것입니다. 문화·역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원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높은 관심과 스스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예로부터 산세가 수려하고 많은 명현, 충신들이 배출된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서계박세당 선생의 고택이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인물선정을 기념하는 서계박세당선생의 자료는 매우 값지고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서계박세당선생의 관련 유품 및 고문서전시도록 발간을 통하여 우리후손들에게 값진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시회도록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부, 경기도, 김문원 의정부시장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남 박씨 서계공종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간에 즈음하여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의정부문화원장 김 태 훈

일러두기

- 이 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8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서계 박세당 기념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서계 박세당 유품전시회의 도록이다.
- 서계 박세당 종택 소장 고문서는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기탁 · 보관되어 있다.
- 도판에 실린 자료 중 일부는 서계 박세당 후손 박범서 소장본이며, 박범서 소장본에 한해 도판 캡션에 소장처를 표기하였다.
- 도록의 체제는 도판, 논고, 도판해설, 도판목록 순이다.
- 도판설명은 아래 순서에 따라 표기하였으며, 크기는 cm로 표기하였다.
  - 제목, 작성연대, 작성형태, 재질, 규격, 소장처
- 도판해설은 국한문을 병용하여 표기하였다.

CONTENTS

서계 박세당 종택 고문서

인사말

도 판 ---------- • 11

논 고 ---------- • 117
서계 박세당의 생애와 사상

도판해설 ---------- • 139

도판목록 ---------- • 175

教旨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經筵義禁府春
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朴東善贈純忠
補祚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
府事世子貳師錦川君者
庚辰正月十二日
故錦洲君朴炡考振武原從功臣一等依承
傳封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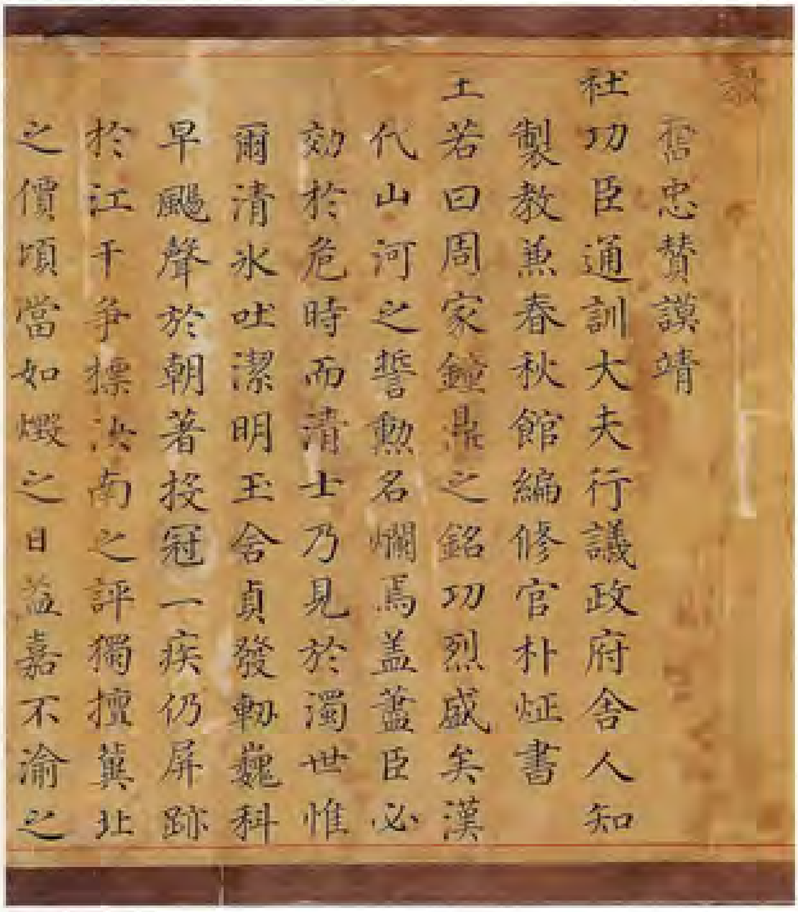
1 박동선봉군고신 朴東善封君告身
1640(仁祖 18), 紙本墨書, 110×90.3㎝

2-49 박정초상화의 부분도

2 박정초상화 朴炡肖像畵
仁祖年間(1625年頃), 軸, 絹本彩色, 170×90㎝, 族子 227×185㎝

3 박정정사공신교서 朴炡靖社功臣敎書
1681(肅宗 7), 軸, 絹本墨書, 40×293cm

金慶徵 申景禋
李重老 李時白
李時昉 張維
元斗杓 李澥
申景裕 朴孝立
張暾 具仁垕
張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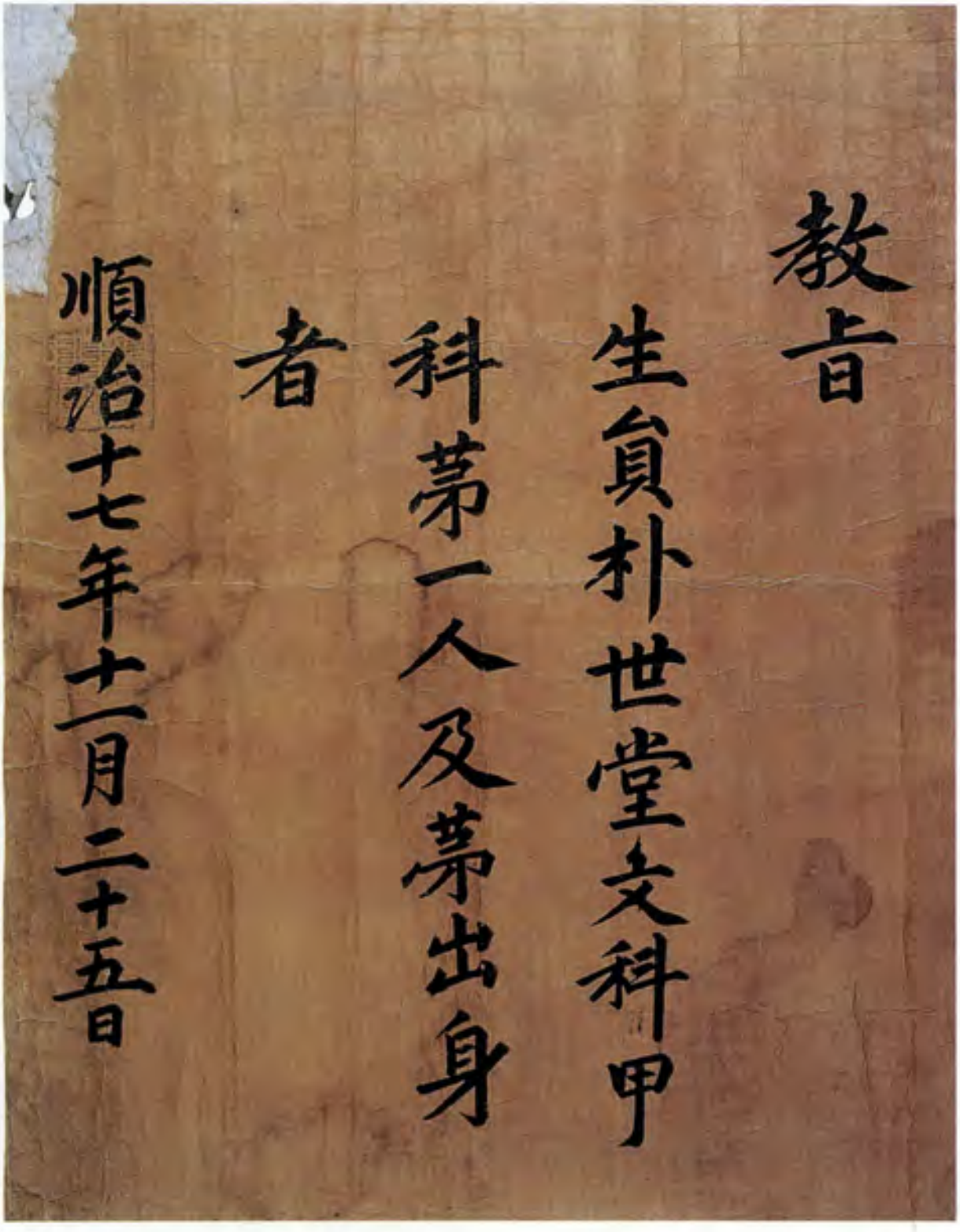


奮忠贊謨靖
社功臣通訓大夫行議政府舍人知
製教兼春秋館編修官朴炡書
上若曰周家鐘鼎之銘功烈盛矣漢
代山河之誓勲名爛焉蓋臣必
効於危時而清士乃見於濁世惟
爾清氷吐潔明玉含貞發軔巍科
早颺聲於朝著投冠一疾仍屛跡
於江干爭摽汝南之評獨擅冀北
之價頃當如燬之日益嘉不渝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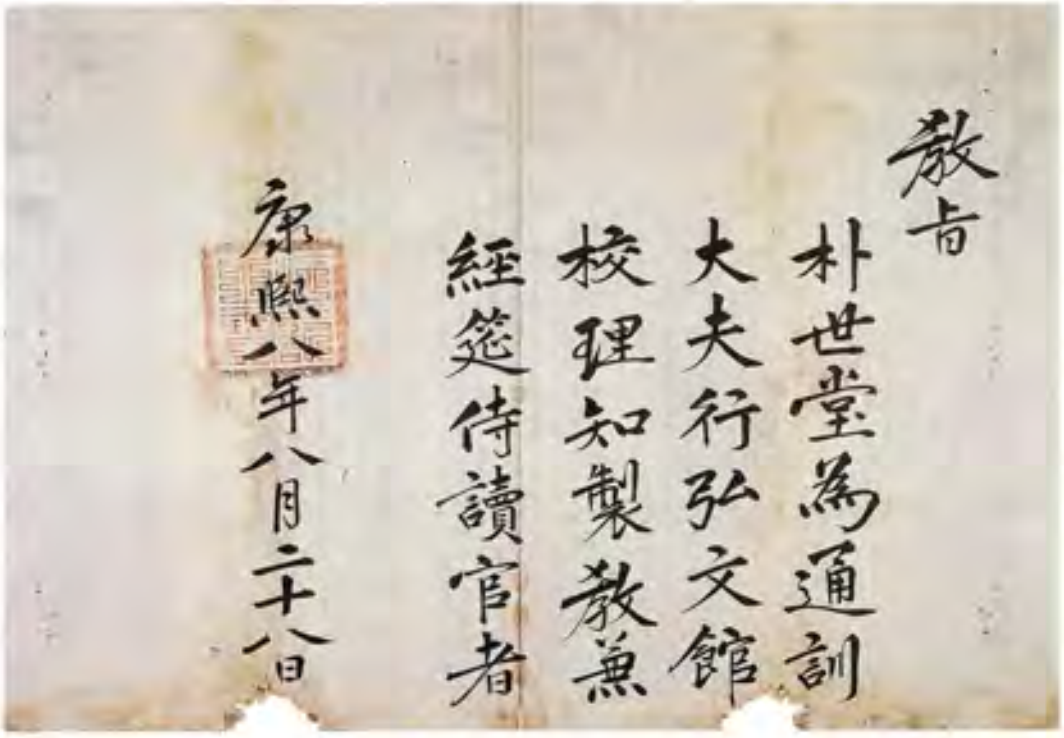
1-01 박세당초상화의 부분도

1 박세당초상화 朴世堂肖像畵
肅宗年間(1690年頃). 軸. 絹本彩色. 85×58.6㎝. 族子 140×78㎝

박세당백패 朴世堂白牌
1660(顯宗 1), 紙本墨書, 102.2×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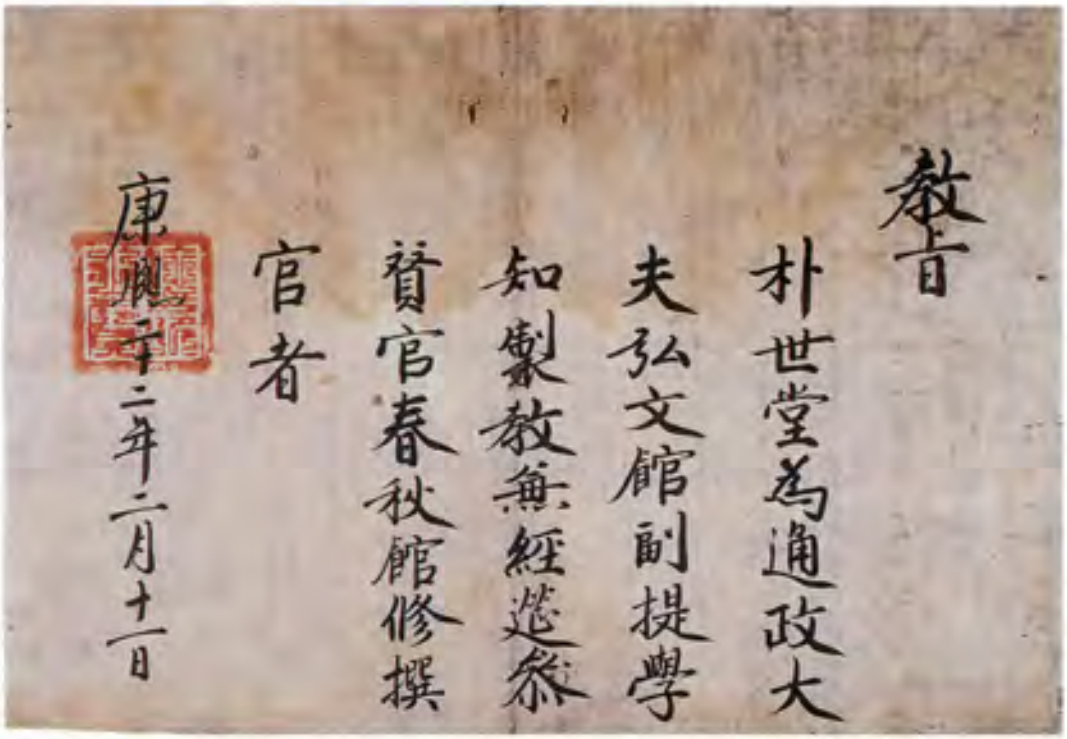
박세당홍패 朴世堂紅牌
1660(顯宗 1), 紙本墨書, 110.5×88㎝


敎旨
朴世堂爲通訓
大夫行弘文館
校理知製敎兼
經筵侍讀官者
康熙八年八月二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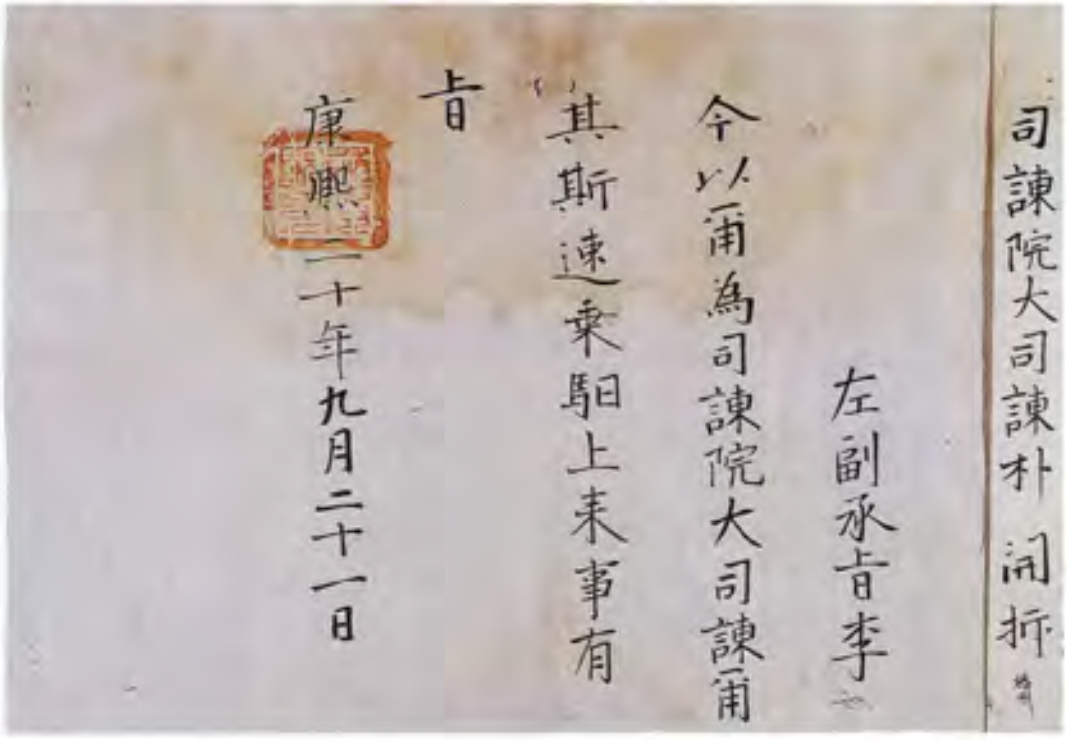
7 박세당홍문관교리고신 朴世堂弘文館校理告身
1669(顯宗 10), 紙本墨書, 53.5×77cm

敎旨
朴世堂爲通
訓大夫行通
津縣監者
康熙九年八月初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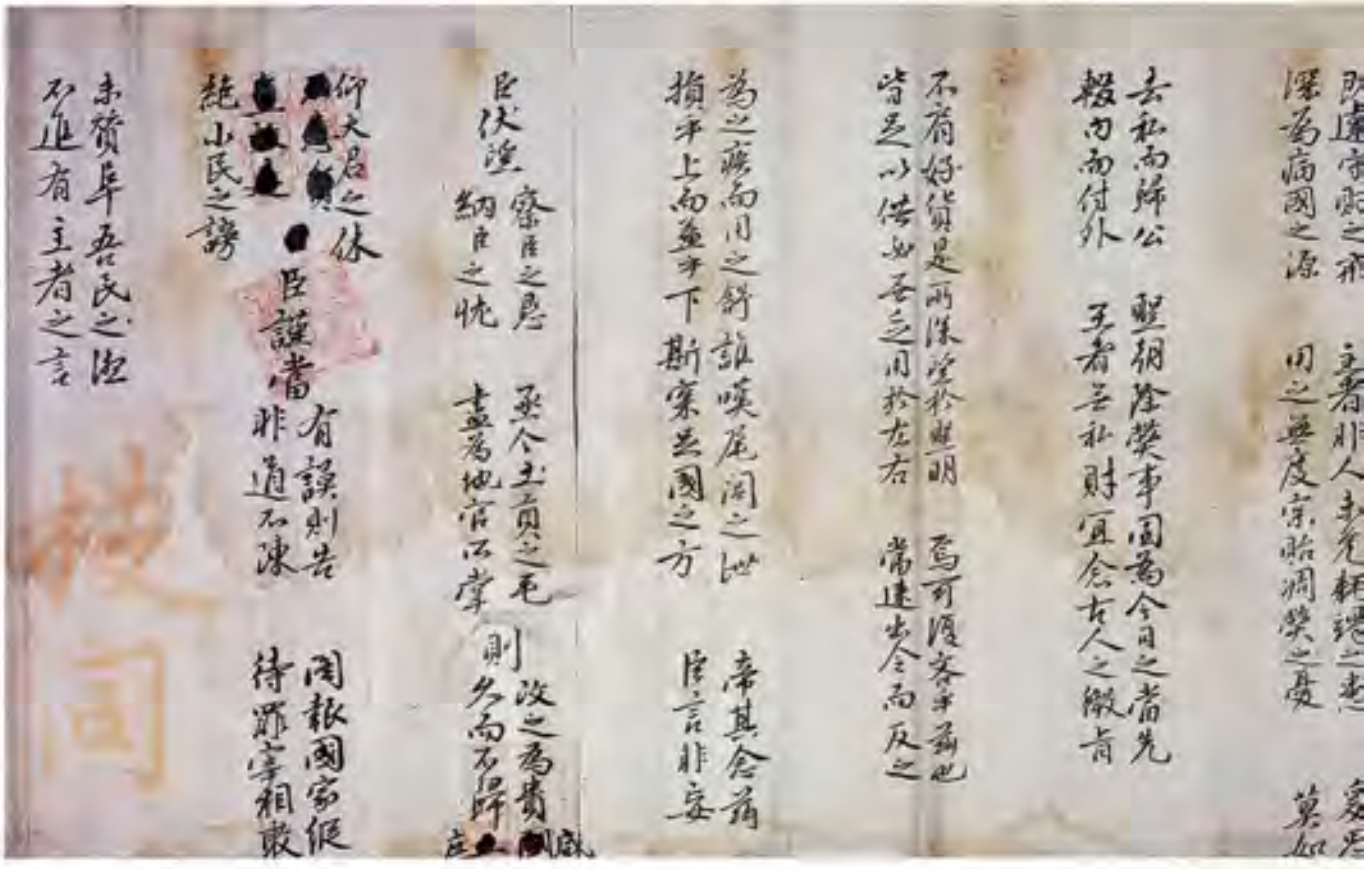
8 박세당통진현감고신 朴世堂通津縣監告身
1670(顯宗 11), 紙本墨書, 54.3×75.5cm


教旨
朴世堂為通政大
夫弘文館副提學
知製教兼經筵參
贊官春秋館修撰
官者
康熙二十二年二月十一日

9 박세당홍문관부제학고신 朴世堂弘文館副提學告身
1683(肅宗 9), 紙本墨書, 53×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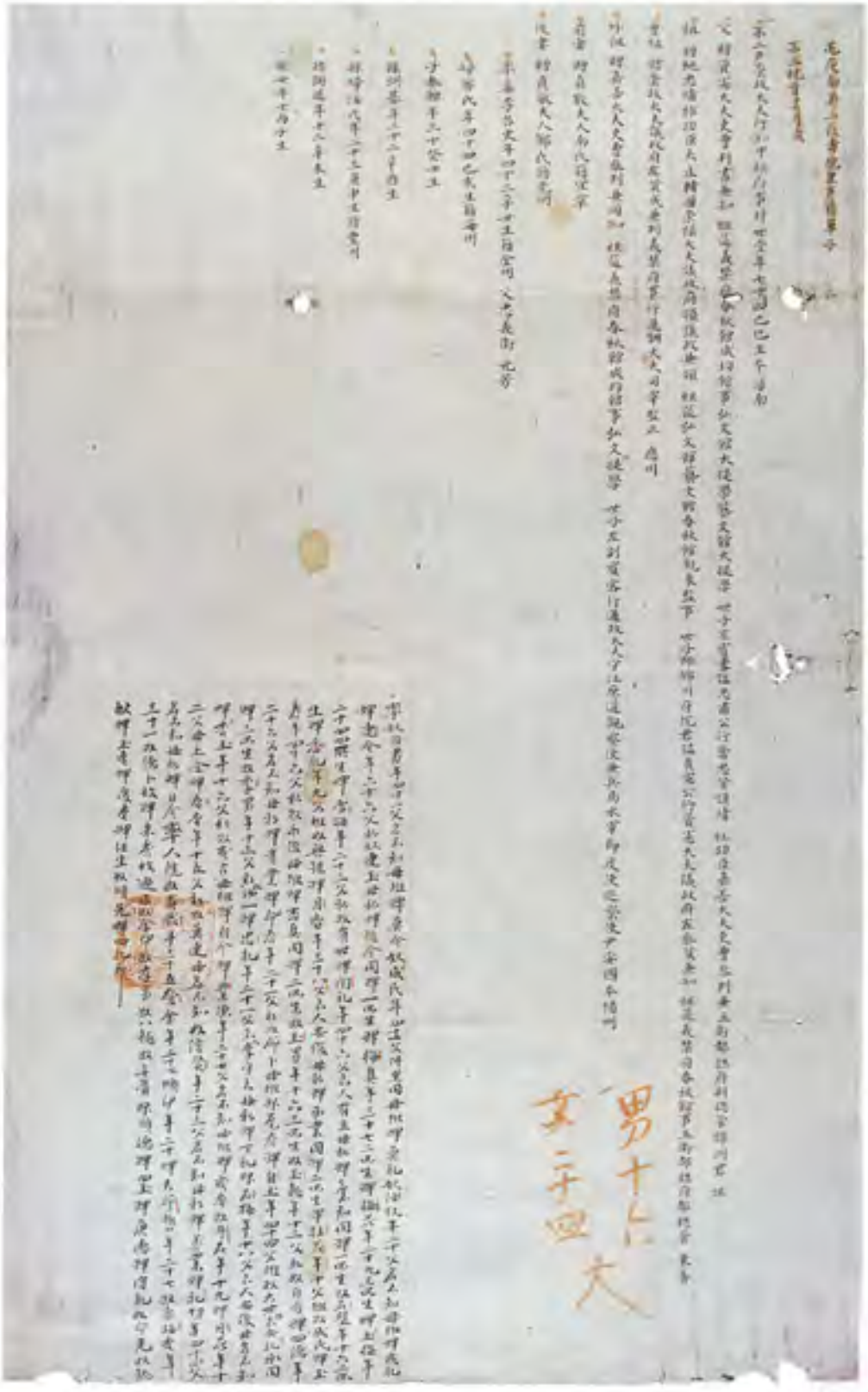

司諫院大司諫朴 開拆
左副承旨李
今以甬為司諫院大司諫甬
其斯速乘馹上來事有
旨
康熙二十年九月二十一日

10 박세당대사간유지 朴世堂大司諫有旨
1681(肅宗 7), 紙本墨書, 47.5×71.5㎝



박세당시권 朴世堂試券
1660(顯宗 1), 紙本墨書, 72.6×281㎝

文科增廣別試甲科第一人望
擬唐同平章事楊炎請天下財賦盡歸左
藏表
欲問錢穀責治粟主計方委於有司 君唯
未有府庫非其財公賦盡輸於左藏 帝且
不匱 六府孔修 法生財務
節忌 欽惟 皇帝陛下 庶邦惟正 致積累
曾制無入悖出悖之譏 第念四方之正貢
漢家有倉氏庫氏之辨 久為內藏之私儲
取諸宮中統為給用之便 度支之簿書徒存 安
奈以天下不無總貫之嘆 司農之經費莫登
知出入之數 民出粟米麻絲宜充司養之具
增諸衣之端 勝有倉廩府庫非供將貢之資



박세당호구단자 朴世堂戶口單子
1702(肅宗 28), 紙本墨書, 116.6×70.5cm

完議
卒判府事朴世堂諡號文節公
勤學好問曰文
好廉自克曰節
康熙六十一年八月 日出
大司諫 正言
司諫 献納
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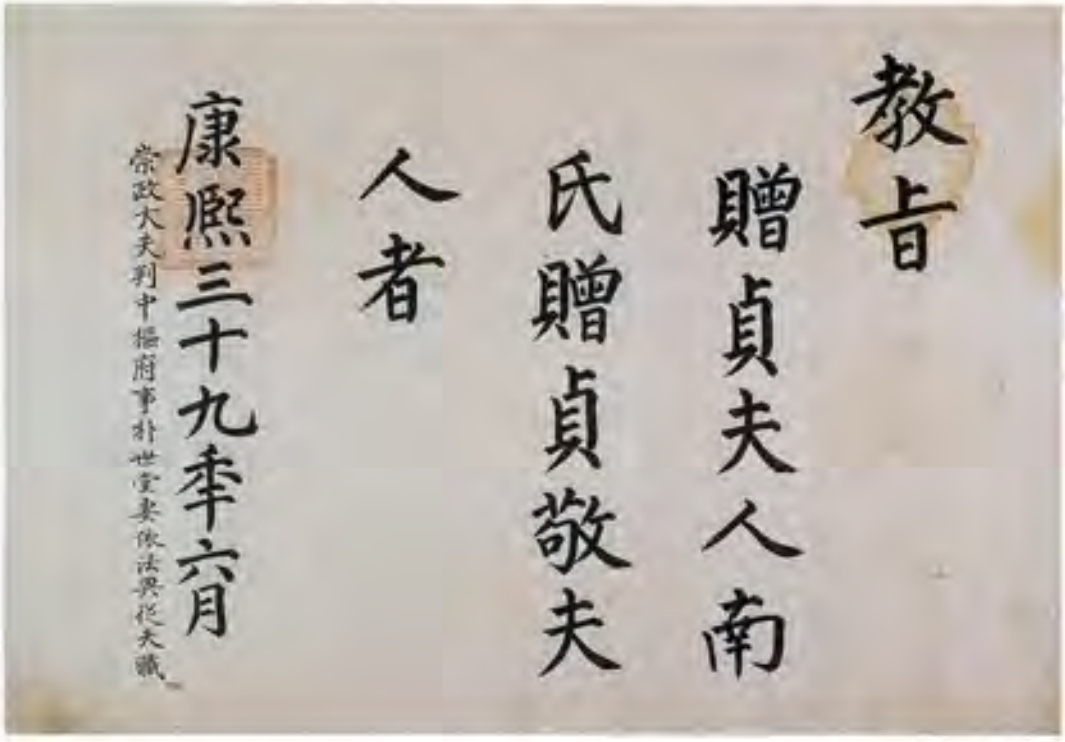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2(景宗 2), 紙本墨書, 54×80cm

完議
卒判府事朴世堂諡號文節公
勤學好問曰文
好廉自克曰節
康熙六十一年八月 日出
大司憲 執義
掌令 持平
掌令 持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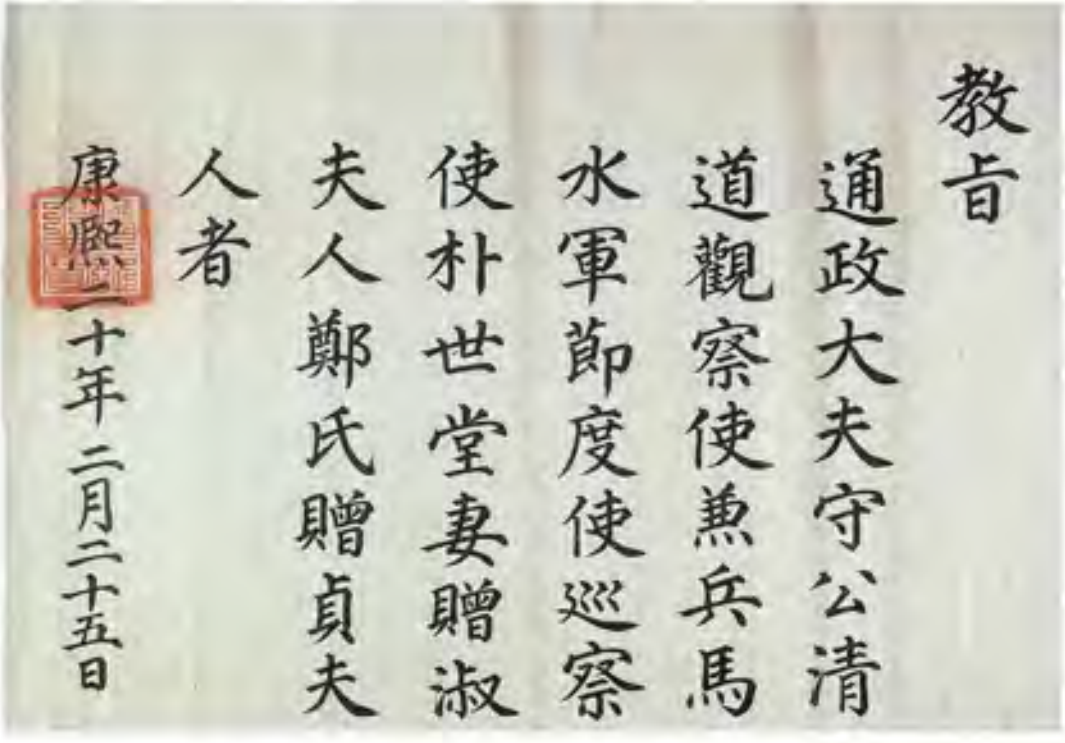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2(景宗 2), 紙本墨書, 56×79cm

15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3(景宗 3), 紙本墨書, 56.6×81cm

16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3(景宗 3), 紙本墨書, 54×7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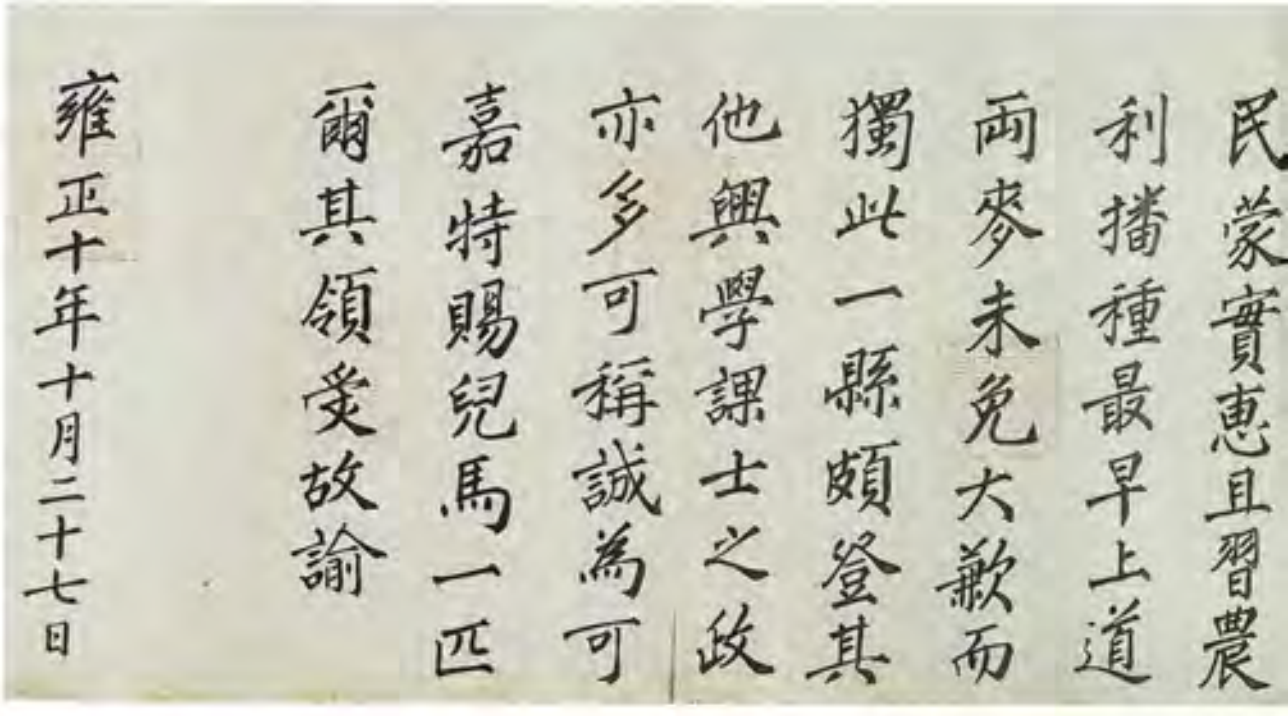


17 박세당처의령남씨추증고신 朴世堂妻宜寧南氏追贈告身
1700(肅宗 26), 紙本墨書, 74.2×91cm



18 박세당처정씨숙부인추증고신 朴世堂妻鄭氏淑夫人追贈告身
1680(肅宗 6), 紙本墨書, 67.6×9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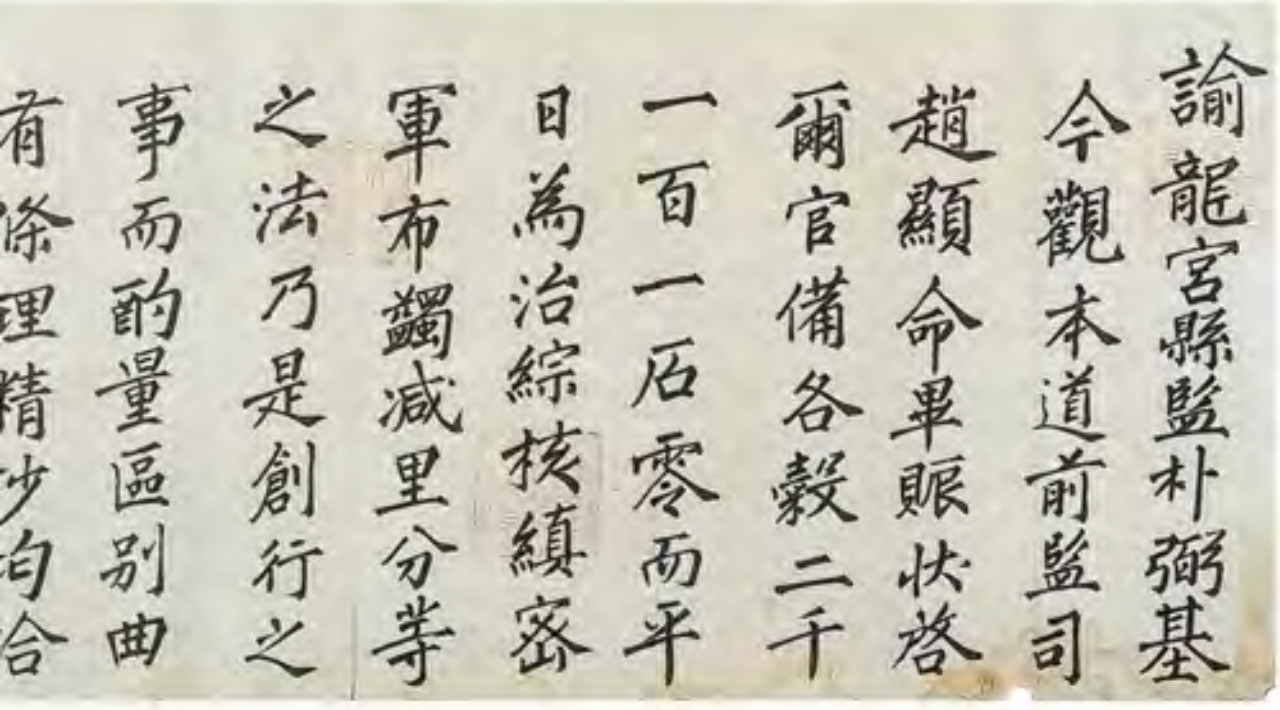
박필기혼서 朴弼基婚書
1695(肅宗 21), 紙本墨書, 68×73cm



박필기유서 朴弼基諭書
1732(英祖 8), 紙本墨書, 58.5×2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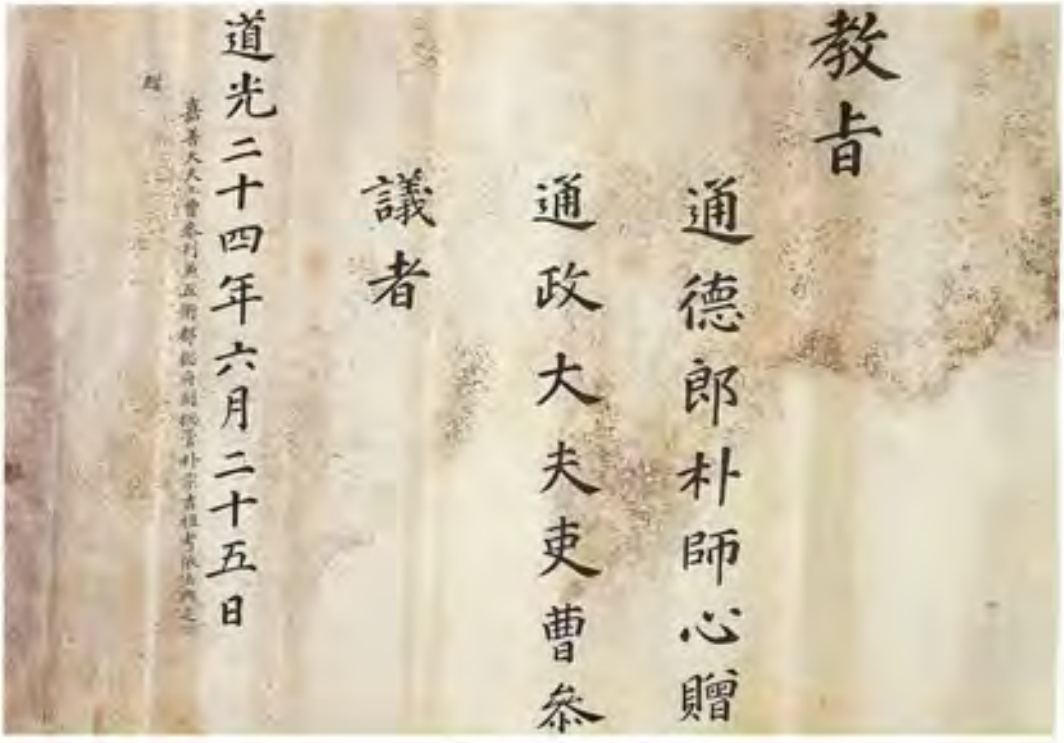
敎旨
朴弼基爲通訓
大夫行錦山郡
守者
乾隆二年四月十七日

박필기금산군수고신 朴弼基錦山郡守告身
1737(英祖 13), 紙本墨書, 55×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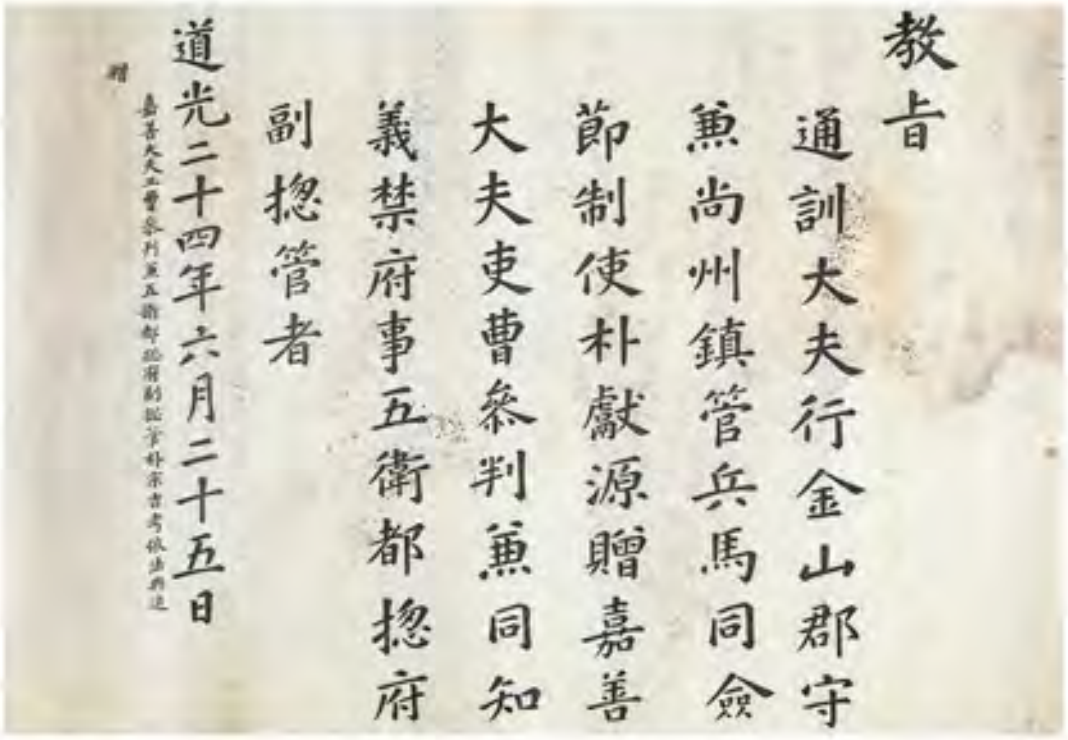

諭龍宮縣監朴弼基
今觀本道前監司
趙顯命畢賑狀啓
爾官備各穀二千
一百一石零而平
日爲治綜核縝密
軍布蠲減里分等
之法乃是創行之
事而酌量區別曲
有條理精妙切合

吏曹康熙六十一年八月
二十七日奉
敎通善郎朴師心爲
通德郎者
康熙六十一年八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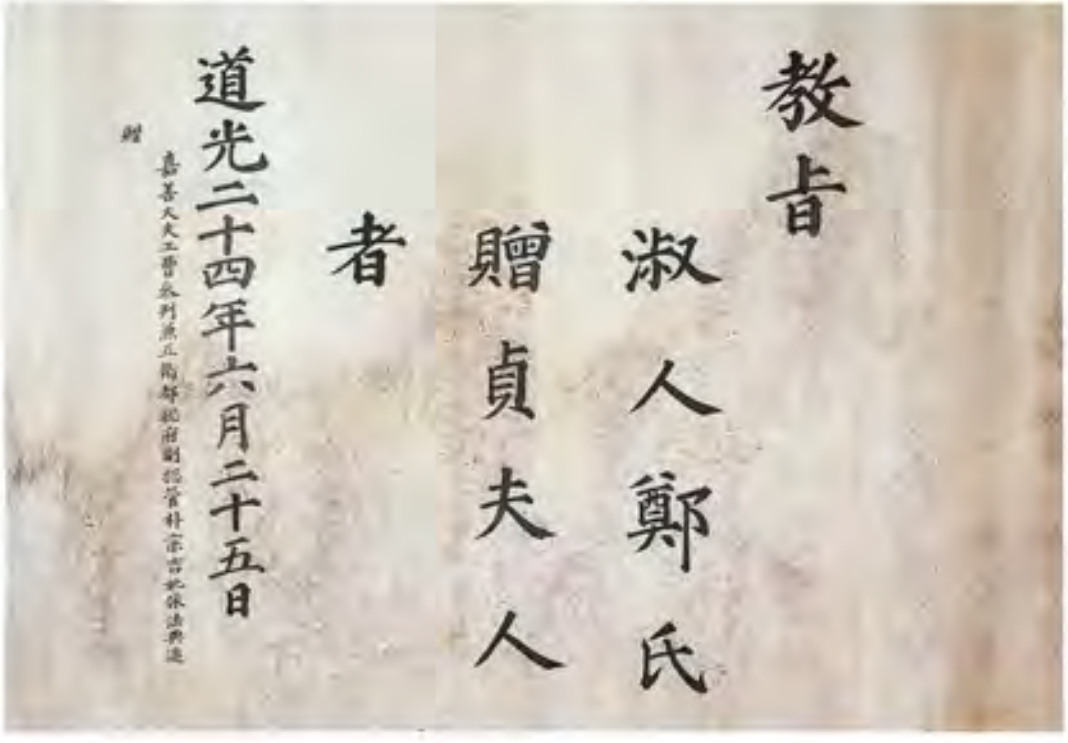
박사심통덕랑고신 朴師心通德郎告身
1722(景宗 2), 紙本墨書, 51.5×75.2cm


敎旨
通德郎朴師心贈
通政大夫吏曹參
議者
道光二十四年六月二十五日

박사심이조참의추증고신 朴師心吏曹參議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101.5cm


教旨
通訓大夫行金山郡守
兼尚州鎮管兵馬同僉
節制使朴獻源贈嘉善
大夫吏曹參判兼同知
義禁府事五衛都摠府
副摠管者
道光二十四年六月二十五日
贈
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朴宗吉考依法典造

박헌원가선대부추증고신 朴獻源嘉善大夫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10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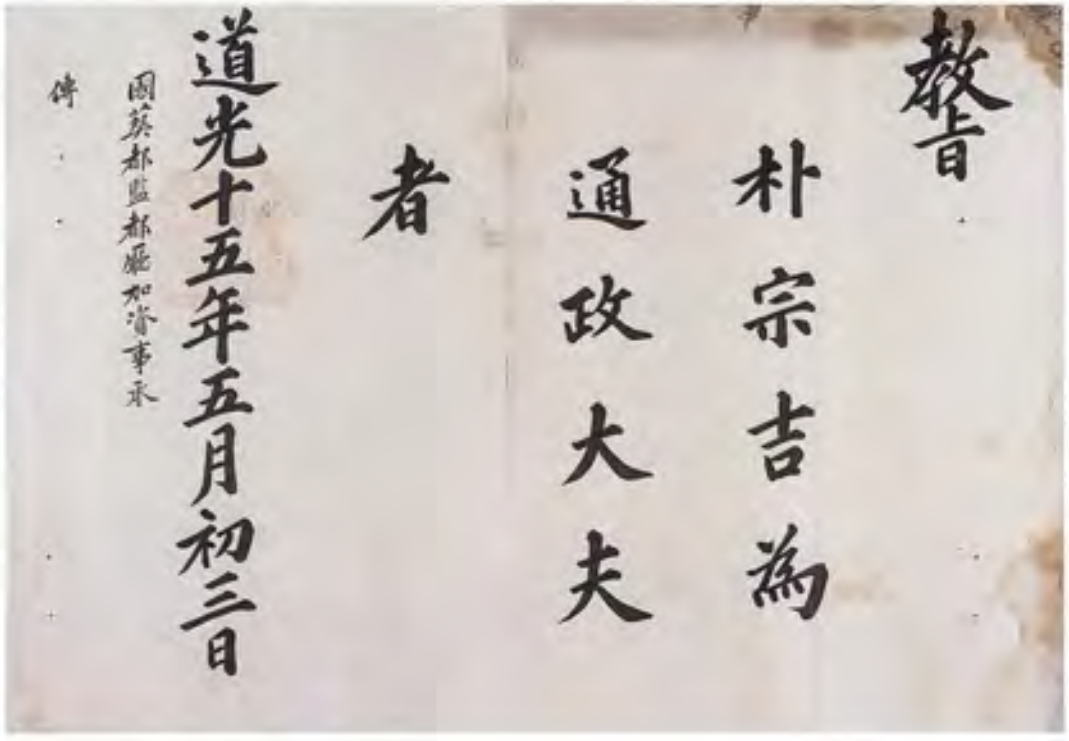

教旨
淑人鄭氏
贈貞夫人
者
道光二十四年六月二十五日
贈
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朴宗吉妃依法典造

박헌원처동래정씨정부인추증고신 朴獻源妻東萊鄭氏貞夫人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3×10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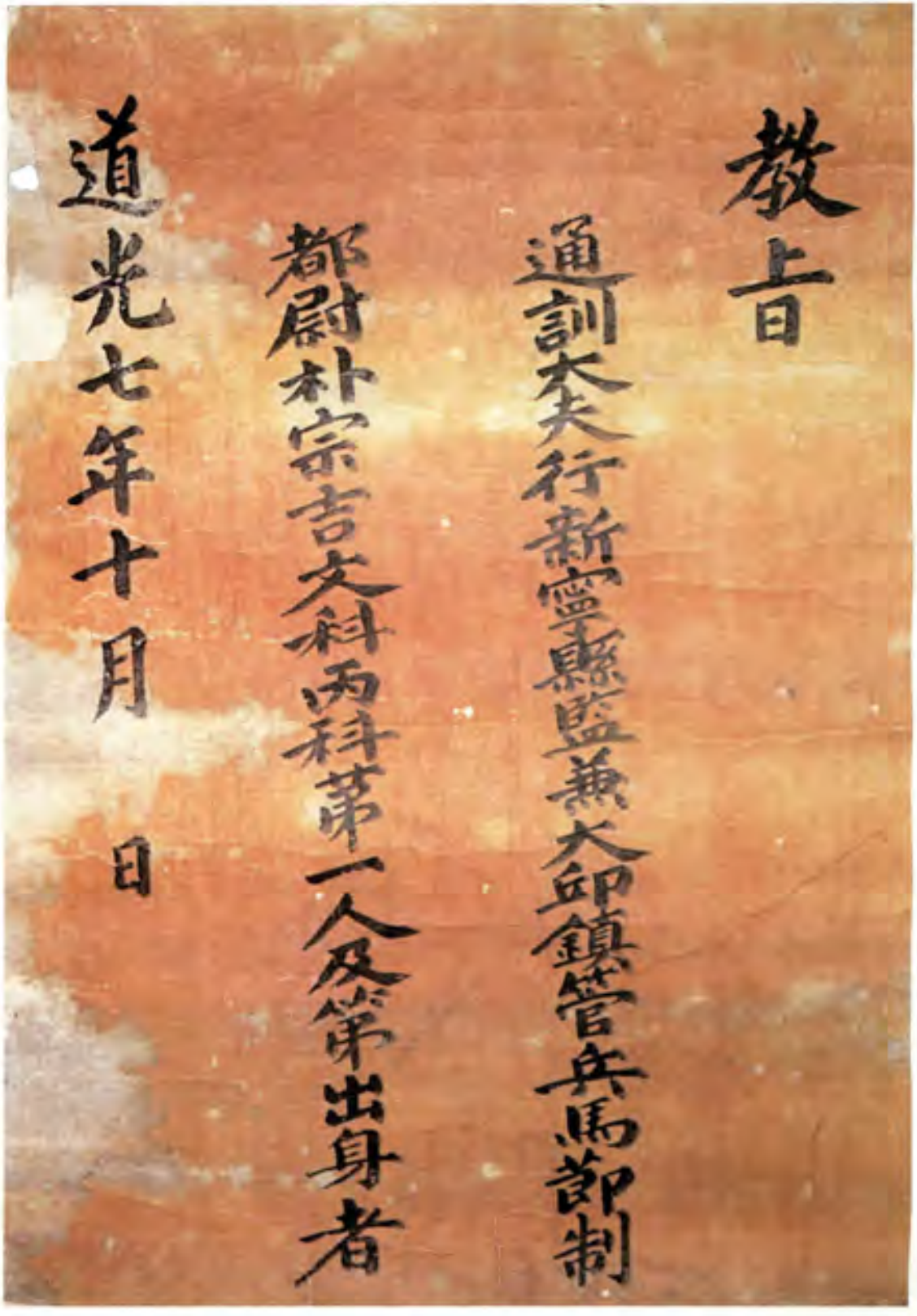
박헌원처청주한씨정부인추증고신 朴獻源妻清州韓氏貞夫人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3×101cm

박남원선공감가감역관차정첩 朴南源繕工監假監役官差定帖
1801(純祖 1), 紙本墨書, 52×7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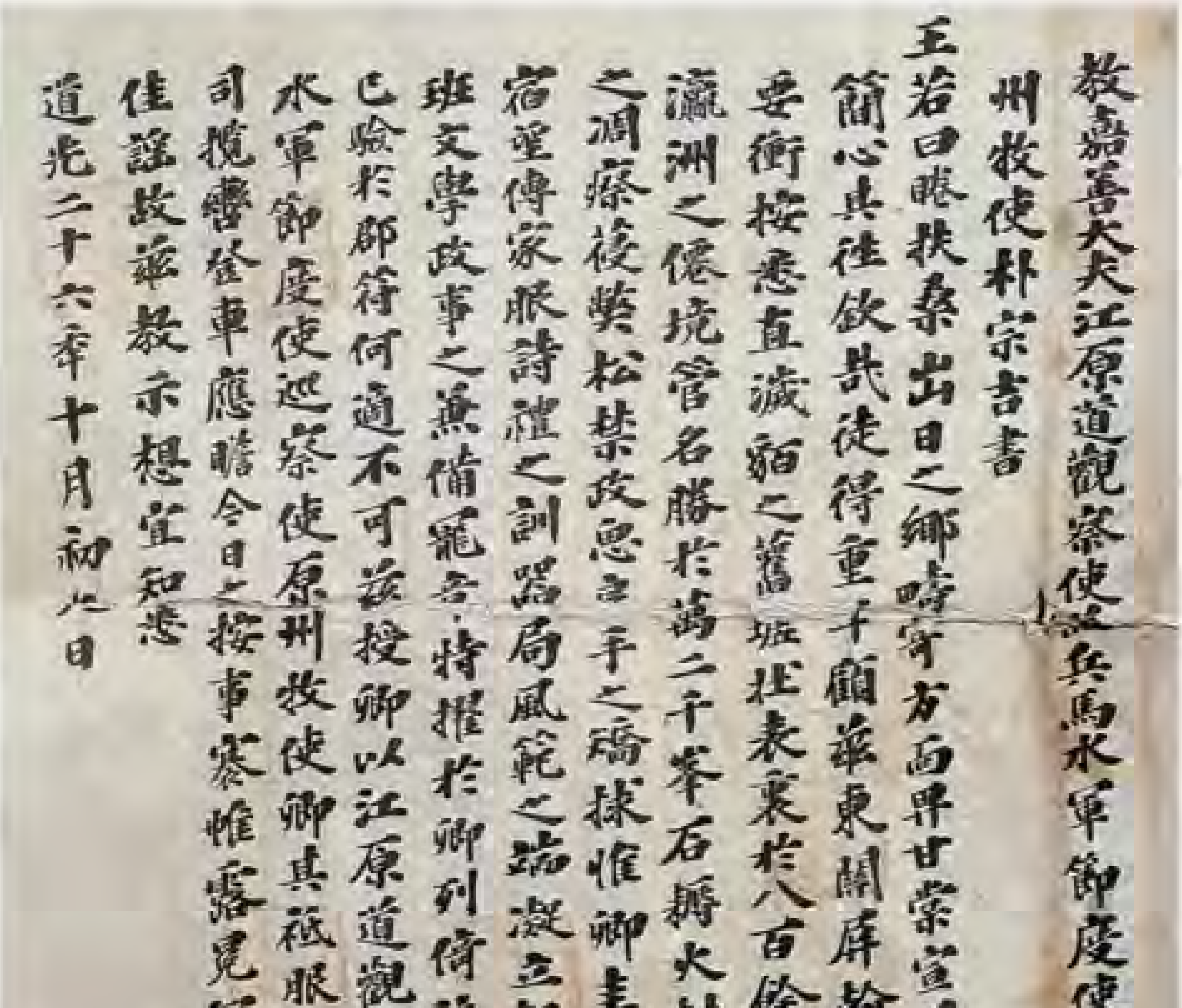
박남원장악원정고신 朴南源掌樂院正告身
1823(純祖 23), 紙本墨書, 51.4×75cm



박종길통정대부고신 朴宗吉通政大夫告身
1835(憲宗 1), 紙本墨書, 59×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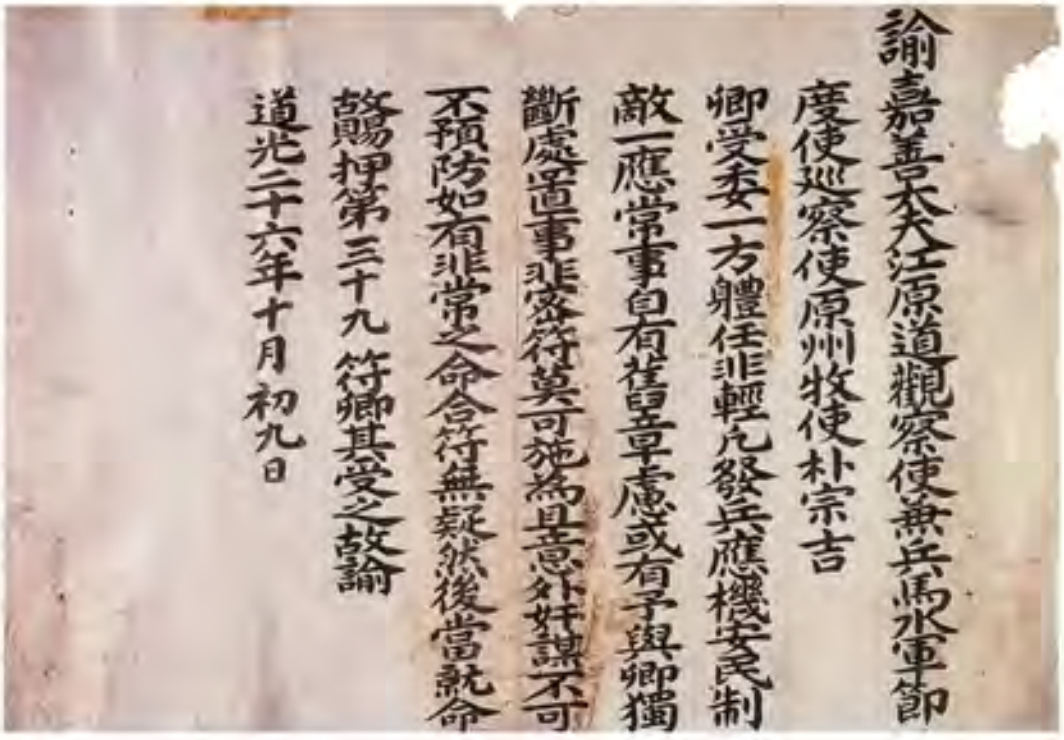


박종길홍패 朴宗吉紅牌
1827(純祖 27), 紙本墨書, 89.5×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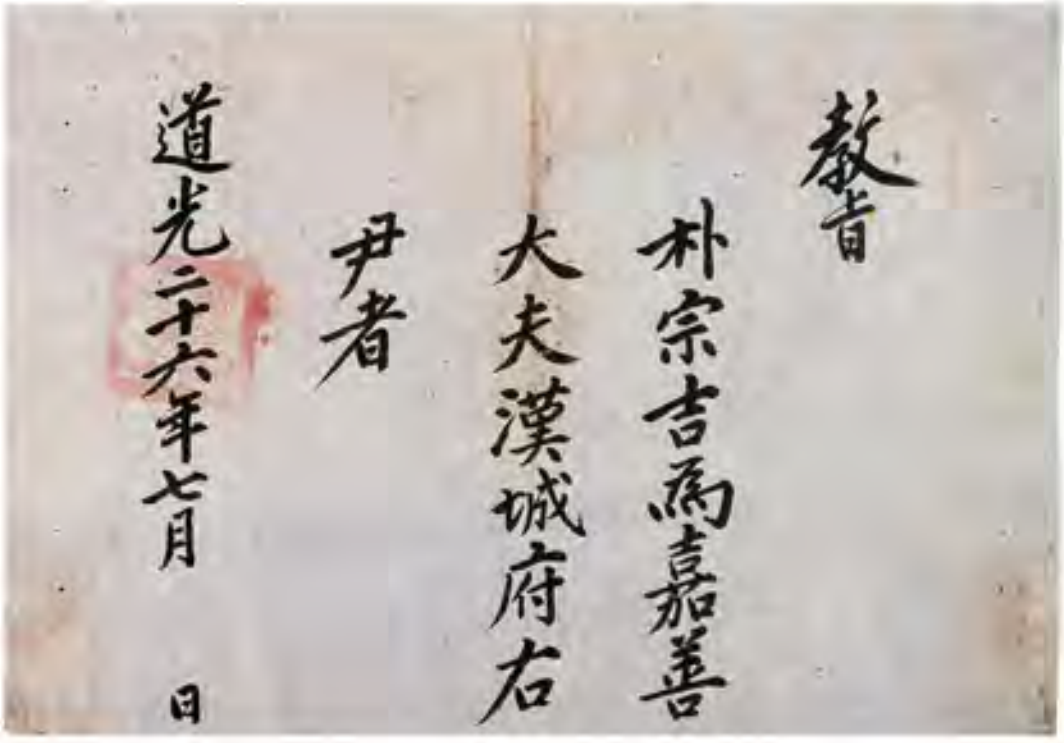

教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
州牧使朴宗吉書
王若曰眷茲桑出日之鄉寄方面畀甘棠宣風之職予惟
簡心其往欽哉徒得重千顧藩東關屛翰寔是上游
要衝按惡直濊貊之舊墟莊表裏於八百餘里控蓬萊
瀛洲之優境管名勝於萬二千峯石爾大耕堪嗟峒戶
之凋瘵後弊松禁政恩弖手之瘡抹惟卿圭璋令姿儒雅
宿望傳家服詩禮之訓器局風範之端凝立朝踐淸華之
班文學政事之兼備[illegible]特擢於卿列侍往也淑績屠
已驗於郡符何適不可茲授卿以江原道觀察使兼兵馬
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卿其祗服恩命往卽乃
司攬轡登車應瞻今日之按事褰帷露冕何開行春之
佳謠故茲敎示想宜知悉
道光二十六年十月初六日

■ 박종길강원도관찰사교서 朴宗吉江原道觀察使敎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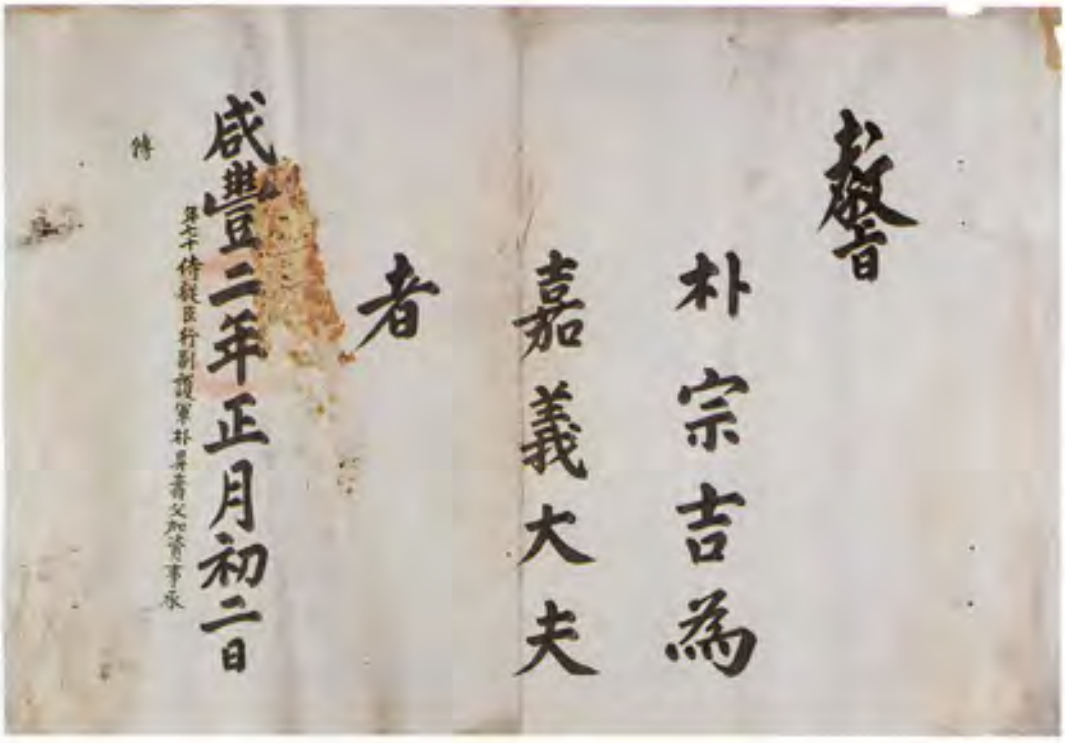
1846(憲宗 12), 紙本墨書, 112×119cm


諭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
度使巡察使原州牧使朴宗吉
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緩兵應機安民制
敵一應常事自有舊章處或有予與卿獨
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為是意幷好謀不可
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
毋得押第三十九 符卿其受之故諭
道光二十六年十月初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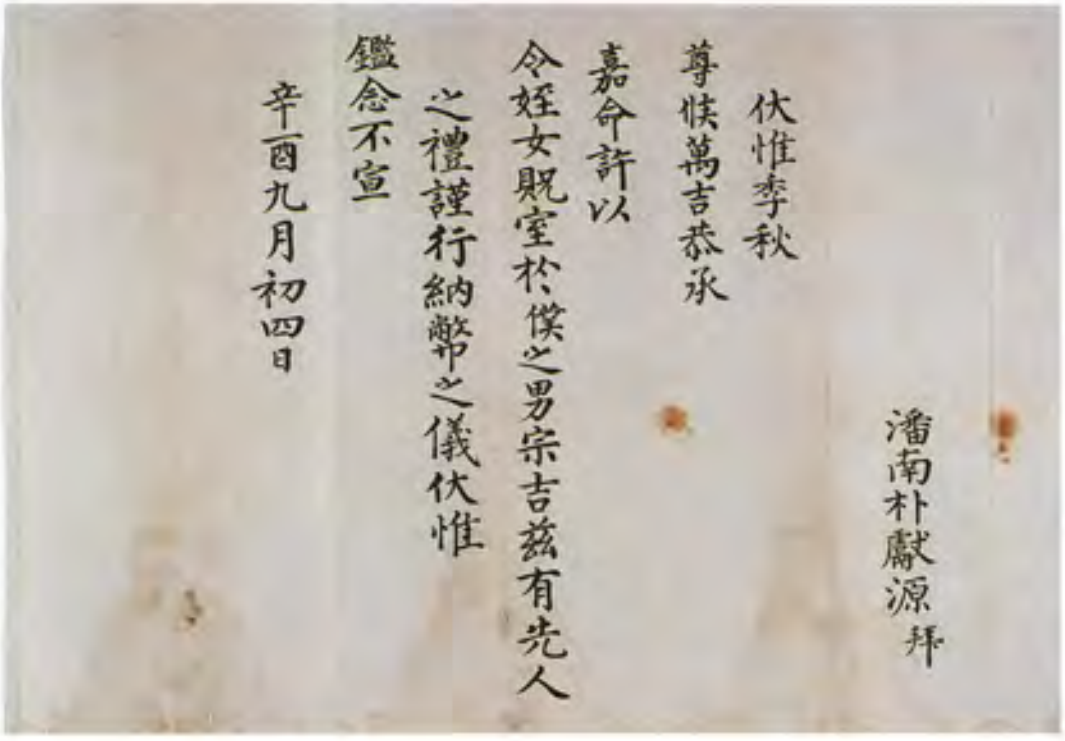
박종길강원도관찰사유서 朴宗吉江原道觀察使諭書
1846(憲宗 12), 紙本墨書, 56.8×81cm


敎旨
朴宗吉爲嘉善
大夫漢城府右
尹者
道光二十六年七月 日

박종길한성부우윤고신 朴宗吉漢城府右尹告身
1846(憲宗 12), 紙本墨書, 53.7×76㎝



34 박종길가의대부고신 朴宗吉嘉義大夫告身
1852(哲宗 3), 紙本墨書, 57×79.5cm



35 박종길혼서 朴宗吉婚書
1801(純祖 1), 紙本墨書, 65.5×79.2cm

박종길사제문 朴宗吉賜祭文
1852(哲宗 3), 紙本墨書, 48.5×80.5cm

박종시종사랑고신 朴宗始從仕郎告身
1807(純祖 7), 紙本墨書, 53.5×73.5cm

吏曹道光七年七月
二十四日奉
教將仕郎朴宗望
爲從仕郎者
道光七年 月 日
同生兄通訓大夫行新寧縣監朴宗吉
代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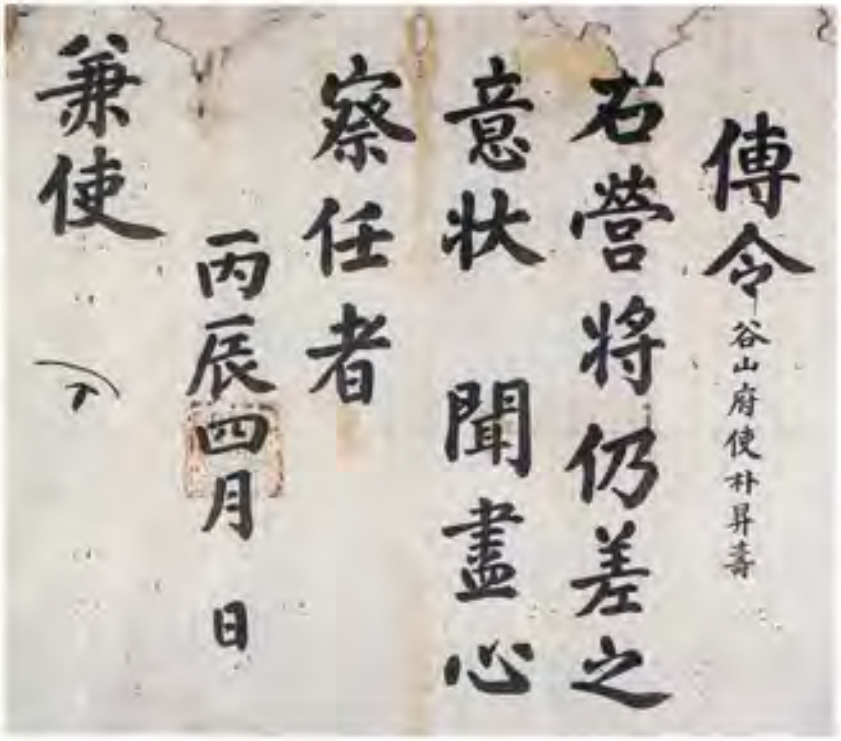
박종망종사랑고신 朴宗望從仕郎告身
1827(純祖 27), 紙本墨書, 53×74cm

教旨
進士朴昇壽文科丙科
第三人及第出身者
道光二十五年四月十八日

박승수홍패 朴昇壽紅牌
1845(憲宗 11), 紙本墨書, 95.5×73㎝

박승수홍문관부수찬고신 朴昇壽弘文館副修撰告身
1850(哲宗 1), 紙本墨書, 53×75.4cm

박승수통정대부고신 朴昇壽通政大夫告身
1851(哲宗 2), 紙本墨書, 55.5×80.5cm


傳令
谷山府使朴昇壽
右營將仍差之
意狀 聞盡心
察任者
兩辰四月 日
兼使

박승수우영장차정전령 朴昇壽右營將差定傳令
1857(哲宗 7). 紙本墨書. 63×6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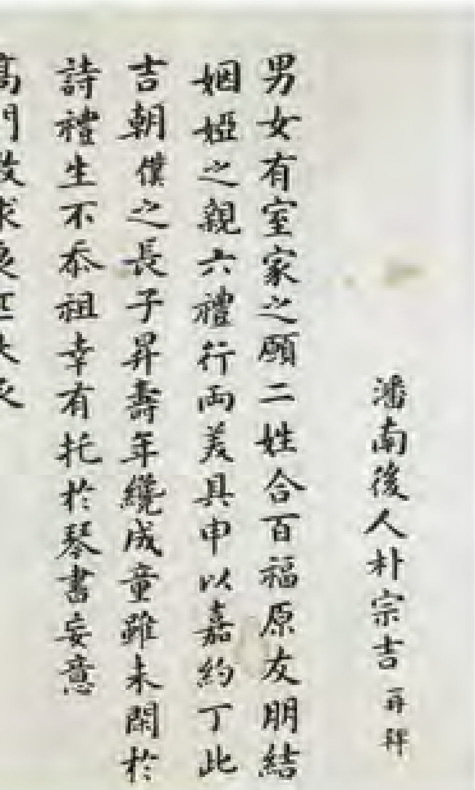
敎旨
朴昇壽爲通政大
夫承政院同副承
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者
咸豊四年六月 日

박승수승정원동부승지고신 朴昇壽承政院同副承旨告身
1865(高宗 2). 紙本墨書. 55×75.3cm

兩先正繼開之緖爰有蘧女士之休亦粤百
行源傳襲之餘夙著秀閨房之譽許以
授室吉叶宜家斯擧納幣之儀庸備合巹
之禮奕世之厚誼愈篤婿迎婦歸盈門之
喜氣孔多夫和妻順
庚辰三月二十日

惟聖者其能之　根一心而來其
蓋莫善乎鮪華　篤四端而隨感
虛明地而渾然　無不善於厥初
一賢愚與古今　孰克何而舜何
非獨豐於上知　救純粹而取著
豈終畜於衆玄　說不厭其麤之
是孔道於李悌　知良能之共賦
聰聲樂於詩書　窺懿則之率由
遵五常而導建　肆孟氏之教人
緬三古而儀圖　必於是而嚮之
可遺傳而景仰　嗟聖遠而言湮
緯摩龍而選究　人遺敝其奚希
蒸民有此本善　雁雲落於一點
聖道以而相授　水月照於千古
羌事言而復言　惟性分之固有
孰求美而釋藥　紹實地之工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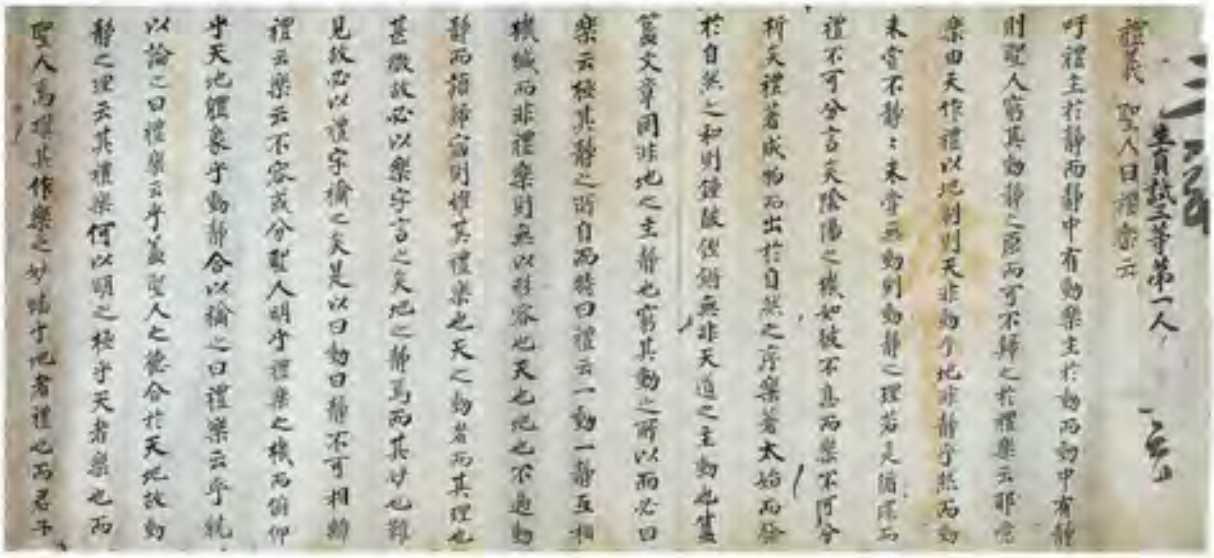
박승수문과합격시권 朴昇壽文科合格試券
1845(憲宗 11). 紙本墨書. 60×246.5cm


潘南後人朴宗吉 再拜
男女有室家之願二姓合百福原友朋結
姻婭之親六禮行而美具中以嘉約丁此
吉朝僕之長子昇壽年纔成童雖未閑於
詩禮生不忝祖幸有托於琴書妄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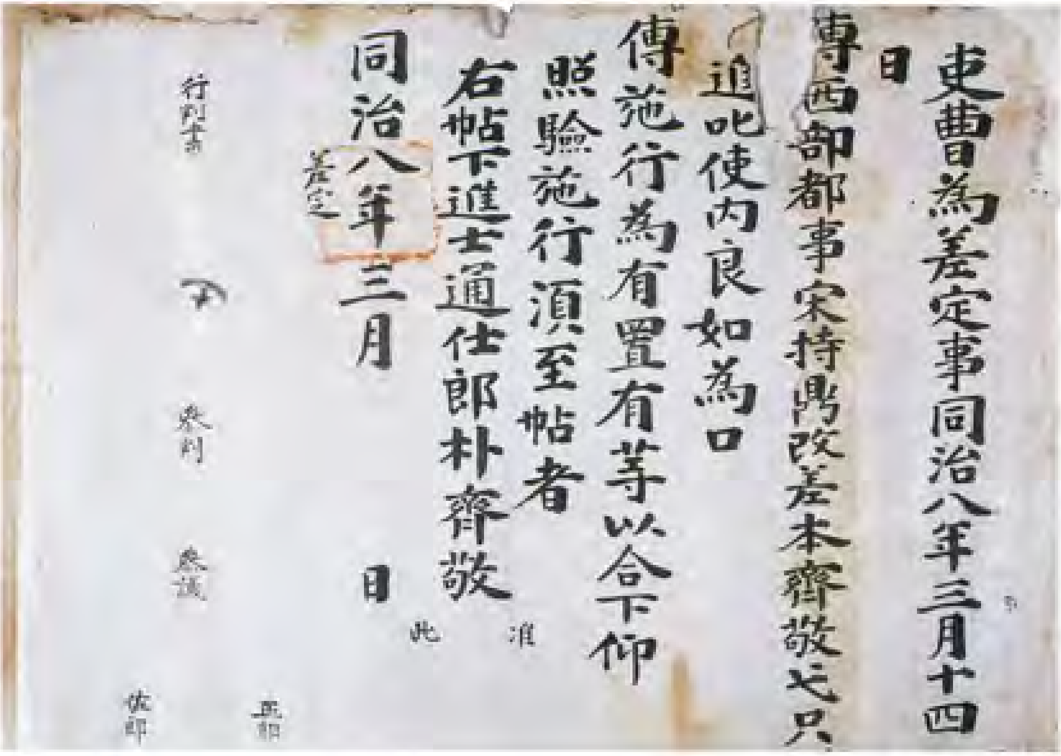
박승수혼서 朴昇壽婚書
1820(純祖 20), 紙本墨書, 63×80cm

嘉禮 慶科庭試別試文科 殿試丙科第三人
言必稱堯舜 賦
緖二典而七篇 民彝而有欲
聖謨洋於和衷 大人穆其踐形
依前聖而折中 播同得於本然
一稱字而蔽之 喇有為而若是
天所賦而曰性 心惟精而執一
與人同於堯舜 毫不加而足萬
生衷稱而好懿 嗟形氣之所拘
聖浩浩而其天 衆人梏其本善
荀說混而善惡 其誰存乎夜氣
告喻湍而外義 之山木其賊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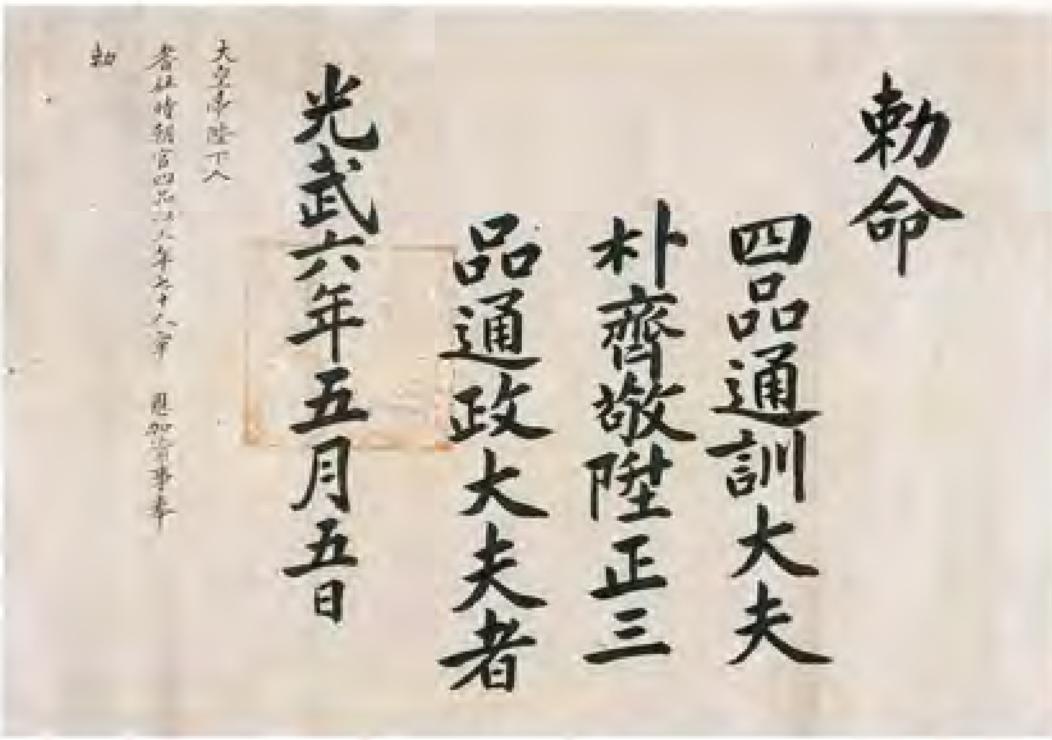
박제경사헌부감찰고신 朴齊敬司憲府監察告身
1894(高宗 31), 紙本墨書, 53.2×75㎝



박제경시권 朴齊敬試券
1864(高宗 1), 紙本墨書, 71.6×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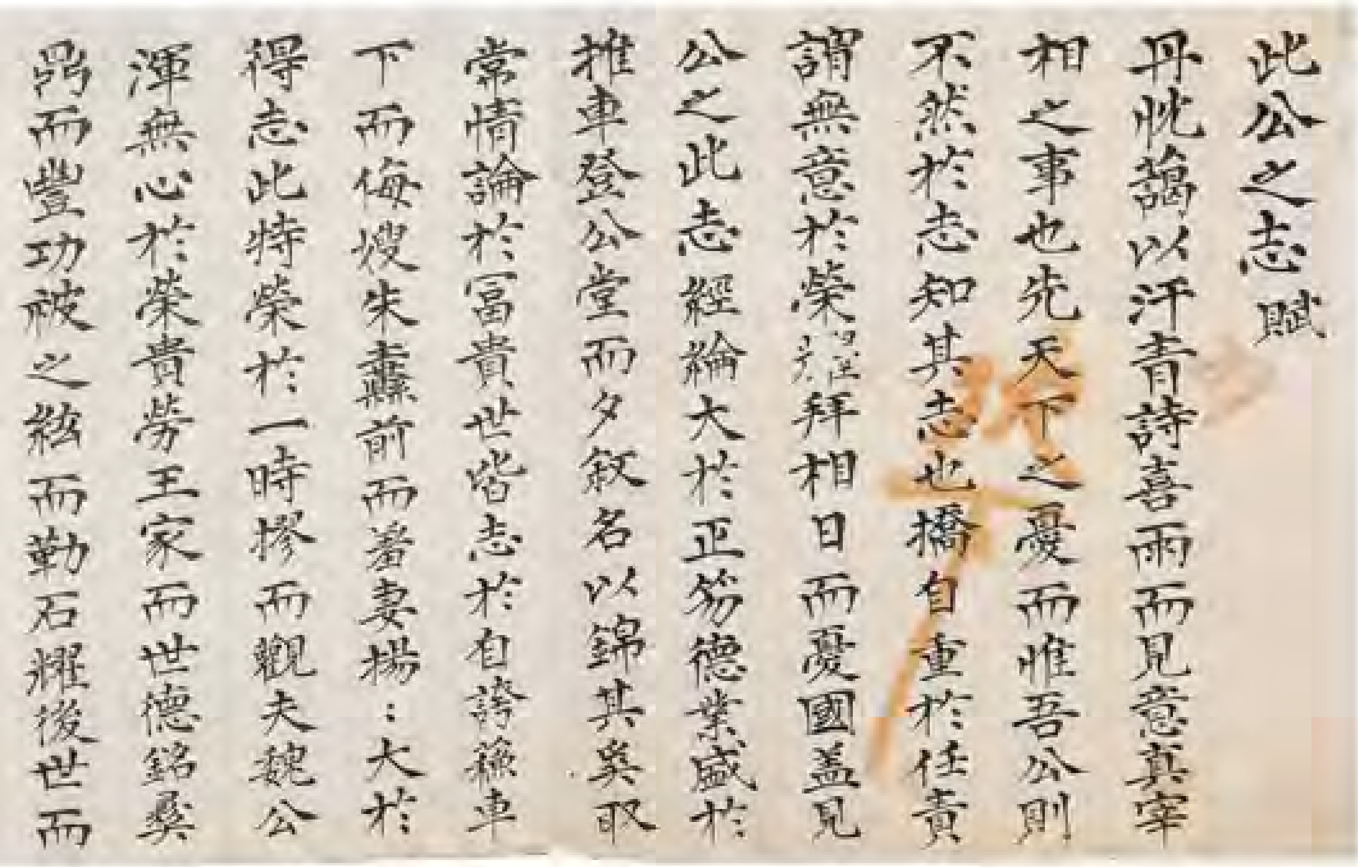

吏曹爲差定事同治八年三月十四
日
傳西部都事宋持禹改差朴齊敬之只
追此使內良如爲白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進士通仕郎朴齊敬
同治八年三月 日

▣ 박제경서부도사차정첩 朴齊敬西部都事差定帖
1869(高宗 6), 紙本墨書, 55×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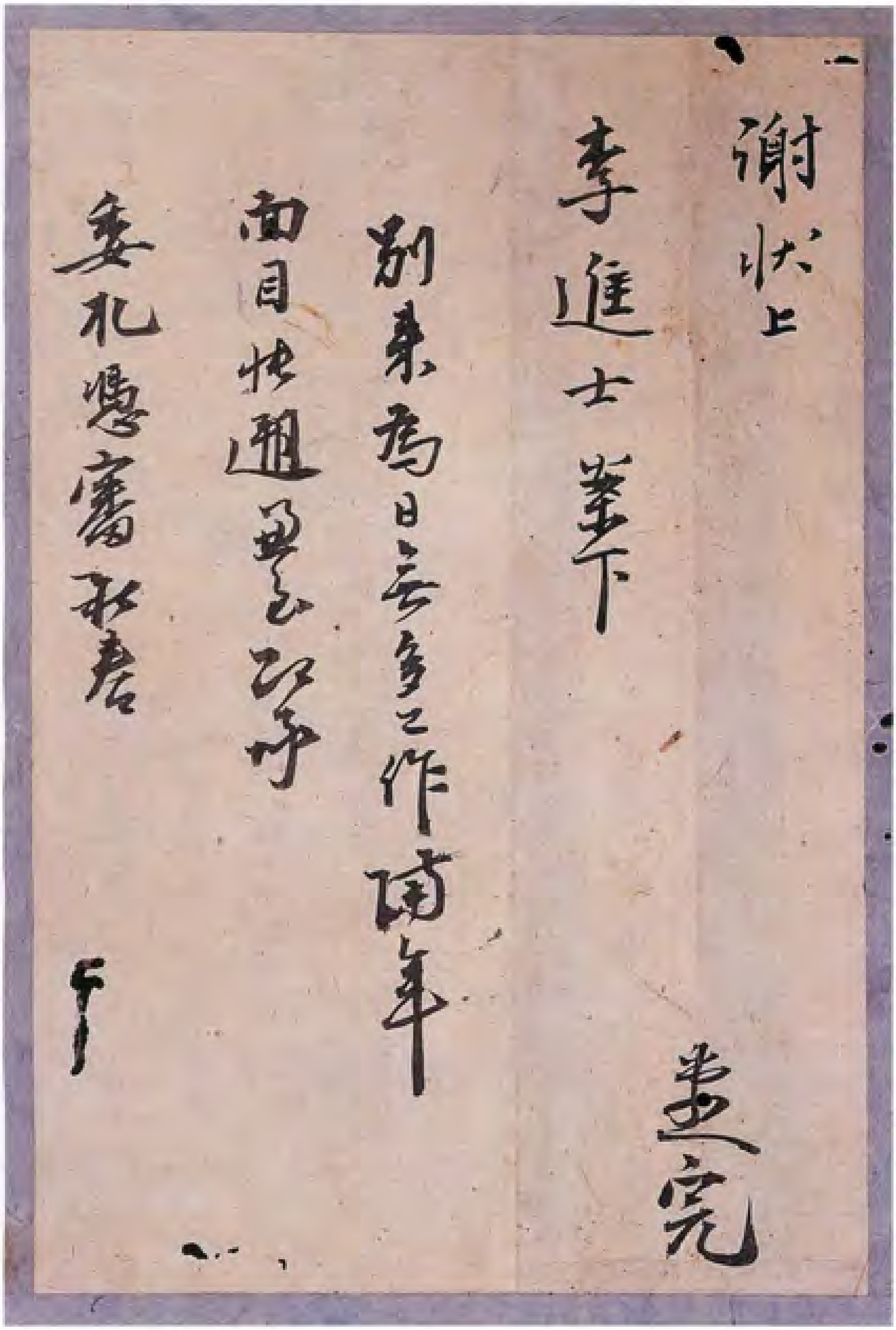

勅命
四品通訓大夫
朴齊敬陞正三
品通政大夫者
光武六年五月五日

▣ 박제경통정대부칙명 朴齊敬通政大夫勅命
1902(光武 6), 紙本墨書, 40.2×5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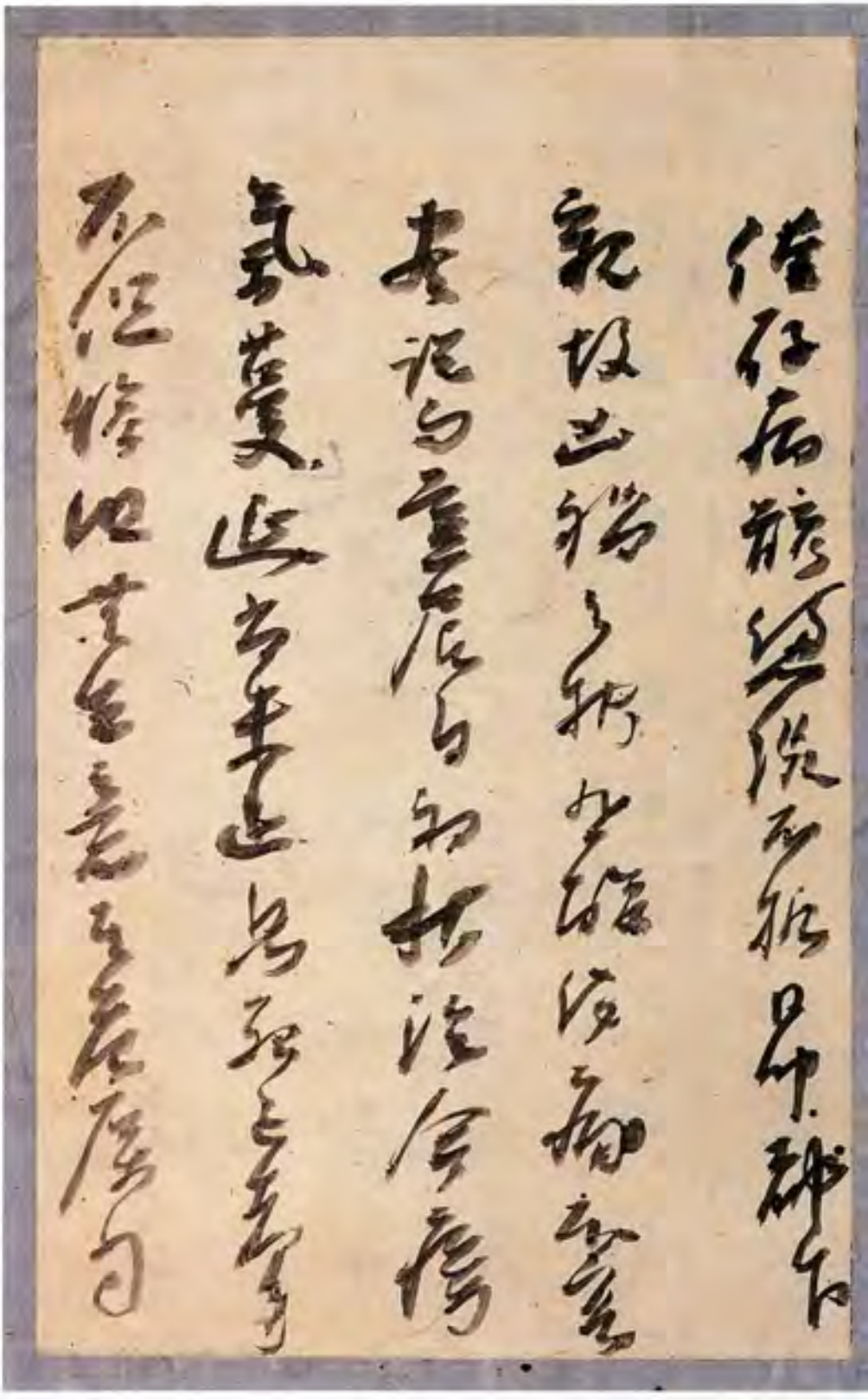
박인양시권 朴仁陽試券
1879(高宗16), 紙本墨書, 67×165.5cm


此公之志賦
丹忱藹以汗青詩喜雨而見意眞宰
相之事也先天下之憂而惟吾公則
不然於志知其志也矯自重於任責
謂無意於榮[illegible]拜相日而憂國蓋見
公之此志經綸大於正笏德業盛於
推車登公堂而夕叙名以錦其奚取
常情論於富貴世皆志於自誇稼車
下而侮嫂朱纛前而著妻揚々大於
得志此特榮於一時摻而觀夫魏公
渾無心於榮貴勞王家而世德銘彝
爲而豐功被之絃而勒石耀後世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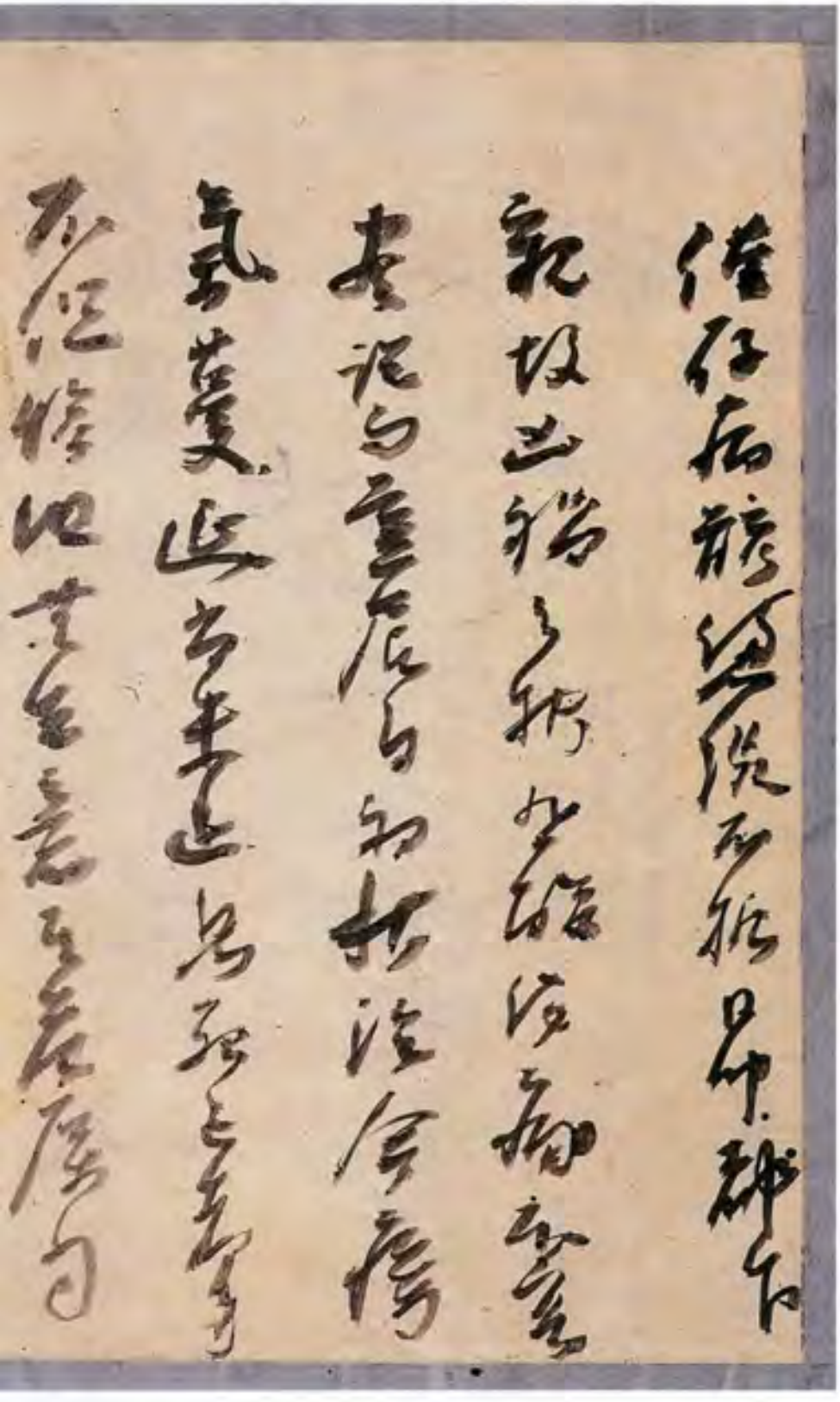
31 서계유묵 西溪遺墨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5×25㎝, 朴範緖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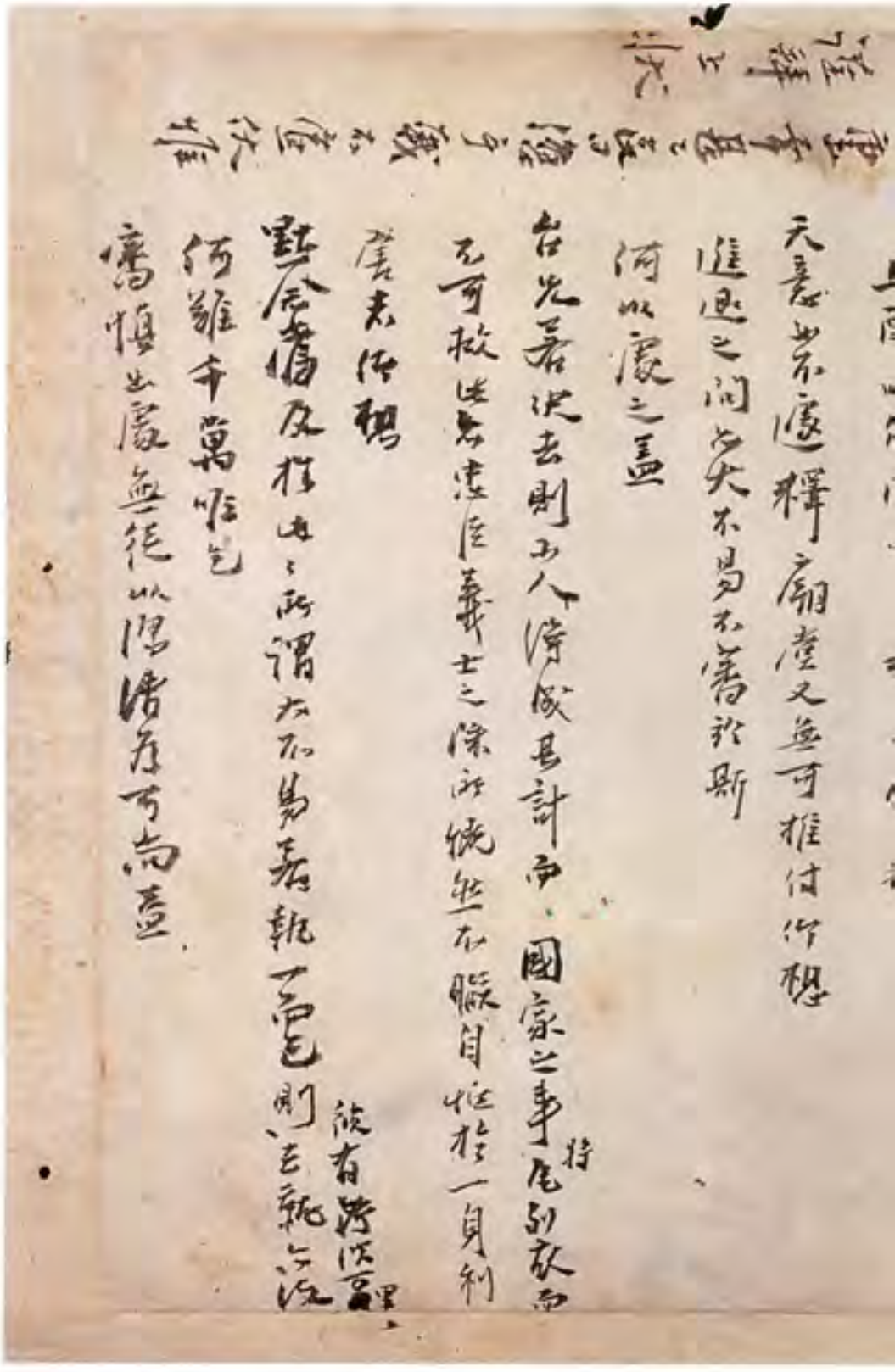


서계가 이정신(李正臣)에게 보낸 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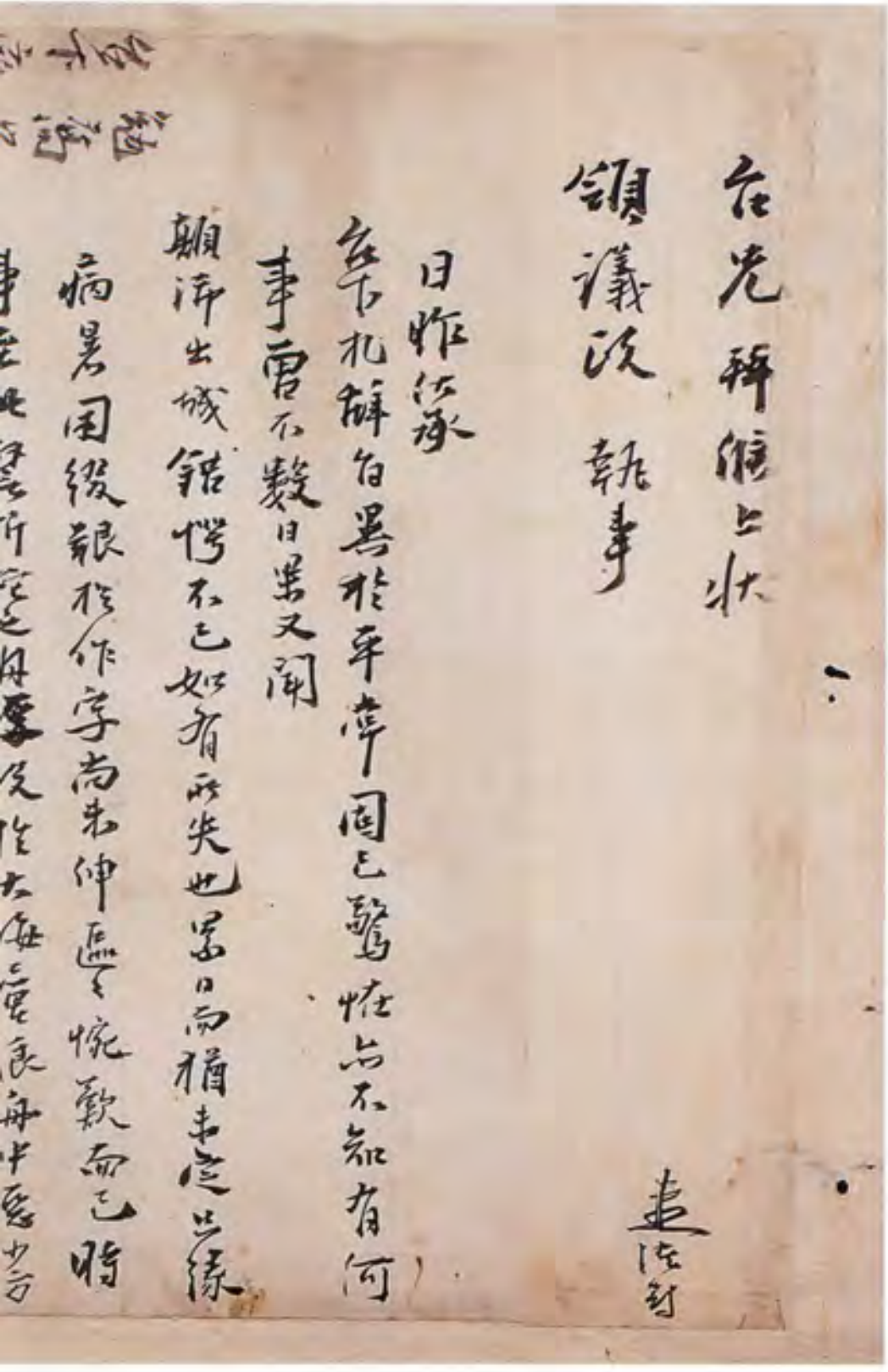


31 서계가 이정신(李正臣)에게 보낸 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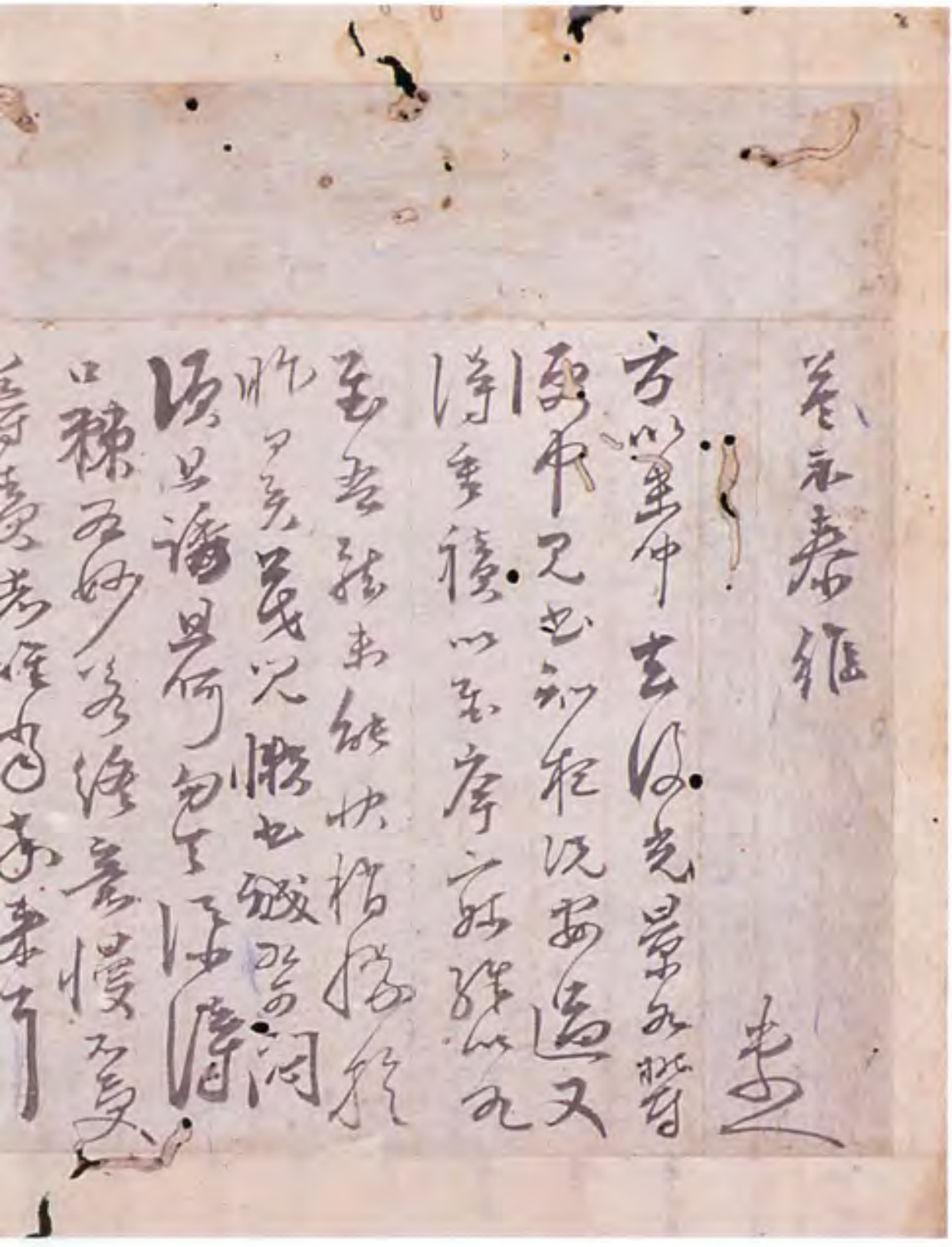
서계가 남구만(南九萬)에게 보낸 서간



서계가 아들 박태유에게 보낸 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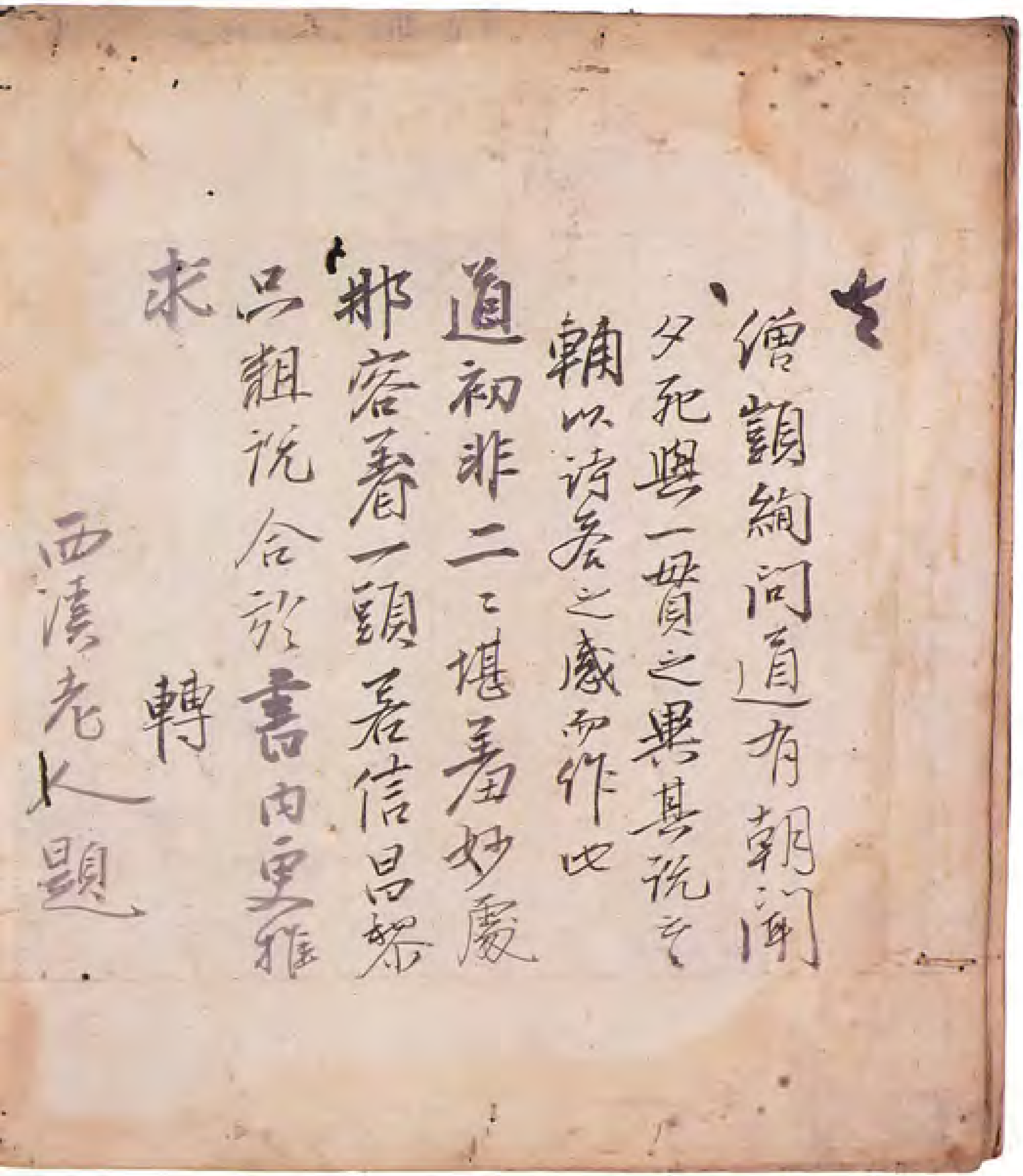
선독 先牘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5×22.5cm, 朴範鎬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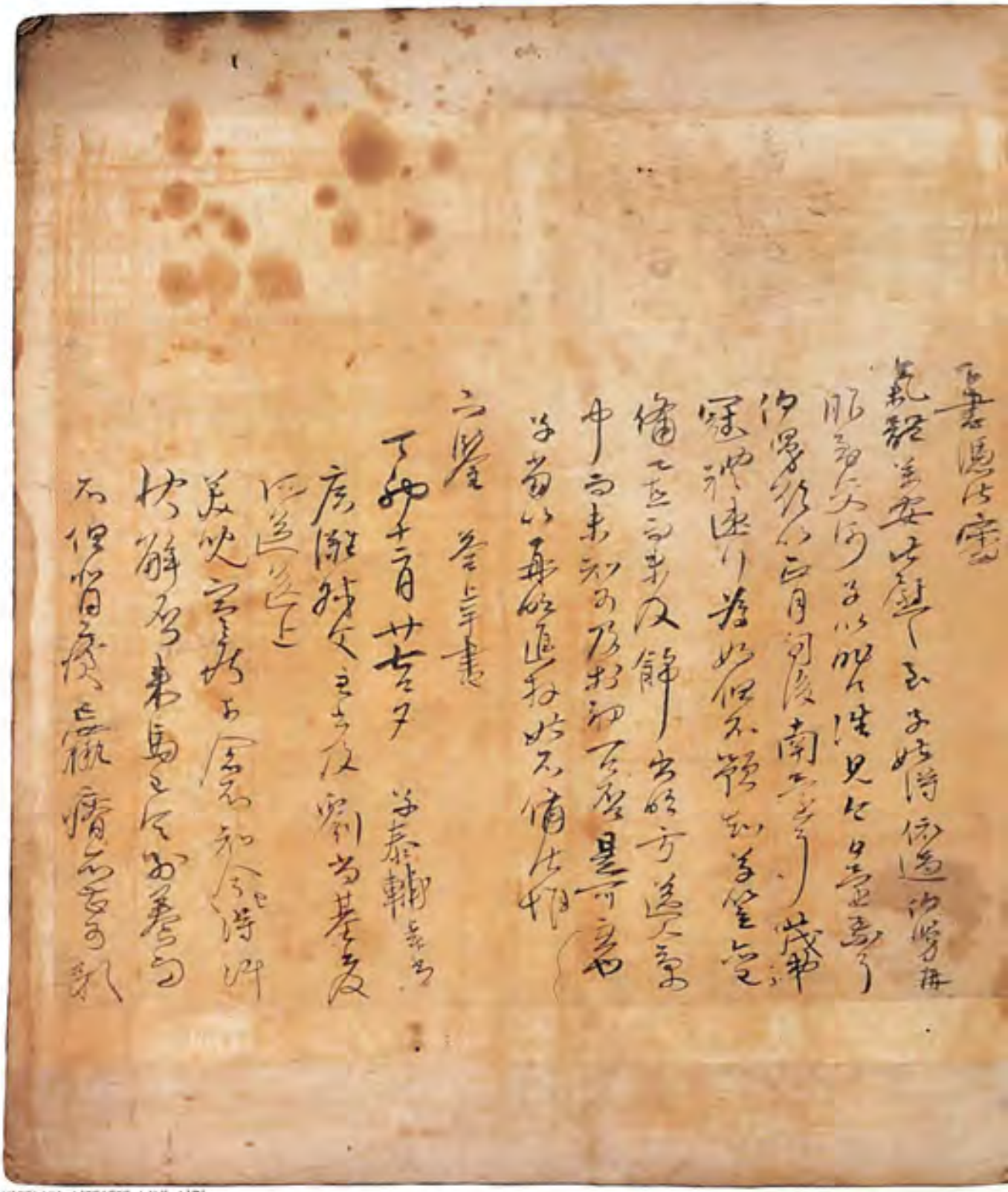


서계의 詩文 초고

선조유필 先祖遺筆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8×33㎝, 朴範緖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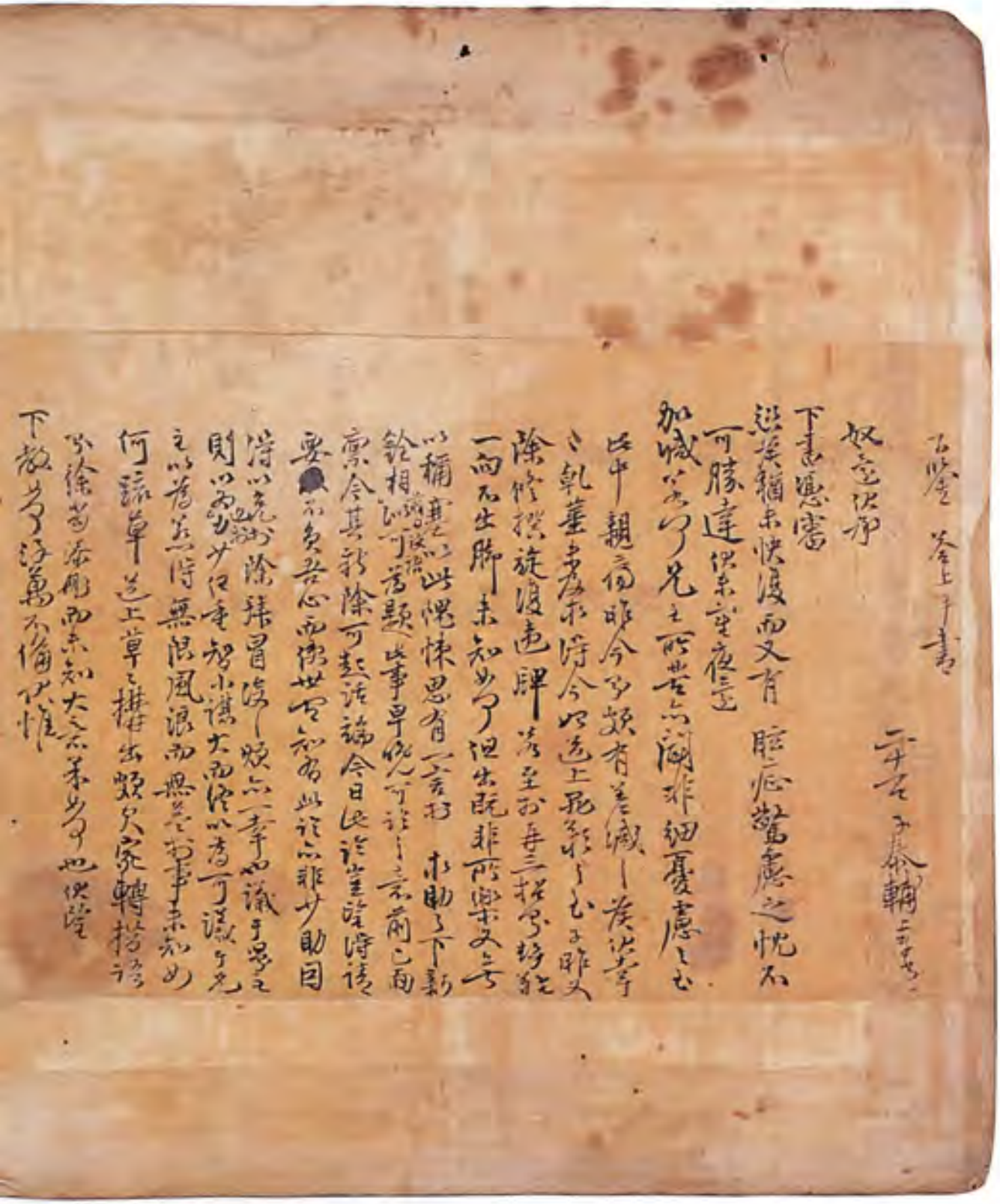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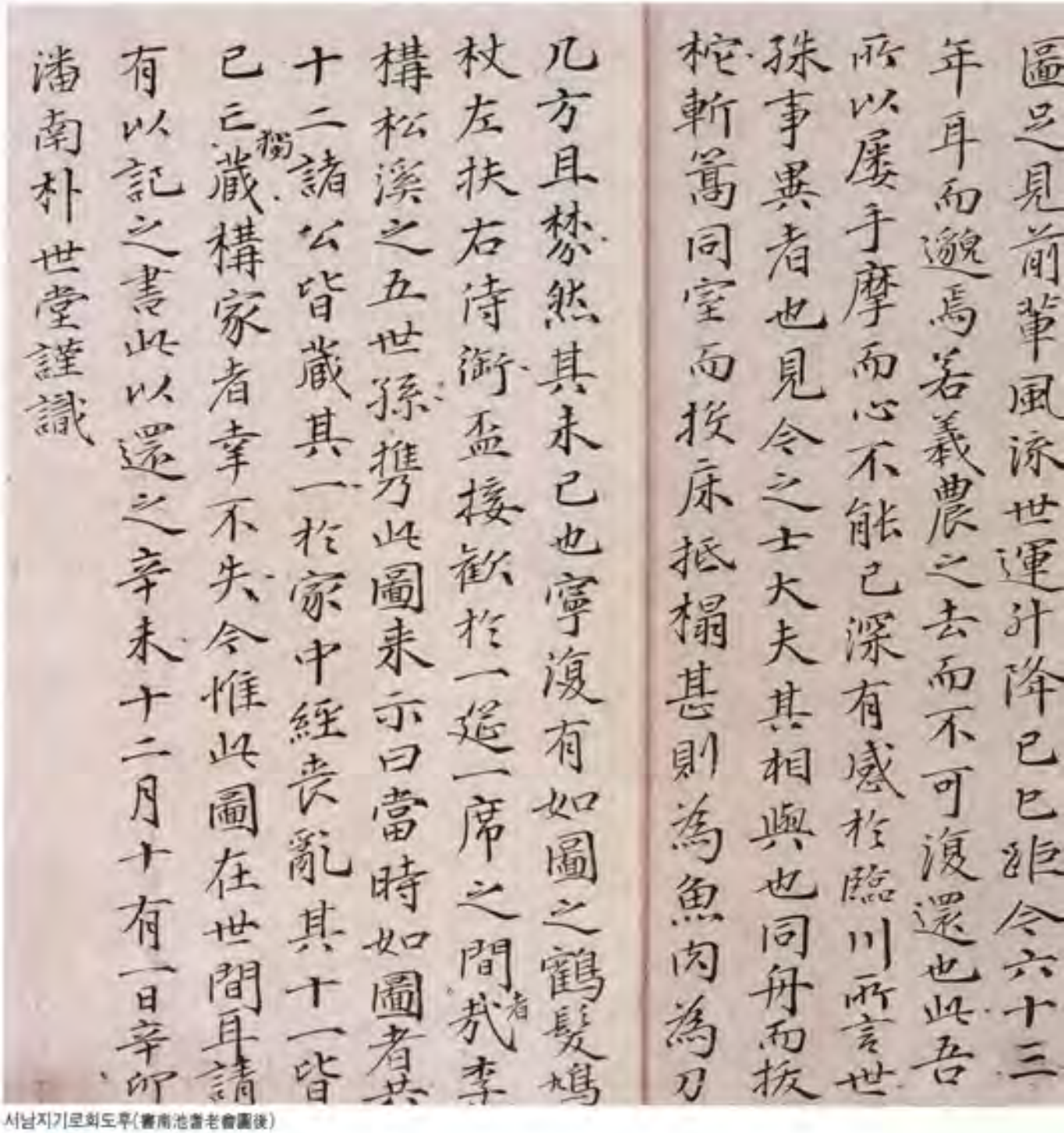
僧韻綱問道有朝聞
夕死與一貫之異其說々
輒以詩答之感而作也
道初非二々堪喜妙處
那容著一頭着信昌黎
只粗說合談書內更雅
求 轉
西溪老人題



박태보가 서계에게 보낸 서간

■ 가장유묵 家藏遺墨
17世紀, 帖, 紙本墨書, 44.5×37cm, 朴範緖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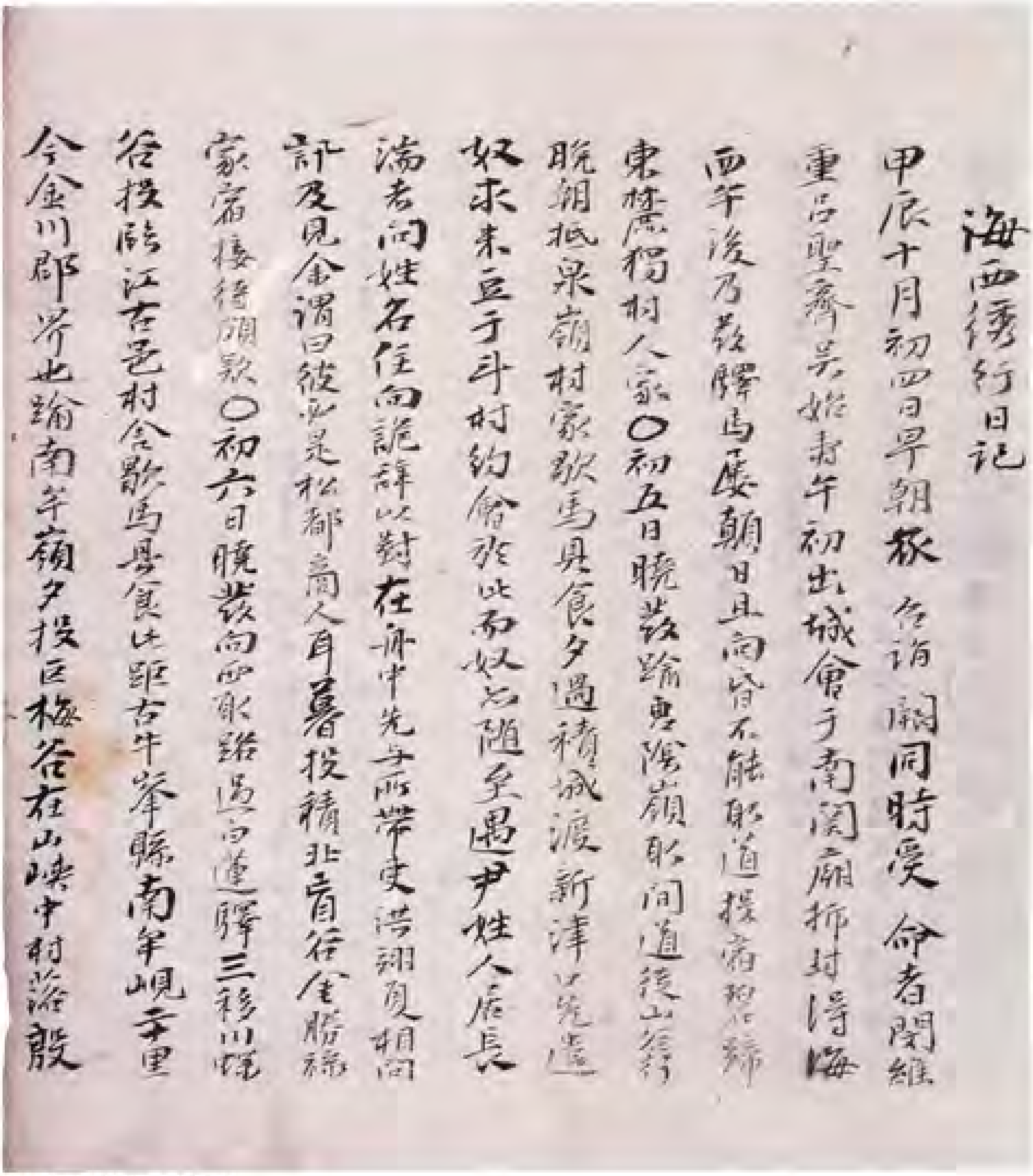


서남지기로회도후(書南池耆老會圖後)

서계잡문 西溪雜文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6.5×27.5cm

書南池耆老會圖後

圖作於 仁祖七年己巳為明崇禎二年其會則城南池賞蓮時即六月五日會者共十二人先齒而後爵於是松溪翁年八十一為最老居前次尹攸興李愈知俱年八十次延陵年七十七次李正郎洪同知姜右尹俱年七十五次延平年七十三次徐參贊年七十二次姜愈知柳左尹俱年七十一沈青平年六十八最少不及諸公亦與會有唐宋故事焉諸公又皆有子爺浮侍多者至三人其最貴則有李判書與白軒相國延陽相國與延城君徐相國與達城撫尉獨松溪無子爺侍圖下皆各列官秩姓名其書者白軒而李判書及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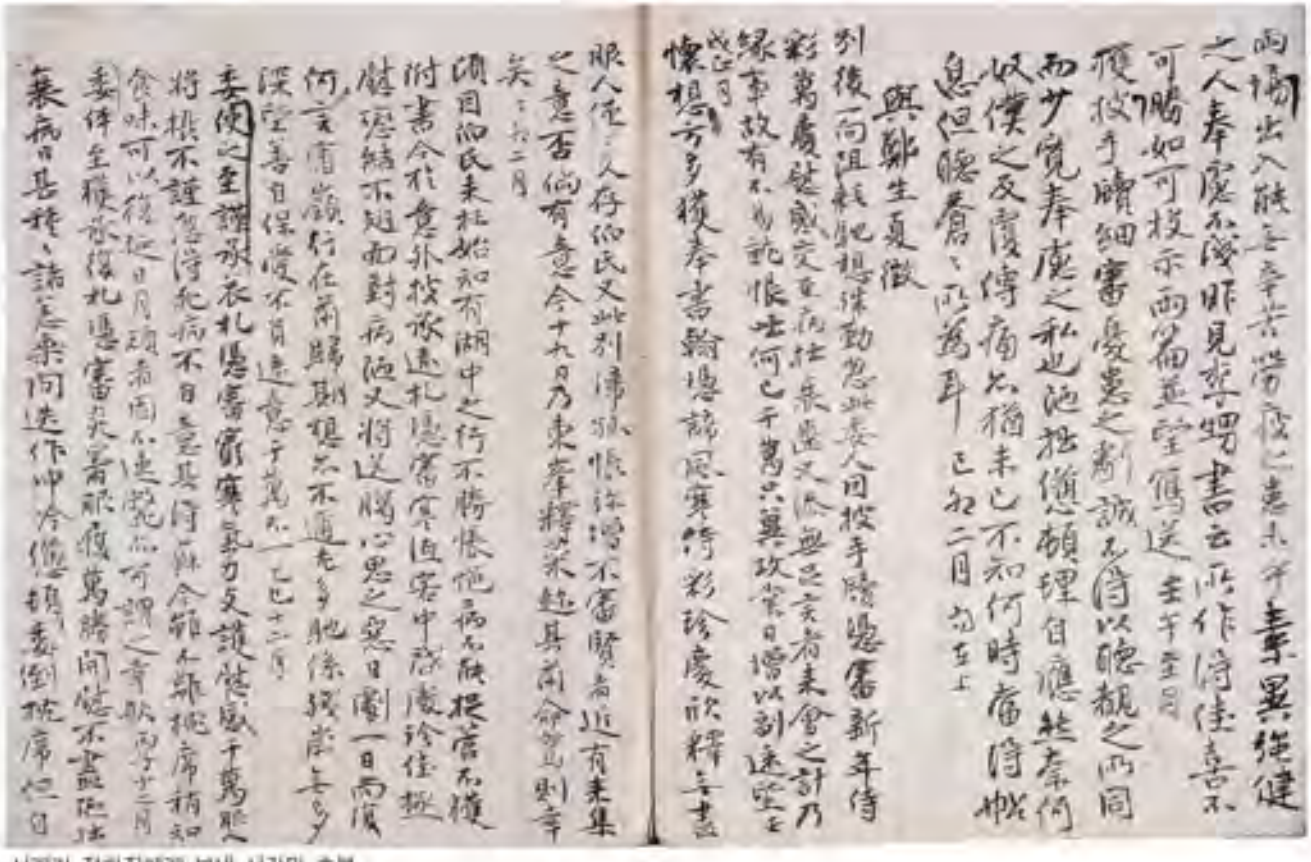

海西繡行日記

甲辰十月初四日早朝祇召詣闕同時受命者閔維
重呂聖齊吳始壽午初出城會于南關廟拆封得海
西午後乃發驛馬屢蹶日且向昏不能趁道投宿碧蹄
東禁獨村人家○初五日曉發踰惠陰嶺趁間道從山谷行
晩朝抵泉嶺村家歇馬具食夕過積城渡新津以先遣
奴來未至于斗村約會於此而奴亦隨至遇尹姓人居長
湍者問姓名住處詭辭以對在舟中先生所帶吏洪翊夏相問
訊及見金謂曰彼必是松都商人耳暮投積北青谷金勝福
家宿樓僧調歇○初六日曉發向西歇猪過白蓮驛三移川
谷投臨江古邑村令歇馬具食此距古牛峯縣南牛峴三十里
今金川郡界也踰南牛嶺夕投臣梅谷在山峽中村落殷

해서수행일기(海西繡行日記)

서계잡록 西溪雜錄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6.5×29cm



서계가 정하징에게 보낸 서간의 초본

계상간독 溪上簡牘
嘉宗年間, 帖, 紙本墨書, 25×32cm

今家間祭祀所定用者亦甚節約而有法矣此初出於和叔與尹子仁往復講定者其圖說具存吾喜而首行之不知和叔後来竟如何也今家間祭祀饌品固當以此

戒子孫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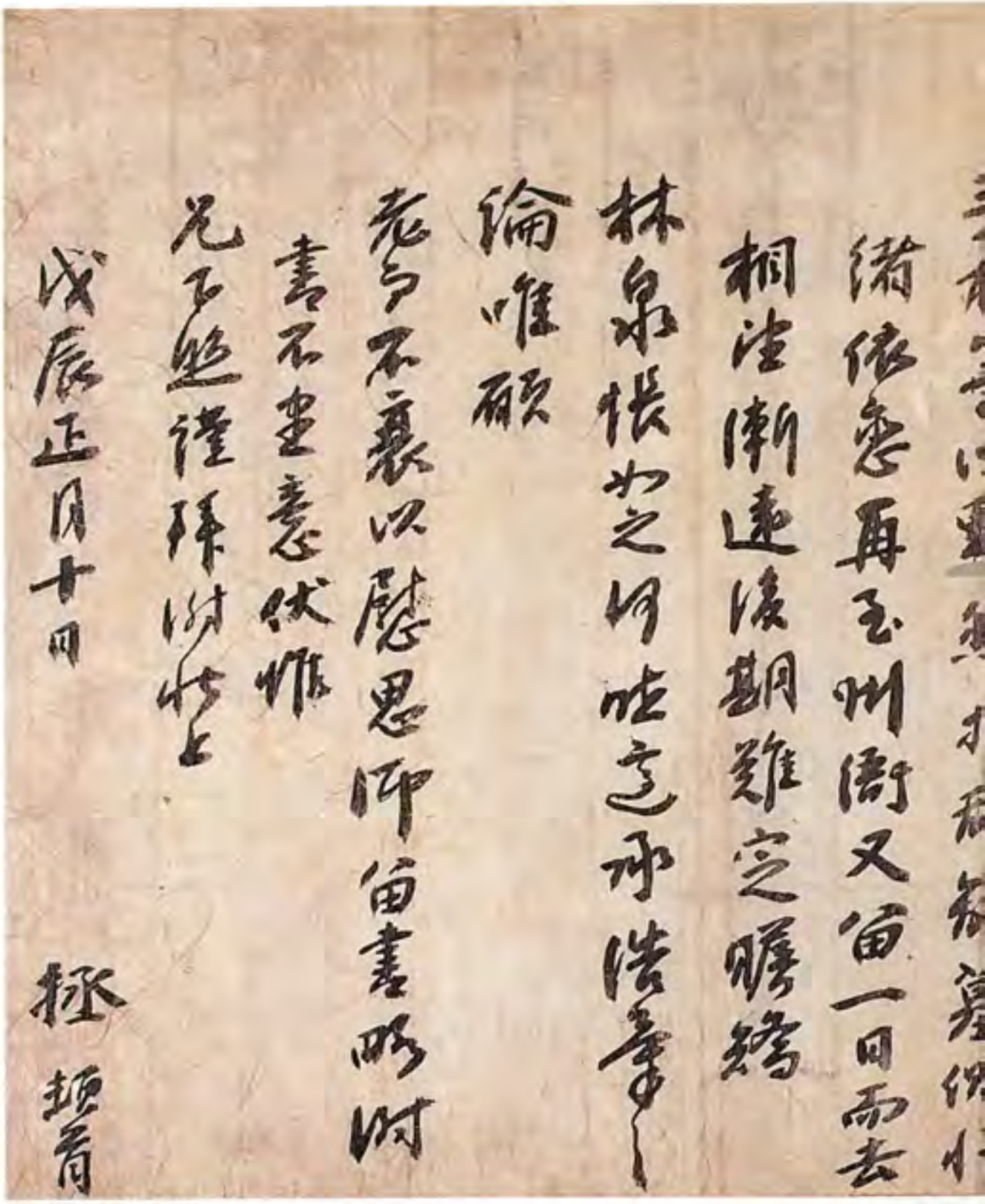
歲丙子十一月病幾殆踰月而少甦念方病時雖欲有言於子孫不可得乃略述此數語云

告一子二孫

吾餘年索矣不知死在何日宜及精神不大錯亂時舉平日心中所蓄略示汝曹俾知所從尚以筋力雖衰無甚疾痛謂時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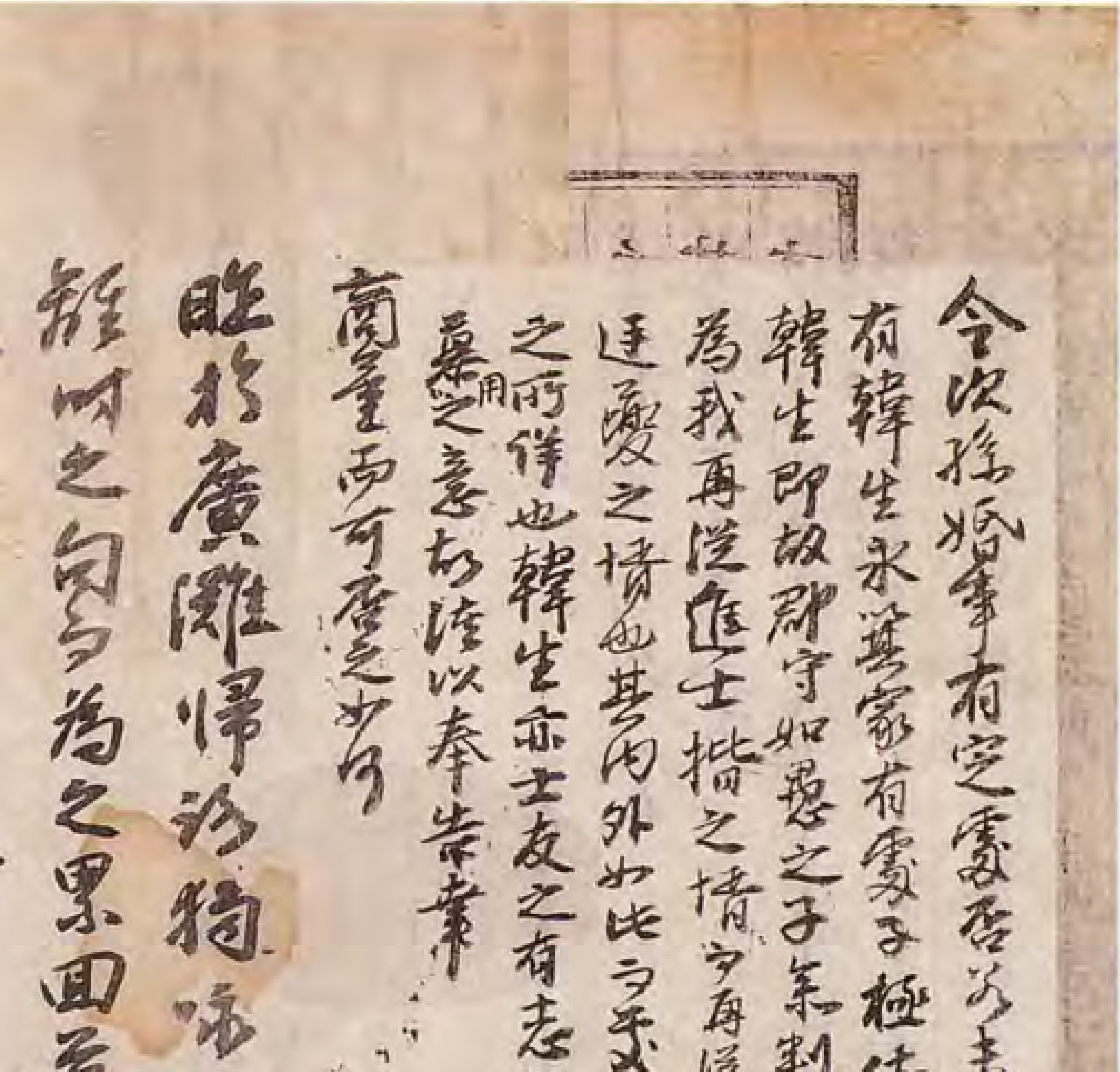
서계유계 西溪遺戒
1696(肅宗 22), 帖, 紙本墨書, 18.4×31.6cm

近於侈而誤被　朝恩名秩踰分或慮賓
客妄言而汝曹不能不動故使明知吾意
耳
為棺槨者必求大板費財多而未必精美
亦好侈之過也汝曹久知吾意取小板之
精者聯合而為之可也
合三藏則當為一大塚寧少卑無太高高
則土燥而流下莎草之枯皆由於此塚既
不得無大則雖稍卑亦不憂其易平莎草
不枯土不流下又則自無此患而修改無頻
數之事也
祭也饌品泰維言無過十五器不必如此



윤증이 서계에게 보낸 서간

■ 명옹간첩 明翁簡帖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3×48cm. 朴範緖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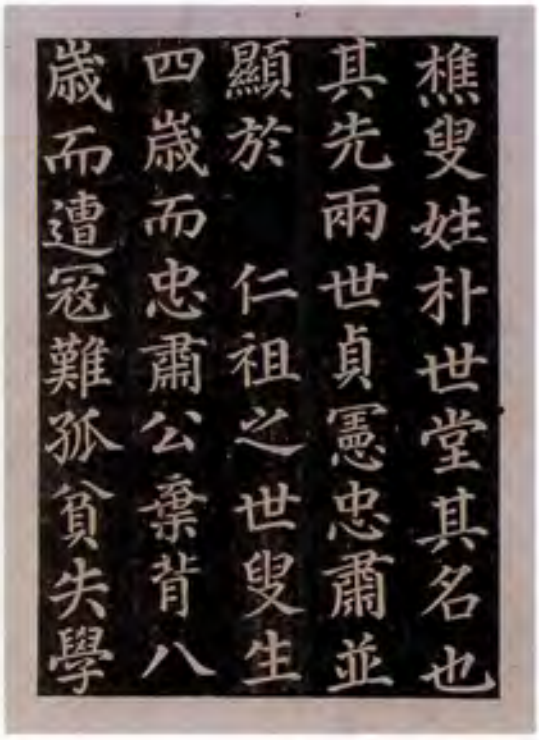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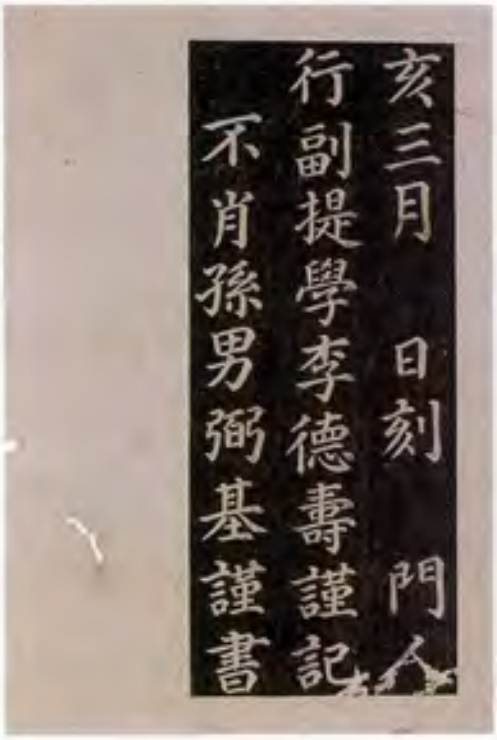
今次孫婚事有定處否若未也則此中
有韓生永𦏦家有處子極佳未知如何
韓生即故郡守如瑑之子榮判必遠之孫也
爲我再從姪士楷之婿而再從即孝榮判
逢慶之婿也其內外如此而其子之賢一家
之所稱也韓生亦士友之有志行者而亦有
慕用之意故陳以奉告耳
商量而可否之如何
睦於廣灘歸路犒此漢判
雖時之句當爲之果固有差及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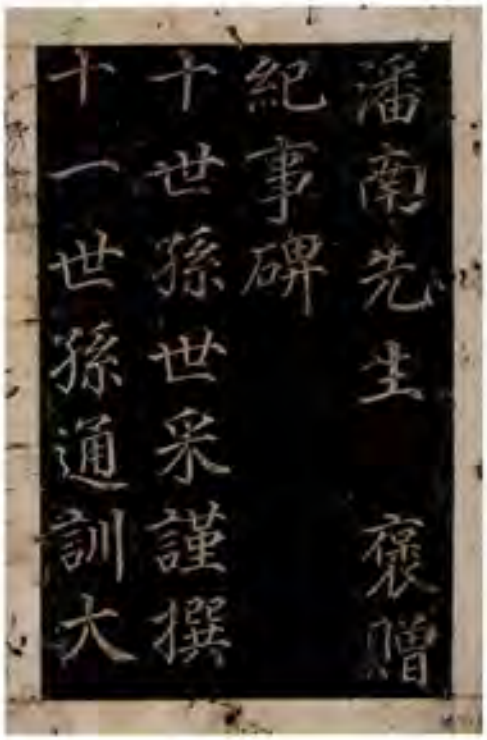
朝鮮崇政大
夫行吏曹判
錦山郡守朴
公弼基之墓

墓表印書

박세당묘표 朴世堂墓表
1731(英祖 7), 拓本, 34×21.2㎝


樵叟姓朴世堂其名也
其先兩世貞憲忠肅並
顯於 仁祖之世叟生
四歲而忠肅公棄背八
歲而遭寇難孤貧失學


亥三月 日刻 門人
行副提學李德壽謹記
不肖孫男弼基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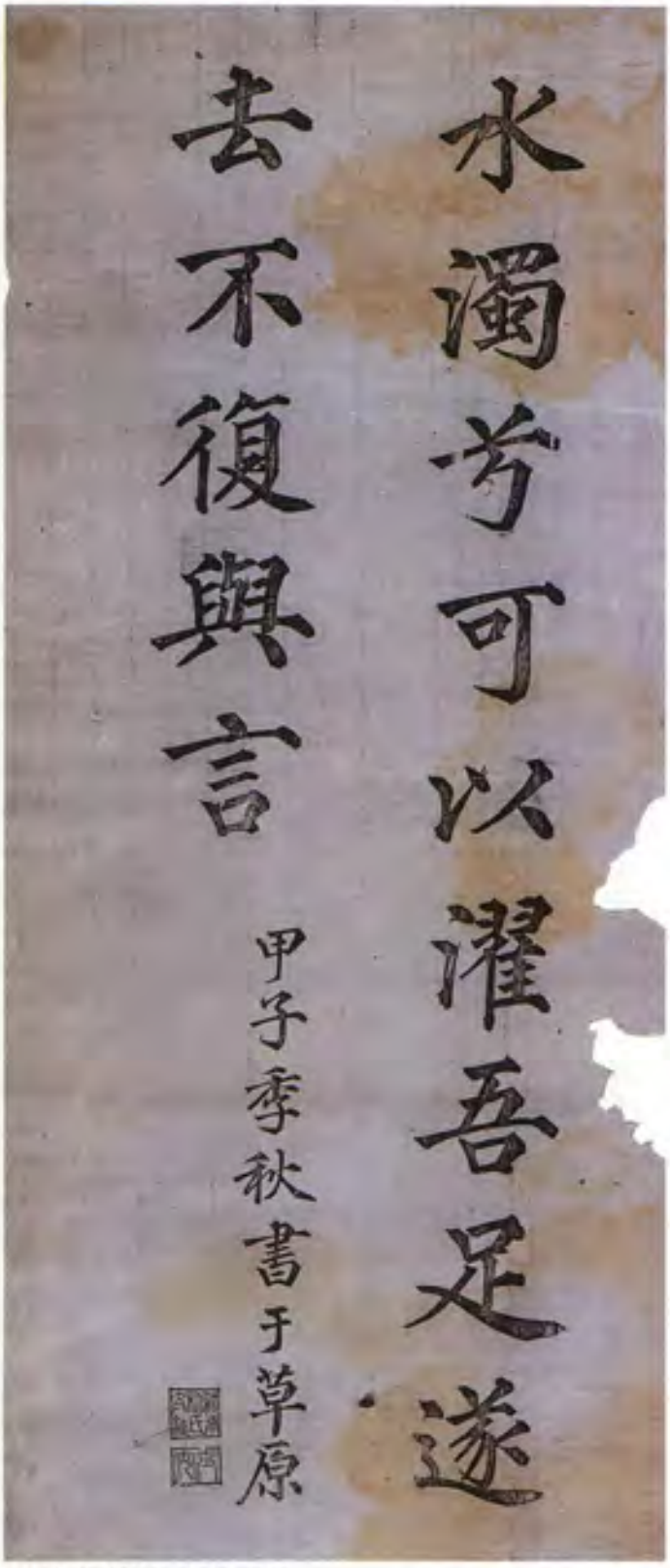

潘南先生　褒贈
紀事碑
十世孫世采謹撰
十一世孫通訓大

夫行藝文館撿閱
蕪春秋館記事官
泰維謹書我　聖
上七年春領中樞
府事宋時烈言近
者　命修高麗鄭
夢周廟錄其後士
林莫不聳動矣同

반남선생포증기사비　潘南先生褒贈紀事碑
1682(肅宗 8), 拓本帖, 21.5×35㎝

■ 야천신도비명 冶川神道碑銘
1590(宣祖 23), 拓本帖, 23.2×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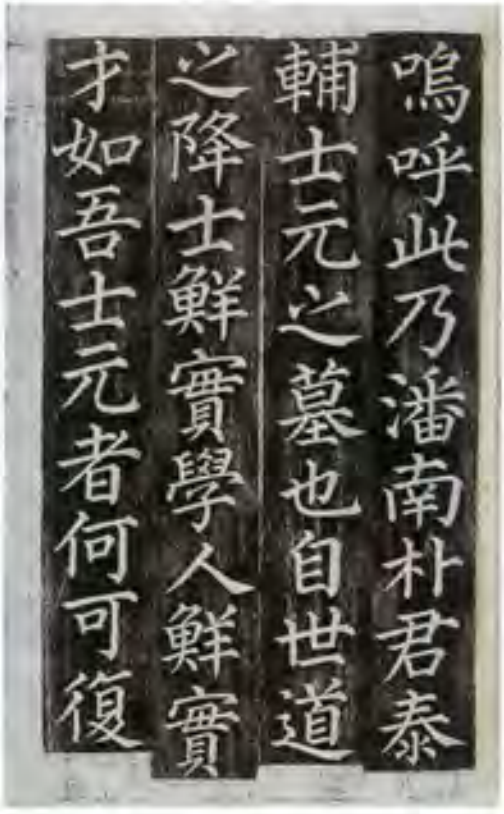
충숙공신도비 忠肅公神道碑
1712(肅宗 38), 拓本帖, 36×23cm



어부사(漁父辭)의 마지막 부분

보 박태유필적 朴泰維筆蹟
1684(肅宗 10), 木版, 91.2×32㎝

文烈公朴
泰輔之墓


嗚呼此乃潘南朴君泰
輔士元之墓也自世道
之降士鮮實學人鮮實
才如吾士元者何可復

박태보묘갈명 朴泰輔墓碣銘
1744(英祖 20), 拓本帖, 18×34.3cm

貧卯之原也弼謨今官
牧使男師允師求師欽
女為說書鄭純儉李宗
郁吳彦邦妻李德海進
士繼孑遠培師允男存
源女適柳東翰餘幼
今上三十年甲子正
月不肖男弼謨泣血謹

6-1

박필기묘갈 朴弼基墓碣
1769(英祖 45), 拓本帖(34面), 36.2×23.2㎝

公琢之

司僕寺

墓

主簿申

67-1

신탁·신석하묘갈명 申琢·申錫夏墓碣銘
1694(肅宗 20), 拓本帖, 35.8×24㎝

以至于今乃君之歿也豈惟不
能如君之義哭死慰生情缺禮
廢中宵念及慽然自傷今君弟
府使君見屬以君墓表顧不敢
以不能辭濡筆眩紙不自知其
洋之隕也嗚呼此豈足以報君
義之萬一也哉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
教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
撰官朴世堂 撰

동명 東銘
17世紀(成帖), 帖, 木版, 32.3×19㎝

대당중흥송 大唐中興頌
年代未詳, 拓本帖, 34.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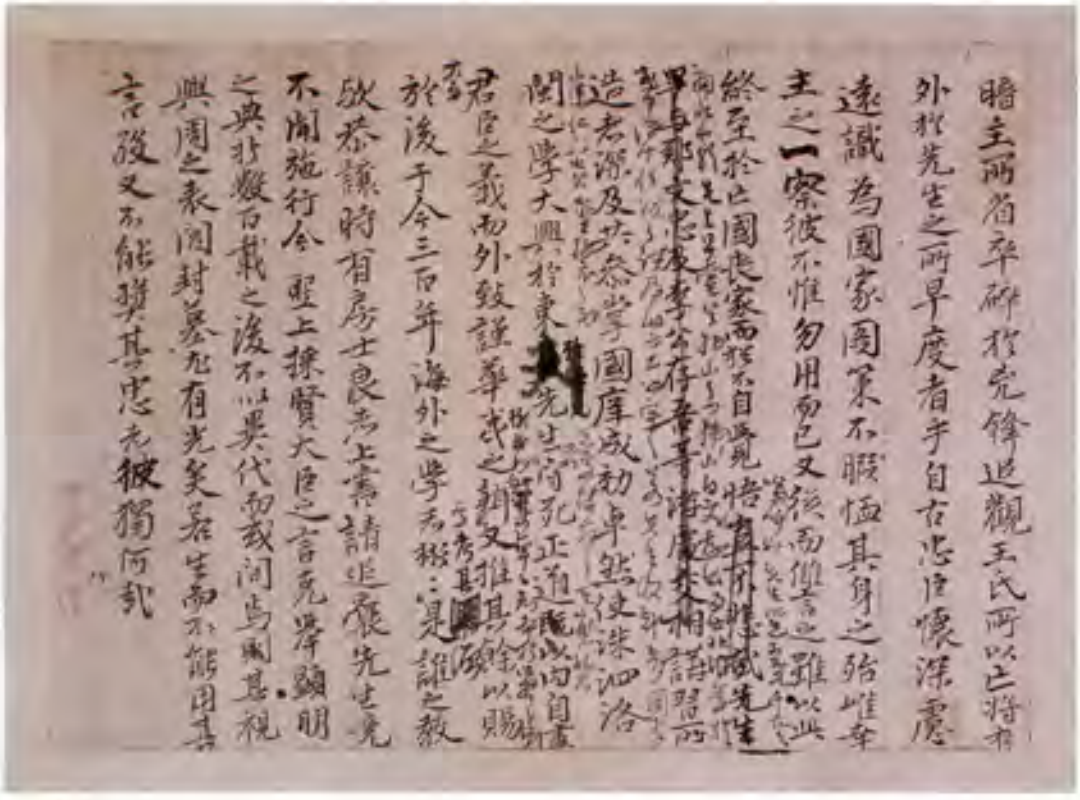
고금서법 古今書法
肅宗年間, 拓本, 36.6×19.3㎝

탄연필첩 坦然筆帖
1125(仁宗 3)~1130(仁宗 8), 拓本帖, 14×18㎝

嘗試論之自古高人隱君
子多矣然大抵孤臣孽子
窮僻不遇者而後能之又
始則甘心於山林終則降

71-3

박세당필첩[선적] 朴世堂筆帖 [先蹟]
顯宗~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4.7×22.3㎝



가장유묵 家藏遺墨
肅宗年間(1685年頃), 帖, 紙本墨書, 21.5×35cm

書懷示
堂后諸友
嘗笑鷄鶩爭虫食鄕門饕餮胡不
決焉逝兹憂以自表懷本抱痾
者十載獨立樊籠鬱林中空
欲巖下泉行止惟自適從行無
不至如何不自量妄投樊籠裏
拘縶閱牢檻況復疲畜走心東
一暫亂發狂欲大叫甘辭籠誘
我人言不可信行將褁冤去無
爲汲焉嗟
辛酉臘月下浣

73-⑤

謹步
項顧以詩一絮兼寓反招之意云
莫厭單瓢食莫辭鍾鼓饗君子任
流坎達人寄得喪進退隨所遇廊
廟等山樊昔君抱雅操幽棲在林
泉今名決巍科榮華倘來至稱
筆侍香案出入丹墀裏居然
得時駕詎爲俗狀走方借袞鉞
復綢披雲拜毋論用與捨所貴行
道信奚爲此拘拘反貽識者哂
辛酉除夕 申季晦
蘭臺

73-⑥

下番一簞食上番五鼎饗坐席[illegible][illegible]
況逢眞亂且[illegible]士有良史才養名[illegible]林
與求進欲避慕如渴不飲泉叙言明曉
聲始乃手:至務寬一瓶略[illegible]君[illegible]館裏
遞遞偃蹇色相望不避走初乃不知德
望我向人叫豈徒折腰耶抑愚把狂信如
鷄既禁籠先爾亦可哂
君望
無窮呼獨近書感懷諠弄疊而
歸之語莫無顏不可謂詩其紆觴
清勤修不可攀及
有山斧可樵有田耕可饗世故紛汝滿解
不已老去大行苟折軸況多鞭止其是宜
務內深刻智欲愚衆害有同心子官職

72-6

[illegible]求至心在東岡陂身寓金門裡簡訖
非素樂蓋難備諸走論一無除[illegible][illegible]小拜
言叫[illegible][illegible]從游斯語實相信願言[illegible]
箴心恐被傍人哂
清光日既侍黄封[illegible]賜饗微軀豈不榮
將不補[illegible]表冕身既失陰盡觀[illegible][illegible][illegible]
振振虚此生漫將眛洞衆覓我中無操
操[illegible]歷所至先宜透利關游志括泊裡
一滚未沉沒此心元寄走一副顏把捉[illegible]
奈挽[illegible]啐管管奉此寸聽此生相信惟有
同閑[illegible]樂閒應不哂
金生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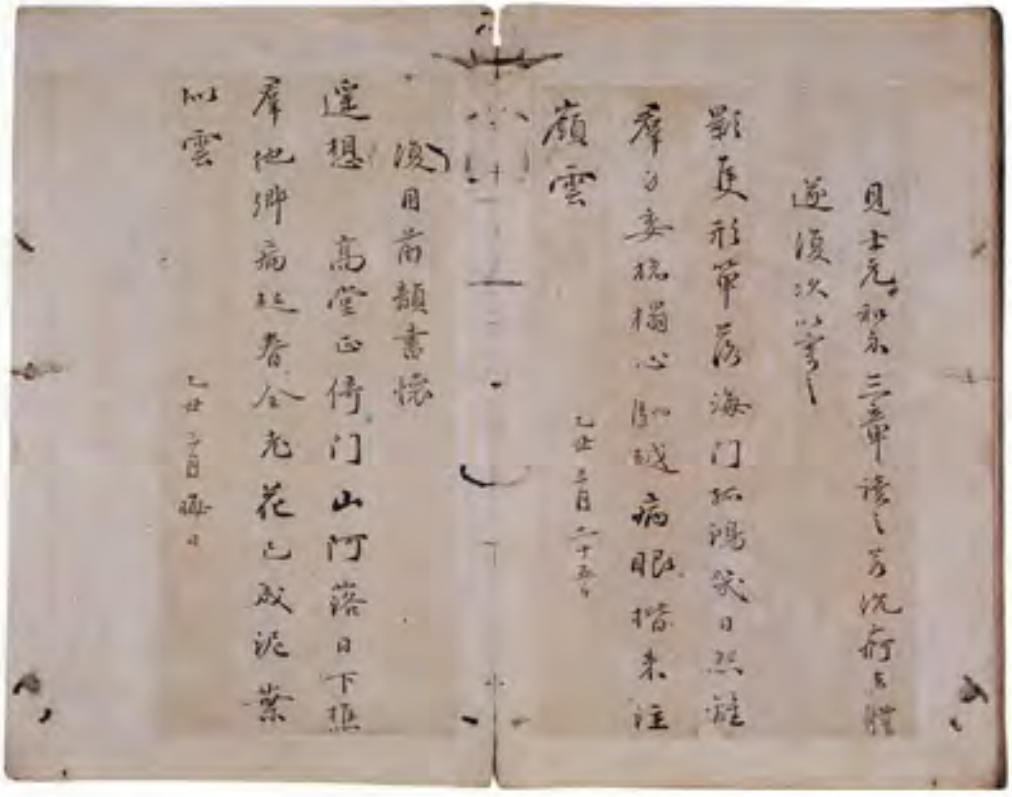
一酌流霞意已深 天恩況許
任冥沉身承雨露今宵最服
燭蓮業何處尋醉裏未已
憂國念醒來深激報 君恩欠
知衰賤非吾事輕槐半篇與鳥
襟

露滴碑移夜向深香銷寶鴨
篆烟沉 恩宣法酒行千斛方
在仙樽寄我尋太白未醒橋
上夢興生德感庭前心徹底猶
向彤墀拜丹楮至盡陸續襟

次韻敬酬
金允錫苑書懷之作
于仕亡何求不過肥甘
饗顛冥勢利塗良貴
日以喪所以古賢士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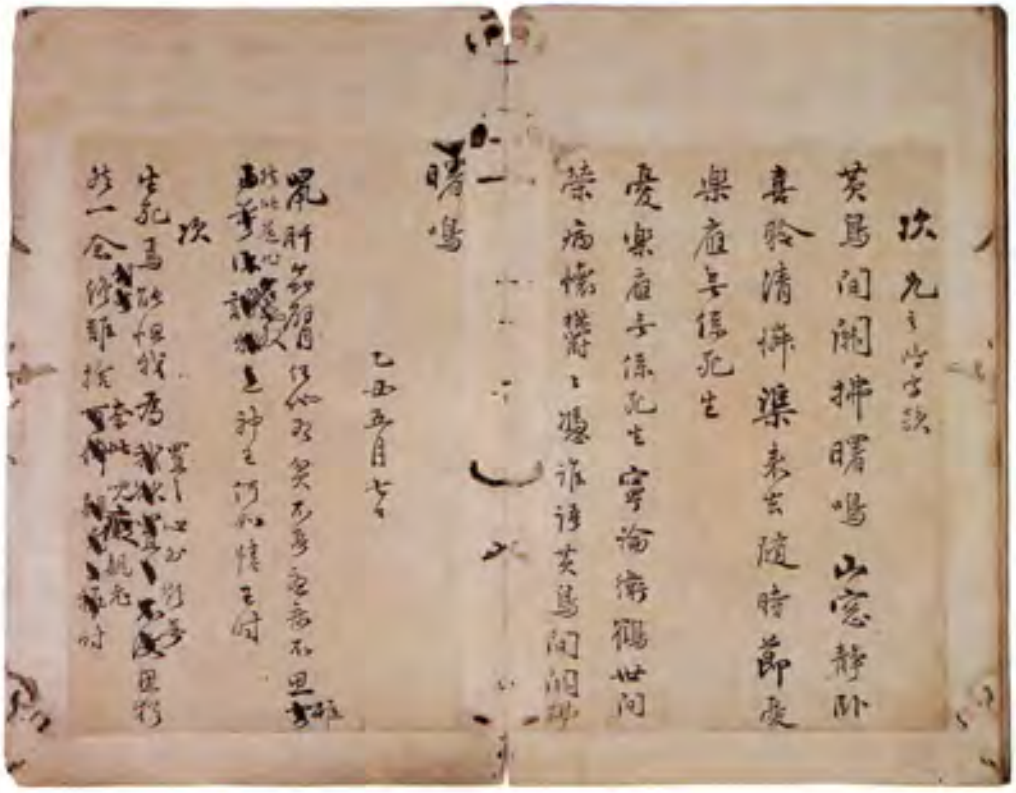
飢趁遊遠龍府窖歌
吝巖泉余本山野性
不期軒冕至如鳥羅網
驚欲奮轉投襄風波
一夢汩沒自制止走開口

六偶有見謂妄呼吁昨
得山中書當歸以
爲信得後今可去無爲
我友哂 守丘樊
壬戌月正元日 士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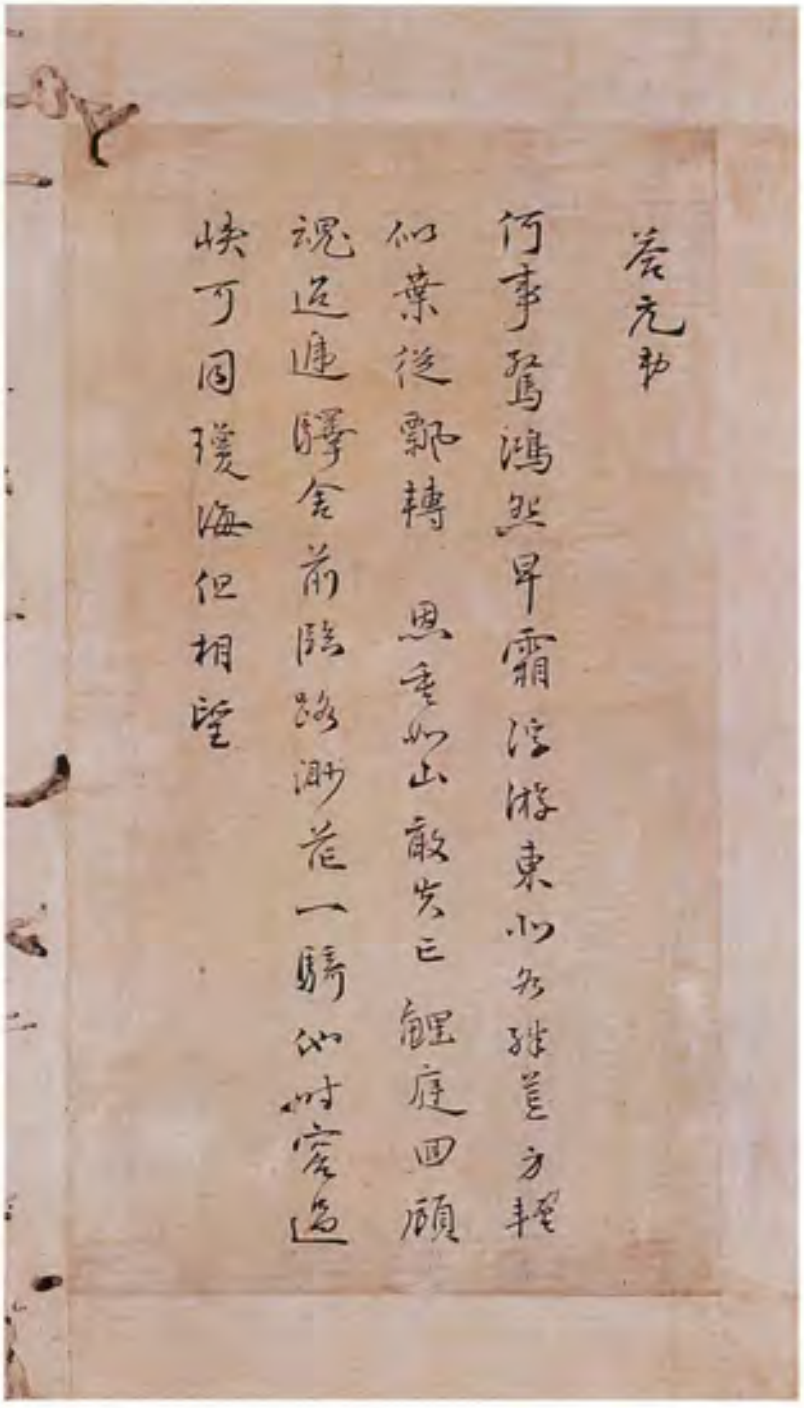
23-1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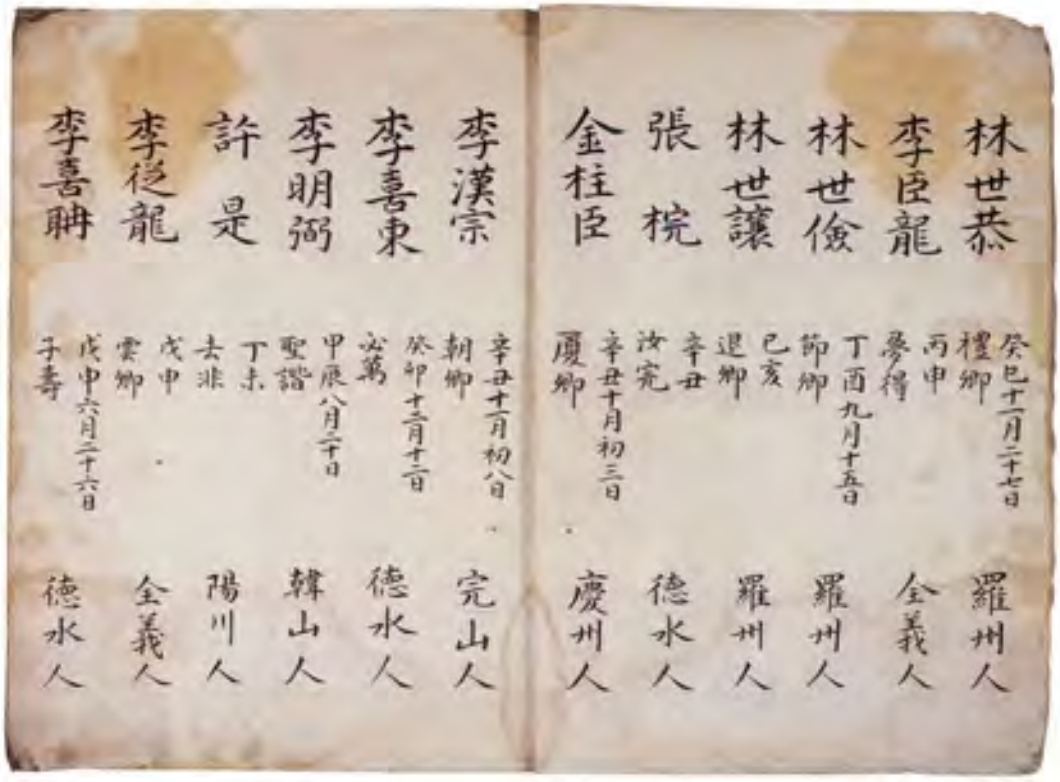
73-앞

73-뒤



世講契帖

世講契帖
己巳八月十九日
朴 潘南人
徐 甲戌 達城人
李 癸未 全義人


林世恭 癸巳十一月二十七日 禮卿 羅州人
李臣龍 丙申 夢得 全義人
林世儉 丁酉九月十五日 節卿 羅州人
林世讓 己亥 退卿 羅州人
張 梡 辛丑 汝完 德水人
金柱臣 辛丑十月初三日 厦卿 慶州人
李漢宗 辛丑十一月初八日 朝卿 完山人
李喜東 癸卯十二月十二日 必萬 德水人
李明弼 甲辰八月二十日 聖諧 韓山人
許 是 丁未 去非 陽川人
李從龍 戊申 雲卿 全義人
李喜聃 戊申六月二十六日 子壽 德水人

세강계첩 世講契帖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4.8×25.5㎝

五聯契座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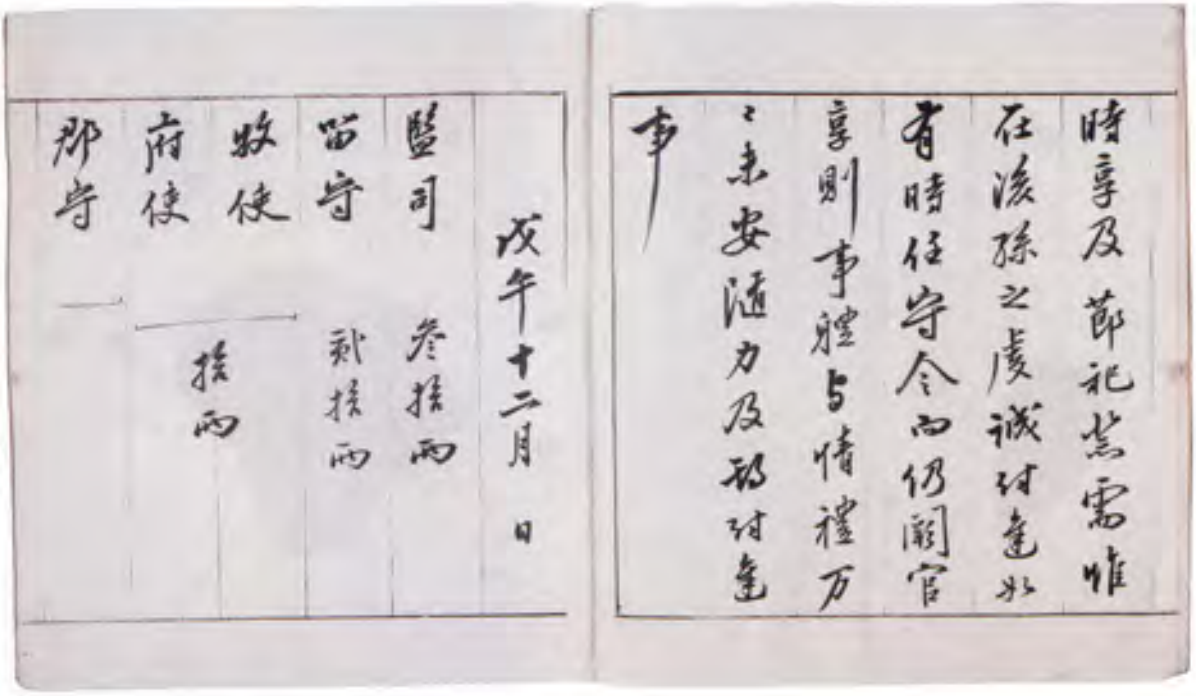
朴泰輔 士元 甲午 潘南人
李 濯 士皐 甲午 完山人
李 徽 仲五 甲午 星州人
李東麟 雲卿 甲午 月城人
李 徵 仲獻 丙申 星州人

李志尹 殷卿 戊戌 星山人

下契劉信雄
徐善文

오련계좌목 五聯契座目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3.5×30.5cm

영당첨배록 影堂瞻拜錄
1852(哲宗 3)-1864(高宗 1), 帖, 紙本墨書, 24×35cm



종중예목절목 宗中禮木節目
1738(영조 14), 帖, 紙本墨書, 23×26.2cm

己未十月初一日酊

初獻官 昇壽
亞獻官 宗謨
三獻官 宗瑾
執禮 齊敬
大祝 瑩壽
奉香 華壽
奉爐 齊政
奉爵 晉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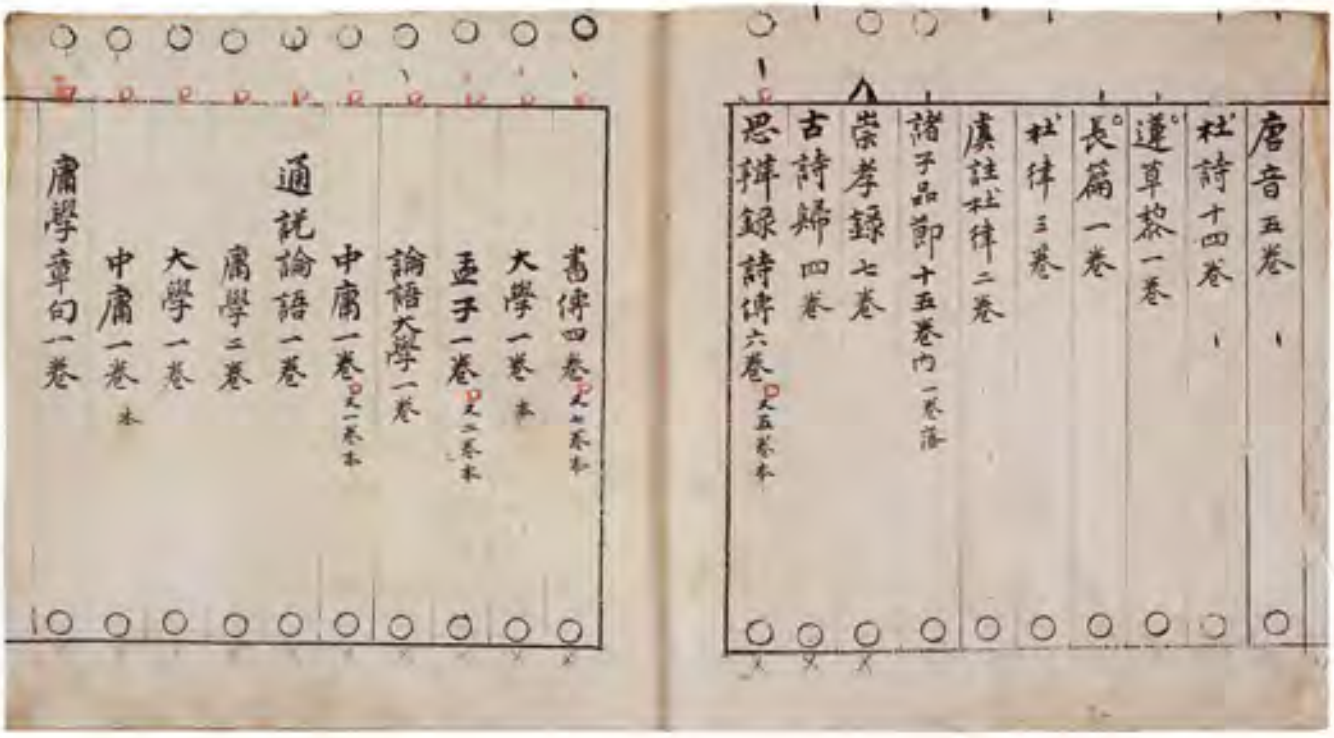
英爵

司尊

陳設

迎壽
希壽
蘭壽
胤壽
龍壽
平壽
桶壽
能壽
齊教

서계영당시향시거안 西溪影堂時享時擧案
1858(哲宗 9)-1882(高宗 19), 帖, 紙本墨書, 20.5×21.8cm



■ 장서목록 藏書目錄
1920年代, 成冊本, 紙本墨書, 27.8×27.5cm

대학언해 大學諺解
1695(肅宗 21), 活字本, 23.6×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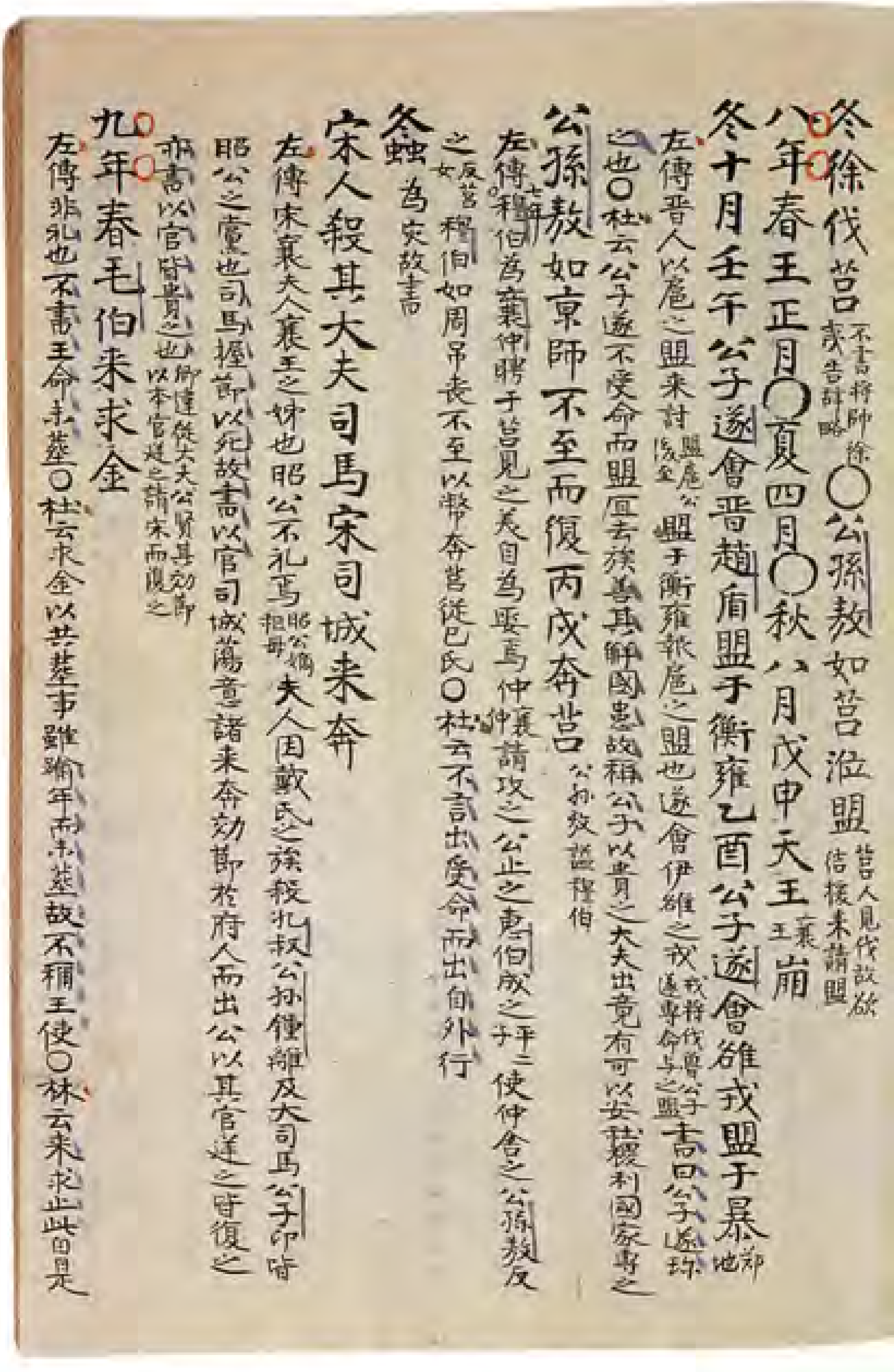
詩傳大全卷之九

小雅二大雅說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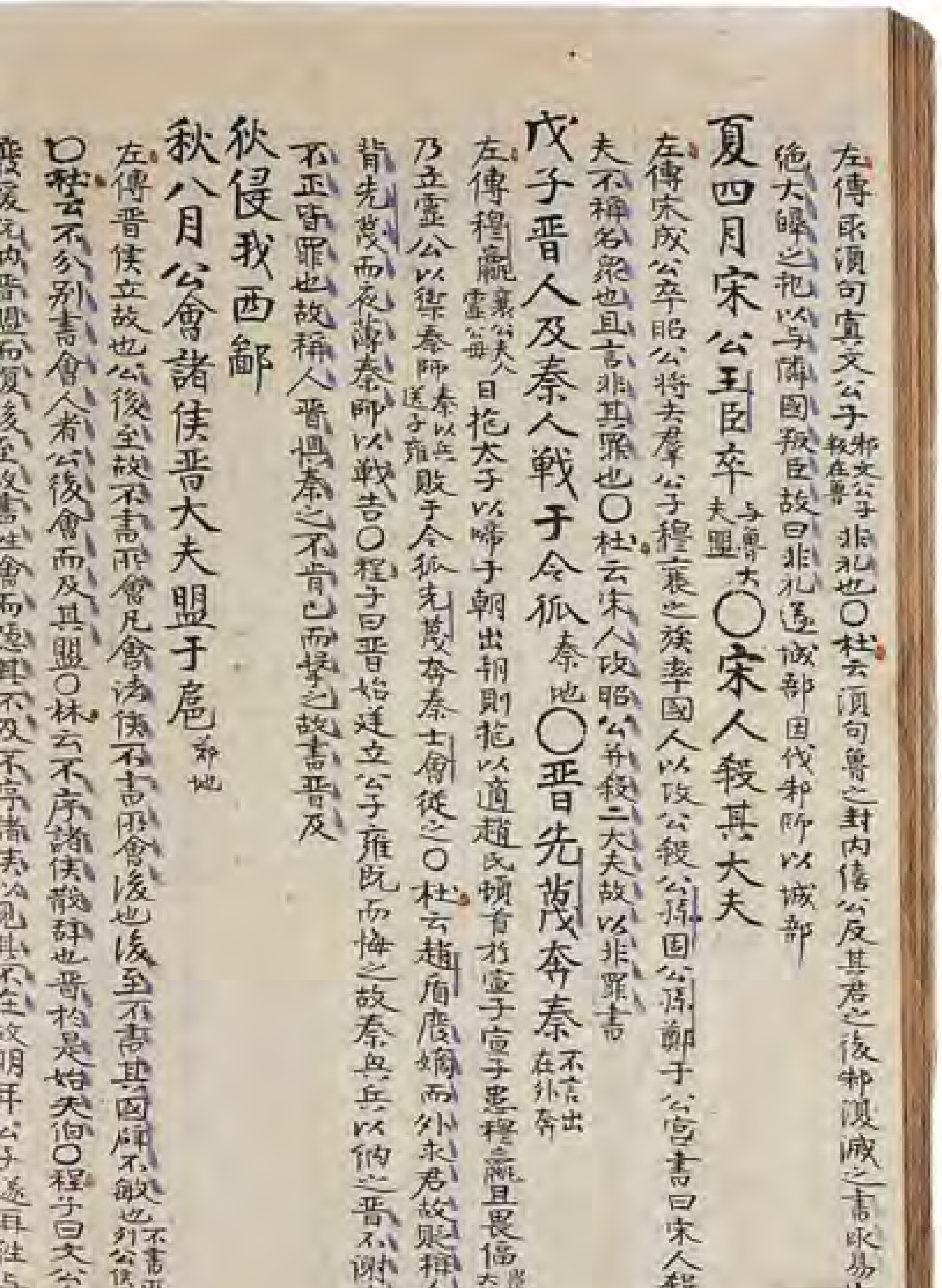
雅者正也正樂之歌也其篇本有大小之殊而先儒說又各有正變之別鄭氏曰小雅大雅周室居西都之時詩也小雅自鹿鳴至菁莪十六篇大雅自文王至卷阿十八篇為正經小雅六月大雅民勞之後皆謂之變雅以今考之正小雅燕饗之樂也華谷嚴氏曰正小雅皆中庸尊賢親親體羣臣柔遠人懷諸侯之事也正大雅會朝之樂受釐陳戒之辭也安成劉氏曰釐與禧同祭而受福也○慶源輔氏曰定正小雅為燕饗之樂歌正大雅為會朝之樂歌比之大序政有小大之說要為明切故或歡欣

西溪樵叟

시전대전 詩傳大全
肅宗年間, 木版本, 34.3×21.5㎝


冬徐伐莒 不書將帥徐戎告辭略 ○公孫敖如莒涖盟 莒人見伐故欲結援來請盟
八年春王正月○夏四月○秋八月戊申天王崩 襄王
冬十月壬午公子遂會晉趙盾盟于衡雍乙酉公子遂會雒戎盟于暴 鄭地
左傳晉人以扈之盟來討 盟扈公後至 盟于衡雍報扈之盟也遂會伊雒之戎 戎將伐魯公子遂專命與之盟 書曰公子遂珍之
也○杜云公子遂不受命而盟宜去族善其解國患故稱公子以貴之大夫出竟有可以安社稷利國家專之
公孫敖如京師不至而復丙戌奔莒 公孫敖謚穆伯
左傳穆伯為襄仲聘于莒見之美自為娶焉仲請攻之公止之惠伯成之平 使仲舍之公孫敖反
之女 反莒 穆伯如周弔喪不至以幣奔莒從己氏○杜云不言出受命而出自外行
螽 為災故書
宋人殺其大夫司馬宋司城來奔
左傳宋襄夫人襄王之姊也昭公不禮焉 昭公嫡祖母 夫人因戴氏之族殺孔叔公孫鍾離及大司馬公子卬皆
昭公之黨也司馬握節以死故書以官司城蕩意諸來奔效節於府人而出公以其官逆之皆復之
亦書以官皆貴之也 卿違從大夫公賢其效節以本官逆之請宋而復之
九年春毛伯來求金
左傳非禮也不書王命未葬○杜云求金以共葬事雖踰年而未葬故不稱王使○林云來求止此皆是

인경집해 麟經集解
英祖年間, 筆寫本, 29×21㎝



左傳取須句寘文公子 邾文公子叛在魯 非禮也○杜云須句魯之封內屬國僖公反其君之後邾復滅之書取易也 [illegible]

絶大皥之祀以與鄰國叛臣故曰非禮遂城郚因伐邾所以城郚

夏四月宋公王臣卒 與魯大夫盟 ○宋人殺其大夫

左傳宋成公卒昭公將去羣公子穆襄之族率國人以攻公殺公孫固公孫鄭于公宮書曰宋人殺其大

夫不稱名衆也且言非其罪也○杜云宋人攻昭公并殺二大夫故以非罪書

戊子晉人及秦人戰于令狐 秦地 ○晉先蔑奔秦 不言出在外奔

左傳穆嬴 襄公夫人靈公母 日抱太子以啼于朝出朝則抱以適趙氏頓首於宣子曰……宣子患穆嬴且畏偪 畏國人以大義來偪

乃立靈公以禦秦師 秦以兵送子雍 敗于令狐先蔑奔秦士會從之○杜云趙盾廢嫡而外求君故貶稱人晉諱

背先蔑而夜薄秦師以戰書○程子曰晉始逆立公子雍既而悔之故秦與兵以納之晉不謝秦之納

不正其罪也故稱人晉偶秦之不肯已而擊之故書晉及

秋侵我西鄙

秋八月公會諸侯晉大夫盟于扈 鄭地

左傳晉侯立故也公後至故不書所會凡會諸侯不書所會後也後至不書其國辟不敏也 不書所會不直列公侯及卿大夫

○杜云不分別書會人者公後會而及其盟○林云不序諸侯微辭也晉於是始失伯○程子曰文公怠政事多

廢厥既內晉盟而復後至及書其會而還雖不及不序者夫以見其不在故明年公子遂再往與晉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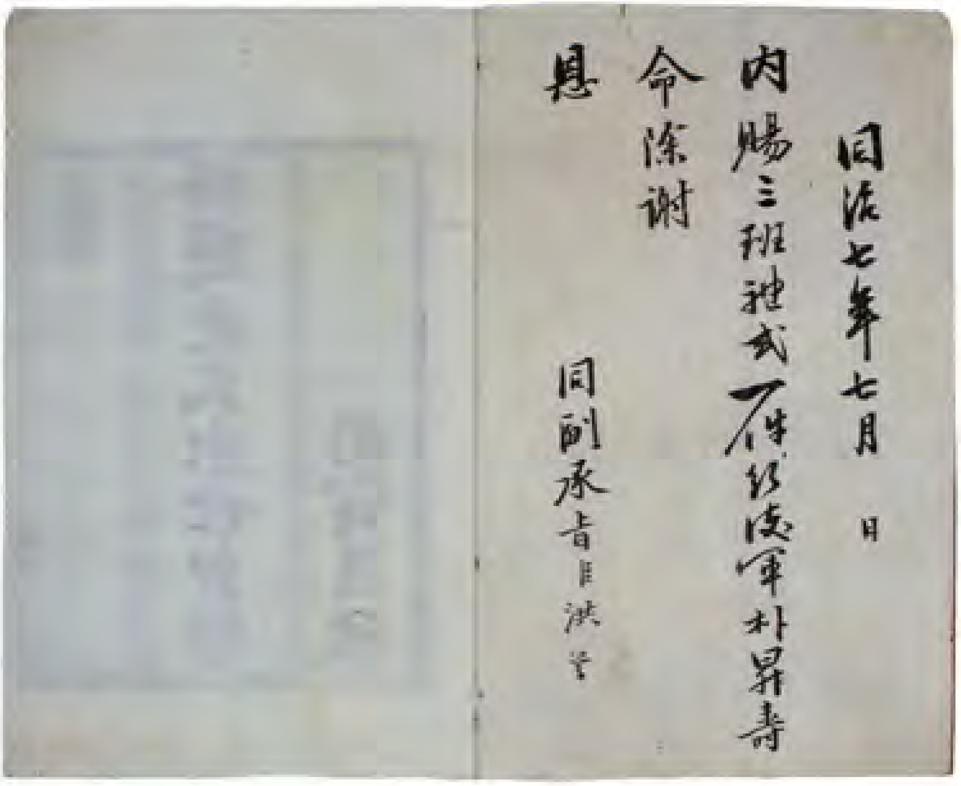
훈학집요 訓學輯要
英祖年間, 筆寫本, 29.3×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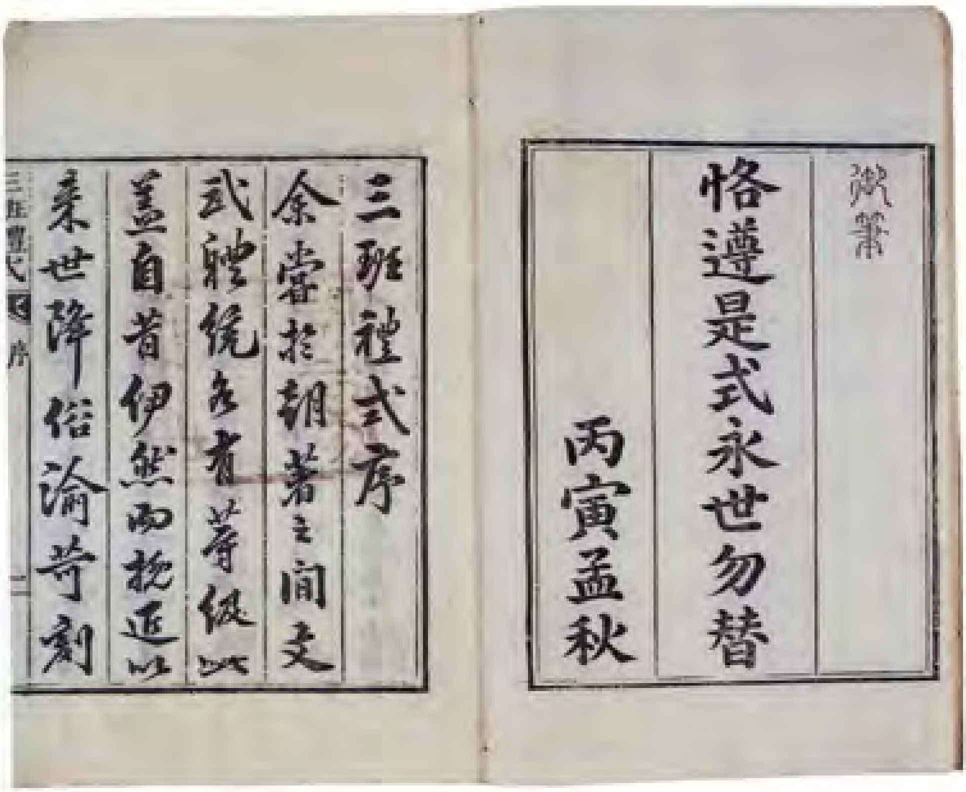
訓學輯要卷之一

求端 道體 此篇論性之體統蓋學

天道流行發育萬物其所以為造化者陰陽五行而已而
所謂陰陽五行者又必有是理而後有是氣及其生物則
又必因是氣之聚而後有是形故人物之生必得是理然
後有以為健順仁義禮智之性必得是氣然後有以為魂
魄五臟百骸之身周子所謂無極之真二五之精妙合而
凝者正謂是也 抱其氣之所從來則須說先有是理然理
又非別為一物即存乎是氣之中無是氣則理無掛搭處○就原頭實體上說則未分五行時只謂
之陰陽未分五性時只謂之健順及分而言之則陽為木
之陰為金水健為仁禮順為智義○理未嘗
離乎氣然豈無先後理無形氣便粗有查滓
然以其理而

만오유고 晩悟遺稿
英祖年間, 筆寫本, 30×20.4㎝





삼반예식 三班禮式

1868(高宗 5), 木版本, 30×20㎝

■ 반양이선생유고 潘陽二先生遺稿
1669(顯宗 10), 木版本, 32.9×20.8㎝

정재집 定齋集
英祖年間, 木版本, 32×20.8cm

■ 누산 편액 樓山 扁額
朝鮮後期. 38.2×90.3㎝

관어정 편액 觀魚亭 扁額
朝鮮後期, 39.3×95cm

정매당 편액 征邁堂 扁額
純祖年間, 38×80.5cm

여 백

서계 박세당의 생애와 사상

홍 정 덕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 2003년 8월의 문화인물 서계 박세당

문화공보부는 西溪 朴世堂을 2003년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올해는 그의 서거 3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혁과 진보를 꿈꾸었던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인 삶과 선비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계 박세당, 본관은 반남, 자는 계긍, 호는 서계잠수 혹은 서계초수, 시호는 문절, 개시는 문정. 효종 년 당시 남원부사였던 朴炡의 아들로 남원에서 태어나 숙종 년 (1703)에 의정부 장암동 石泉 幽居에서 75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저서에는 농서 「穡經」과 4서 3경의 주해서인 「思辨錄」, 「老子 道德經」을 주해한 「新註道德經」, 「莊子」를 주해한 「南華經註解刪補」를 남겼고 「詩」, 「疏箚錄」, 「上疏文」 등 많은 저작을 남겼다.

增廣文試에 장원하여 벼슬이 판서(判書)에 이르렀으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실망, 관직을 버리고 석천동 유거에 은거하여 야인(野人)의 청아한 산림(山林)으로 일관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고, 특히 그의 사상은 당시의 통념(通念)이었던 〈주자학(朱子學)〉을 거부한 채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여 그 개혁적 사유는 결국 실학 발생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서계의 가계

서계의 본관은 그 계조(繼祖)를 신라(新羅) 시조(始祖) 박혁거세(朴赫居世)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려(高麗) 중기 〈반남현(潘南縣)〉의 호장(戶長)이었던 〈박응주(朴應珠)〉를 문조(門祖)로 한다. 전라도 일우(一隅)의 호족이었던 반남 박씨 가문을 삼한(三韓)의 거족으로 일약 변모시킨 이가 바로 고려 후기의 대현(大賢)인 세칭 〈반남선생(潘南先生)〉 「박상충(朴尙衷)」이었다. 「박상충」은 「정몽주」 등 신진 사류(士類)와 동과(同科)하여 성리학(性理學)의 정착과 보급에 헌신하였고 고려를 둘러 싼 원(元), 명(明)의 외교 각축에서 친명적 입장을 견지(堅持)하며 친원파의 거두인 「이인임(李仁任)」 등과 대립하다가 마침내 유배를 당하여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 「박상충」은 〈목은(牧隱)〉「이색(李穡)」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정몽주」, 「전녹생」 등과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스승 〈목은〉의 딸과 결혼하여 고려 갑족(甲族)의 하나이던 〈한산(韓山) 이씨(李氏)〉 문중과의 혼맥까지도 열게 되니 이에 이르러 비로소 〈반남 박씨〉는 호남 일각의 호족의 자리를 떠나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고 나아가 문벌(門閥)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박상충」의 뒤를 이어 〈반남 박씨〉 문중을 크게 신흥한 사람이 바로 조선 개국기, 태종의 오른 팔이었던 「박은」이었다. 「박상충」의 아들인 그는 외숙 〈목은〉의 문하에서 수업하며 학업에 정진하여 불과 19세에 문과 장원의 영예를 차지한 재원이었다.

새 왕조 朝鮮 개국에 일익(一翼)을 담당한 그는 그 후 〈왕자의 난〉을 비롯한 조선 초기 정치

직 혼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태종을 보좌하여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는 한편 〈반남군(潘南君 - 改封 錦城君)〉에 봉해지고 마침내 우의정에 올라 〈반남 박씨〉를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게 된다.

「박상충」·「박은」 부자의 뒤를 이어 「朴矱」가 〈예조참판〉을, 그의 아들, 손자인 「朴重文」·「朴林宗」이 〈부사직〉과 〈상주목사〉를 각각 지내며 관로를 이어가더니 「朴光年」에 이르러 관직 인선의 실제를 상악하는 〈吏曹正郎〉에 미르고 다시 그 아들 〈아천(冶川)〉「朴紹」에 이르러 마침내 가문 중흥의 대기(大機)를 만나게 된다.

〈冶川〉「朴紹」는 유년에 부친을 여의고, 외가에서 양육되었으나 〈한훤당(寒暄堂)〉「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문명을 떨쳐 현량과(賢良科)에 추천되었고 다시 그 해 식년(式年) 문과에 장원하여 언론, 문한(文翰)을 지치면서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러나 사림(士林)과 훈구(勳舊) 세력의 대립하는 과정에서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를 탄핵하다가 미움에 걸려 실직하고 유배하여 끝내 32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비록 그는 실의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5 아들과 16 손자 대다수가 문과에 入格하여 실직(實職)에 나아가므로써 〈반남 박씨〉 가문은 그 가운(家運)을 크게 펼치게 된다. 특히 「응순(應順)」의 아들 「동언(東彦)」은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아버지로 선조(宣祖)의 국구(國舅)가 되니 이로서 〈반남〉 가문은 황실에도 혼맥도 가지게 된다.

「박소」는 비록 청운의 뜻을 다 펴지 못하고 과절하여 젊은 나이에 합천 화양리에 묻혔으나 오히려 「박상충」과 함께 가문의 현조(賢祖)로 부각되어 〈문강(文康)〉의 시호를 받아 〈반계서원(潘溪書院)〉에 모셔지고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아천대감〉「박소」의 5 아들 중 맏이인 「박응천(朴應川)」의 맏내이들 「박동선(朴東善)」은 대사헌(大司憲)을 지냈는 데, 이 「박동선」의 아들 「박정(朴炡)」이 바로 〈서계〉의 부친이 된다.

일별(一瞥)한 시조 「박상주」에서 〈서계〉에 이르는 〈반남 박씨〉 가계를 도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3. 서계의 성장기

서계의 조부 「박동선」은 〈좌참찬〉에 올랐고 후에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인신(人臣) 최대의 영예를 누리기는 하였으나 당시 집권세력인 〈대북파(大北派)〉가 추진하던 〈폐모론(廢母論)〉에는 끝까지 반대하며 광진(廣津) 별업(別業)에 은거하였는 데, 이와 같은 그의 자세는 그 아들 「박정」이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반정(反正)〉의 성공으로 「박정」은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고 〈금주군(錦州君)〉에 책봉되었으며 10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사패지(賜牌地)로 받게 되는 데, 이 때 받은 사패지가 바로 나중에 서계가 은거하는 장암동 석천계곡 일대, 현재의 〈서계고택〉 일대로 추정된다. 「박정」의 정치적 장래는 확실히 보장되는 듯 싶었으나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불행히도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에게 약속된 현달(顯達)과 관운(官運)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말았다.

서계는 아버지가 〈남원부사(南原府使)〉로 재직하던 1629년 (인조 7년) 8월 19일, 남원 관사에서 4형제의 막내아들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반정의 원훈인 〈정사공신〉으로 환로(宦路)가 보장되어 있었고 조부는 국가의 원로(元老)로 기로소에 들며 숭앙(崇仰)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조모는 왕실 청성군(靑城君)의 따님으로 그 혼맥이 왕실에 닿아 있는 왕성한 가운데 다시 얻은 막내아들은 집안에 즐거움을 겹쳐 쌓는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반남 일문의 이 경사는 오래 가지 않았다. 서계의 나이 불과 4세 되던 1632년(인조 10년), 아버지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더니 이어 1635년(인조 13)에는 큰형 「세규(世圭)」가 이어 사세(辭世)하는 비운을 당하였고 이어 그 다음 해에는 호란(胡亂)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병화(兵禍)에 휩싸이게 된다. 선생은 두 형과 함께 조모 「이부인」과 모친 「윤부인」을 모시고 원주, 청풍을 거쳐 안동에 피난하였고 9세에 이르러 호란이 진정된 후에도 그 다음 해까지 청주, 천안 등지를 떠돌아야 했었다.

이 같은 혼란으로 인해 자연히 선생의 학업은 입문부터 늦어 질 수밖에 없었고, 1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둘째 형 「세견(世堅)」의 슬하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연보(年譜)에 따르면 선생은 그 형을 마치 아버님처럼 섬겨 혹시라도 형께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종일이라도 뜰에 두 손을 마주하고 서서 형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루에 오르는 법이 없었으며 형이 내리는 징계는 조금도 원망 없이 달게 받았다고 한다.

서계 선생이 12세가 되던 인조 18년 숭품(崇品)으로 온 조정의 존경을 받던 할아버지 「박동선」이 별세하였다. 막내 손자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였던 이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서계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때때로 슬픔과 추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2]

서계가 본격적으로 학업에 정진하게 된 것은 13세 무렵 고모부인 교관 정사무(鄭思武)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서계 자신도 학문의 세계에 흠뻑 빠져 독서에 열중하였거니와 이것도

1) 동신 (대구부사 역임, 묘소:묘산 화양리), 응순 (1526~1580, 왕인문집, 딸이 선조임금의 비(妃) 懿仁王后임), 응남 (1527~1572, 대사헌·좌승지 역임, 명의장 …과 함께 선조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기여함), 응복 (1530~1598, 대사간·공조참판, 묘소:경기 양주), 동선 (1562~1640, 대사헌·좌참찬), 동열 (1564~1622, 대사성, 폐모론에 반대함, 이항복과 친했음), 동량 (1569~1635, 호조판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서계집」(연보)

나이 어린 그의 문장 해석이 남다르게 독창적인 것을 보고 더욱 경이롭게 여겼으며 그의 학업이 장차 대성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고모부의 훈도 아래 학문의 지경을 넓혀가던 중 17세에 이르러 서계는 공실 현령 「남일성(南一星)」의 따님 〈의령 남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는 물론 현숙한 부인을 얻어 가정을 꾸미는 모처럼의 경사이기도 했으려니와 동시에 처남 〈약천대감(藥泉大監)〉 「남구만(南九萬)」, 처숙 「남이성(南二星)」 등 평생을 동반하는 학문과 정치의 동지를 얻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된다. 집안이 가난하여 입사(入仕)하기까지의 10여 년을 정능(貞陵) 처가에서 기거하는 중에도 서계는 처숙, 처남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며 밤을 새우기가 일수였는데, 만년에 이르러 서계는 그 때를 즐겁게 추억하며 치기 어린 논리로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 강변(强辯)하던 젊음의 한 때를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처가에 머무르며 학업에 열중하던 시절 어머니 윤씨는 양주 사촌(沙村) 중형(仲兄) 댁에 계셨는데 서계는 어머님을 뵈오러 서울 정능 처가와 사촌의 중형 댁을 왕래하며 그 어간 양주 〈도봉서원(道峯書院)〉에 들러 자주 독서하였다. 후일 노, 소론이 갈리며 도봉서원은 양주 〈석실서원(石室書院)〉과 함께 노론의 근거지가 되어 서계는 출입이 금지되었고, 서계 또한 그 도봉서원이 빤히 보이는 건너 편 장암동에 은거하였으나 도봉을 마주 보며 시를 짓는 그의 흉중에는 추억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였으리라.

스무 살이 되던 무렵 서계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판여(板輿)에 모시고 중형의 임소인 흡곡에 다녀왔고, 더불어 이 해에 장자 「태유」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으니 비록 처가살이였으나마 청운의 꿈을 품고 학업에 열중하던 이 때가 아마도 서계의 일생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나 흡곡에 다녀온 그 다음해에 어머니 윤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 다음 해에 다시 할머니 이씨와 셋째 형 「세후」가 연이어 돌아가시는 상고(喪故)를 당했다.

선생은 이 때 슬픔에 못 이겨 애통하며 거의 음식을 취하지 않았고 마침내 비위(脾胃)를 상하게 되어 평생의 고질(痼疾)이 되고 말았다.

23세 되던 해 서계는 유생(儒生) 절시(節試)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시관의 실수로 3등으로 밀렸다.[8]

아울러 중형의 등과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그는 이후 대과에 응시하지 않고 모름지기 독서에만 열중하였다. 26세에 이르러 차남 태보를 얻었고, 형의 청풍(淸風) 임소(任所)에 들러 뱃놀이를 즐기며 〈동유록(東遊錄)〉을 짓기도 하였으나 아직은 여전히 지루하게 계속되는 준비 기간이었고 그는 그저 후일을 기다리며 묵묵히 붓끝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었다.

4. 강직한 관리 박세당

서계가 마침내 대과에 입격한 것은 그의 나이 32세 되던 1660년(현종 원년)이었다. 이 해 가을에 시행된 식년(式年) 사마시(司馬試) 회시(會試)를 2등으로 통과한 그는, 이어 증광(增廣) 문과(文科)에서 장원(壯元)을 차지하였다. 오랜 탁마(琢磨)가 드디어 빛을 발하며 탐스런 열매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장원 입격자를 우대하는 관례에 따라 6품관인 〈성균전적(成均典籍)〉에 제수 되었다.

마침내 관로에 나서게 되었고 이후로 10여 년

이 넘는 벼슬살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신진 기예(技藝)로서 그의 환로(宦路)는 그러나 그의 강직한 성품과 굽힐 줄 모르는 소신, 그리고 관리로서의 강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찬사(讚辭)와 폄하(貶下)가 동반(同伴)하는 험로(險路)의 일관(一貫)이었다.

그는 예조와 병조(兵曹)의 좌랑(佐郞),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등을 거치며 날카롭고 반듯한 언론을 펼쳤다. 그는 정언 재직시 공조판서(工曹判書) 「김좌명(金佐明)」과 〈대사성(大司成)〉 「이은상(李殷相)」의 인선이 부당하다고 공박(攻駁)하였다. 「김좌명」은 현종(顯宗)의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의 아우였고, 「이은상」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손자로 모두다 손꼽는 당대의 명문이었으니 言官으로서의 서계의 강직함이 현저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신임 판서 김좌명(金佐明)은 일찍부터 재망(才望)이 있었고 오래도록 청현직(淸顯職)을 역임하였으니 품계(品階)만 잘 맞는다면 이 직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래에서 선발해 놓으라는 명에 대해 사람들 모두가 기대하며 조정의 행동을 지켜보면서도 그 중에는 경솔하게 사태를 짐작하고는 미리서부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제목(除目)이 일단 나오고 보니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과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근에서 듣고는 어찌 「아래에서는 위의 뜻을 맞추는 방향으로 천거했고 위에서도 치우치게 사정(私情)을 두어 임명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사성의 임무야말로 지극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학식이 있고 통명하며 단아하고 정중한 인물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은상(李殷相)은 문재(文才)는 있지만 선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인물입니다.[4]

그러나 그의 강강(强剛)한 간쟁(諫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으로 있던 1663(현종 3)년에는 공개적으로 인사를 청탁한 좌의정 「원두표(元斗杓)」를 탄핵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도승지 「임의백(任義伯)」을 탄핵하는 등 그의 언로(言路)에는 도대체 거침이 없었다. 더구나 임의백을 탄핵하는 소차(疏箚)에는 그의 인물됨을 평함에 있어 극언(極言)에 가까운 언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그는 출세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날마다 요로(要路)에 달려가 끝내 현달하게 되었으니 그 흠을 숨기기가 어렵고, 그가 역임한 것을 보아도 실제 능력은 없으면서 오로지 풍채(風采) 일변도로 흐르고 괴이하고 허망한 짓을 행한으므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후하고 순박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까. 후설(喉舌)의 장관은 본래 준임(峻任)의 대상인데, 임의백처럼 남에게 천시를 당하고 비루로 지목받은 자에게 어떻게 함부로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5]

이는 물론 서계의 강직한 성품에도 기인(起因)하거니와 동시에 자신의 맡은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국왕의 잦은 온천(溫泉) 행차와 함께 국가 재정 절손의 주인(主因)이 왕실의 시

3) 사관이 글자 하나를 법식에 어긋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한다
4) 현종 3년 2월 27일 (신미)
5) 현종 4년 3월 17일 (을유)

치에 있다고 하며 국왕의 반성과 철용(節用)을 촉구하는 감언(敢言) 조차도 서슴지 않았다.

서계의 이와 같은 소신은 사류(士類)의 칭송을 받았으나 동시에 당론(黨論)을 가리지 않고 조정(朝廷) 안팎에 무수한 적을 만드는 결과도 함께 초래하였다.

> 신은 세당의 아버 박정(朴炡)과 악관(嶽冠) 때부터 교분을 맺고 서로 의맹(義盟)으로 약속했었으니, 세당이야말로 신의 옛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을 보는 것 역시 어찌 평범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과장해서 논하는 풍조가 일어나 직질(職秩)이 높은 사람들을 잔뜩 잡아매기를 좋아하면서 이것을 고상한 취미로 여기는가 하면, 근거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풍채를 드날리면서 이것으로 명예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당이 이를 부러워한 나머지 큰소리 치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세도(世道)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정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6]

원두표가 올린 이 차자(劄子)의 갈구(一句)는 서계를 향한 감정이 상도(常道)를 벗어나 원혐(怨嫌)으로 치닫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서계의 임의백 탄핵은 찬반을 유발(誘發)하며 결국 치열한 논전(論戰)으로 이어지게 되는 데 집의(執義) 「김만기(金萬基)」가 서계를 비판하며 사직을 청하자 지평(持平) 「이단하(李端夏)」의 처치(處置)로 결국 서계가 체직(遞職)되었는데, 다시 정언(正言) 「원만리(元萬里)」가 서계를 옹호하며 체직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다시 정언(正言) 「송창(宋昌)」이 서계를 탄핵하는 등 정론(經論)이 분분해졌다. 이 사건은 결국 탄핵의 원론인 임의백은 물론 그를 둘러싸고 서계를 비판했던 김만기, 이단하, 윤개 등이 모두 체직되는 것으로 결말지어졌으나 결국 서인을 이끌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말았다.

청의 사신을 신영(親迎)하는 모화관(慕華館) 행행(行幸)에 배행(陪行)하게 된 교리(校理) 「김만균(金萬均)」이 이의 사직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서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으로 강화도 함락 당시 정명에 의하여 조모 「연산 서씨」를 잃었는데, 이처럼 호란에 가족을 잃은 경우 일시적으로 사임하여 정사(淸使)를 영접하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허락하는 관례가 있어 이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직 청원은 사의(私議)를 공의(公議)에 앞세운 것이라 하여 도승지(都承旨) 「서필원(徐必遠)」의 탄핵을 받으며 곧바로 조정을 찬반 양론으로 달아오르게 하였다.

사단(事端)은 김만균의 사정(私請)에서 나왔지만 우암의 정론(政論)인 〈春秋大義〉에 따른 명분론(名分論)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진 사람들의 현실론이 상충(相衝)하면서 결국은 〈준론(峻論)〉, 〈완론(緩論)〉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계는 「君辱臣死」의 입장에서 서필원을 옹호하였고 드디어는 우암으로부터 「三鄭」의 하나로 규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사건은 서계와 우암의 갈등이 표면화된 구체적인 사례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은 훨씬 이전부터 내면(內憑)하며 비등점(沸騰點)을 향하여 끓어오르고 있었다. 실록은 이 갈등이 서계의 입사 초 그를 〈이조진랑(吏曹銓郎)〉에 추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다.

> 박세당은 젊었을 때 일찍이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의 집 잔치에 참석하여 길어나 종을 추기까지 하였으므로 사론(士論)이 이를 더럽게 여겨 전랑(銓郎) 추천에 서

> 지되었으며, 뒤에 비록 임명되었으나 공론이 끝내 불쾌하게 여겼다. 박세당은 선왕 추천을 저지한 의논이 송시열(宋時烈)에게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여 원한이 매우 깊어서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대로 조정에 나오지 아니하였다.[7]

이 기록의 객관성 여부는 차치(且置)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적어도 그의 관직 사퇴와 은거의 배후에 이 연원 깊은 갈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물론 그는 부교리(副校理), 지평(持平), 함경북도 병마 평사(兵馬評事), 황해도 암행어사(暗行御史) 등을 역임하며 여전히 강개(慷慨)한 소신의 관로를 이어 갔지만 결국 그의 나이 40세 되던 현종 9년 고의로 월과(月課)를 3차례나 걸러 이를 핑계로 마침내 벼슬에서 떠난다.

양덕방(陽德坊)에 새 집을 마련하여 비로소 영철이 상부한 신접살림을 차린 지 불과 6개월만에 그는 첫 부인 남씨와 사별하여 그 조강지처(糟糠之妻)를 장암동 수락산록에 묻고 난지 이제 18개월. 그는 실망스러운 정치 현장에서의 갈등과 개인적인 심사를 정계를 은퇴하는 것으로 치료하려 하였고, 결국 산림에 은퇴하여 친히 농포(農圃)를 경영하는 야인(野人)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 재주와 힘이 미약하여 세상에 무엇인가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세상 또한 나날이 퇴락하여져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졌다.[8]

사대부의 본분인 위민(爲民)을 실천하고자 매어 있던 한 관리가 좌절하여 전야(田野)로 돌아가며 남긴 은퇴의 변이었다.

5. 장암동 은거와 색경의 편찬

1) 장암동 은거

서계는 본래 번요(煩擾)한 것을 싫어하는 성품이었다.

연보에는 그가 환로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하고 한가로운 전원의 삶을 즐겨 새로 마련한 양덕방 신거(新居)에서는 친히 오이를 가꾸고 숲을 거닐며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를 거문고 소리보다 낫게 여겼다고 하였다.[9]

이제 서계는 자신의 삶의 양식 자체를 전환하여 일시적인 한거(閑居) 취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원에의 귀거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 그러면 그대는 장차 이 책을 지어 무엇에 쓰려는가? 군자가 아닌 야인이 되려는가?
>
> 이르기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야인이 되고자 한다 무릇 선비가 조정에 나아가 그 도를 행하면 이를 일러 군자라 하고 물러 나와 들을 경작하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밥 먹으면 이를 일러 야인이라 하는데 나는 이미 들을 경작하고 있으니 야인 되기를 구하는 것 외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벼슬하면서 나의 도가 이 시대에 별로 쓸모가 없음을 알아 물러나고 싶었고 또한

6) 현종 3년 7월 20일 (신묘)
7) 숙종 29년 4월 28일 (계묘)
8) 西溪自撰墓表
自見才力鈍劣不足有爲於世 世又日趨 [illegible]
9) 서계집 연보 병오

내 힘으로 (물을 경작하여) 밥 먹어 온지가 이미 오래되었다.[illegible]

그리고 그는 은퇴한 이후 75세로 사세(辭世)할 때까지 각종 현관(顯官)의 자리로 부르는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고 실림에 유거하여, 평생에 걸치는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은거 기간 중에도 물론 잠시 출사(出仕)하였던 적이 있기는 하다.

〈통진현감〉으로 1년여 재직하였고, 은퇴 직후인 1668년 성절(聖節) 사행(私行)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종사(從事)한 적이 있으며, 영릉(寧陵) 천장(遷葬) 임무를 맡아 병으로 체직 될 때까지 잠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가 잠시나마 은거를 풀고 다시 현지에 나갔던 〈통진현감(通津縣監)〉의 경우, 인보는 "외적(外職)과 내적(內職)이 현저히 달랐던 것이 출사의 이유"라고 설명한다.

때 마침 당지(當地)에는 기근(饑饉)이 들었고 서계는 전력을 다하여 구휼(救恤)에 힘썼는데 퍼둠이 유민(流民)들조차 구별하지 않고 진휼(賑恤)하였으며 강도(江都)의 곡식을 빌리는 한편 자신의 늘료마저 의연(義捐)하여 구제하니 통진 일경(一境)에는 마침내 아사자(餓死者)가 한 명도 없었다. 문한직으로는 다 이루지 못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외적을 통하여 구현(具現)하려는 것이 굳이 은거를 풀고 한직에 다시 나아간 까닭임을 쉽게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록 규모는 작으나마 통진 한 고을의 선치(善治) 수령(守令)이 되는 것이 아마도 그가 말한 "有爲於世"의 한 방법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장관으로 종사하였던 연행(燕行)은 가황의 실리적, 실학적 사고를 더 폭 넓고 깊이 있게 배양(培養)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중국 사행의 견문(見聞)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매번 처음의 사치가 이미 극에 달하였으니,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전쟁도 없고 땅을 남쪽 끝까지 얻어서 물화(物貨)가 집중되어 편안히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조(正朝) 때에 그들을 보니 이후 하급 관리라도 모두 특초구를 입었고, 사용하는 기물은 화려하여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년하고 검소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망할 조짐이 아닙니다.[illegible]

운운 한 것은 이미 한 고비를 넘어서기는 하였으나 아직 조정의 정론(定論)이자 목표였던 북벌(北伐)을 겨냥한 의도적인 발언이랄 수 밖에 없지만 동시에 서계가 연행을 통하여 얻어 낸 견문의 일단 이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 차례의 짧은 외출을 예외한 그의 반생은 문자 그대로의 주경야독(書耕夜讀)이었다.

선고(先考)의 사패지였던 수락산 장암동 〈석천(石泉)계곡(溪谷)〉[illegible]은 산수(山水)는 수려(秀麗)하였으나 영농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자연히 그는 거친 손으로 농기구를 다루며 열심히 농포(農圃)를 다스릴 수밖에는 없었다.

연표는 그의 사원 유거를

「석천동은 땅이 박하여 곡식을 가꾸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생은 스스로 농토를 다스릴 수밖에는 없었다 농사철이 되면 여러 농부들이나 이민들과 어울리며 하루 종일 논 밭에서 살았다. 자신 묘표에는 이르기를 물가에 집을 지었으나 물타리는 없고 거기 복숭아, 살구, 배, 밤을 심었으며 집 주위를 둘러 오이를 가꾸고 논을 풀고 나무 배다 팔아 생계를 삼았다. 농사철이 되면 돌에 나가 호미 들고 가래 맨 자들과 어울려 지냈다.」[illegible]

라고 묘사한다.

2) 〈색경(穡經)〉 편찬

그는 일찍이 장암 우거를 자신의 은거지로 확실하여 놓고 점계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서(農書) 한 권을 엮었다 그의 저서로는 개권(開卷)이 되는 이른 바 「색경(穡經)」이다.

스스로 서문에 밝힌 것처럼 이 책은 그가 비각(秘閣)에서 비서(秘書)를 발견하여 읽어보고는 이 책이야말로 자신의 은거에 스승이 될만하다 하여 이를 몰래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산보(刪補)하여 만든 것이다.

「색경」은 흔히 중국 농서「농상집요(農桑輯要)」를 편집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전거(典據) 문헌(文獻)들을 조사해 보면 「농상집요(農桑輯要)」외에도 「제민요술(齊民要術)」, 「여씨춘추(呂氏春秋)」, 「신은지(神隱志)」, 「예기월령(禮記月令)」, 「전가오행(田家五行)」등 다양한 농서들이 참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색경」의 초간(初刊)이 1676년에 이루어졌으나 「서계집」에 실린 시 〈제색경후(題穡經後)〉 등을 참조하면 1688년까지도 꾸준히 수정(修正) 증보(增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결국은 서계 반생의 영농을 통하여 얻은 경험이 반영된 필생의 저서이기도 하다.

이 「색경」에 대한 평가는 긍, 부정이 극단적(極端的)으로 나뉜다.

이 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 책이 단순한 중국 농서의 편집(編輯)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觀點)이다. 이 책의 편제만을 놓고 보면 이 견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계가 무슨 연유(緣由)로 중국의 농서들을 편집해서 또 하나의 농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 「색경」의 평가 관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색경」을 검토하면 당연히 참고하여야 할 농서 하나가 빠져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서계는 그 책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그 농서가 바로 「농가집성(農家集成)」이다. 「농가집성(農家集成)」은 세종 때 편찬되어 널리 보급되었던 관찬(官撰)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신숙(申洬)」이 증보한 것인데 기존의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증보하고 거기에다 세종의 「권농교서(勸農敎書)」, 「주희(朱熹)」의 「권농문(勸農文)」 그리고 「강희맹(姜希孟)」의 「금양잡록(衿陽雜錄)」 그리고 강희맹이 중국 농서 「사시찬요(四時纂要)」를 초록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등을 합본(合本)하여 편찬한 것이다.

기본 농서로 널리 보급되었던 이 책을 서계가 전혀 인용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자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후술하겠지만 서계의 정계 은퇴에도 불구하고 더욱 증폭되어갔던 우암과의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듯 싶다.

이와는 달리 「색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10) 색경 서문

11) 현종 10년 3월 4일 (정유)

12) (사천)이라는 동명(洞名)은 서계가 수락산 서쪽의 계류 일대에 붙인 것이며 (동강(東岡))은 후대의 행정(行政)동명(洞名)이다. (군신(君臣)은폐(隱弊))한 장자(長子)가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장자골) (장재울)이라하던 속칭에서 유래하였는데, (장자)는 서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계 당시에는 (장자골), 또는 (장암동)이라는 지명이 없었다.

13) 연표 부산 초 직후

점은 대략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책이 기존의 관찬 농서인 「농가집성」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는 것이다.

「농가집성」이 가지는 장점은 우리의 농업 환경에 부합(附合)하는 우리 농법(農法)을 확립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삼남(三南)의 노농(老農)들로부터 그들의 농사 경험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참고하였는데 그 결과 이 농서는 수전(水田) 농업 위주의 농서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아직도 한전(旱田) 위주인 중부 이북 지방 한전 농업 환경과 괴리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색경」은 중국 화북 지방의 한전 농법을 반영한 농서 중에서 우리 농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취사(取捨)하였기 때문에 「농가집성」이 가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긍정적 관점은 농정(農政) 이념(理念)에 관한 것이다. 「농사직설」에는 「주자」의 〈권농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권농문〉에는 토지 집적(集積)을 통한 지주제의 인정과 대농 경영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양난(兩亂) 이후 조선 향촌 사회에서 진행되던 급속한 토지 집적과 농민 신분의 분화(分化)라는 당시의 농촌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필연적인 농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였다.

서계는 이와 같은 지주 대농제 농업 경영에 반대하고 소농(小農) 위주의 농업 경영을 「색경」의 농정 이념으로 채택한 것이다. 백성에게 항업(恒業)과 항산(恒産)이 있은 연후에 비로소 정치와 문화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지론을 견지하였던 서계는 「색경」에서 「농가집성」이 중시했던 〈우경(牛耕)〉은 물론 축산 조에서 〈우마(牛馬)〉 자체를 빼어 버렸다. 토지 소유는 농민 스스로가 농사 짓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색경」에서 우경 대신에 〈호미질〉을 강조한다.

「색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번째 관점은 농서의 체제(體制)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농사직설」은 그 규모가 대단히 소략(疏略)하였고 이를 증보(增補)한 「농가집성」 역시 성격이 각각 다른 농서와 고서 등을 합편(合編)한 것으로서 농서로서의 체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이와 달리 「색경」은 잘 짜여진 강목(綱目)에 따라 질서 있게 편집하였고, 다양한 항목과 작물을 망라(網羅)하여 농서로서의 규모와 체계가 잘 갖추어진 편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편찬되는 각종 농서들이 색경의 체계를 따라 이후 농서 발간의 한 정형(定型)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6. 증폭되는 우암과의 갈등

서계는 자신의 장암동 은거로서 자신과 관계된 정계의 갈등을 종식(終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를 물러 난 서계는 자신의 뒤를 이어 환로에 나가 있던 두 아들 태유와 태보에게도 신변의 사단(事端)을 만들지 말고 자중(自重)하도록 당부하였었다.

그러나 서계의 이와 같은 소망과는 달리 우암과의 갈등은 서계를 위요(圍繞)한 족인(族人)들에 의하여 더욱 확산되어 갔고 서계 역시 점차 이 갈등 구조 안에 더 깊이 함몰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계의 3형 「박세후」의 부인은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의 딸이나, 3형이 무후(無後)하게 세상을 떠나자 서계는 자신의 차자 「태보」를 그에게로 출계(出系) 입계(入系)시켰다. 그 미촌의 아들이 바로 〈명재(明齋)〉 「윤증(尹拯)」이니

이로써 윤증과 서계는 사돈간이 되고 태보는 윤증의 외질이 되는 것이다.[14]

이와 같은 인척으로 인연하여 윤증은 평시에도 서계와 밀접한 교유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집안 大小事를 포함한 제반사(諸般事)를 서로 협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윤증이 우암과의 갈등 끝에 소위 〈회니논쟁(懷尼論爭)〉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이 논쟁을 계기로 서인(西人)은 노(老), 소론(少論)의 별개 당론(黨論)을 형성하게 된다.

주지(周知)하는 바 〈회니시비〉는 〈백호(白湖) 「윤휴」의 반주자적 사유(思惟)를 둘러싸고 우암과 미촌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그 발단(發端)을 열었다. 미촌이 백호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정하는 우암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자 우암은 미촌의 강도(江都) 구명(救命)을 문제 삼고 나서게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촌 사후에 명재가 부친의 비명(碑銘) 찬술(撰述)을 우암에게 부탁하면서 사단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가게 된다.

미촌의 백호 변호에 불만을 가졌던 우암은 미촌의 비명을 찬술하면서 단지 박세채가 지은 미촌의 행장을 그대로 다시 베껴 주었을 뿐 비문 작성에 성의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이다.

몹시 불만인 채로 여전히 우암에게 사제(師弟)의 예를 지키가던 명재는 마침내 우암을 비판하는 이른 바 〈신유의서(辛酉擬書)〉를 썼고 그 글의 내용을 손자 송순석을 통하여 入手 열람한 우암이 명재에게 서신을 보내 부친 미촌의 강도 구명 건을 다시 논박(論駁)하면서 마침내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간극(間隙)을 만들게 되었고 이 〈회니논쟁〉은 결국 서인 분열의 계기로 작용하면서 뒤이어 계속되는 「가례원류(家禮源流)」간행을 둘러 싼 〈배사론(背師論)〉, 〈삼전도(三田渡) 비문 찬술〉시비, 〈세실(世室) 건립〉문제, 〈태조존호가상(太祖尊號加上)〉 논쟁 등과 얽히며 노, 소론의 당론은 ○○○○ 대결(對決)과 상극(相剋)으로 이끌어 간다. 전술하였지만 서계와 명재는 혼척 간으로서 이와 같이 심화되는 우암과의 갈등에 그 행보를 나란히 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서계와 우암과의 갈등의 골 역시 함께 깊어질 수 밖에는 없었다.

명재와의 관계도 관계려니와 두 아들 태유와 태보의 정치적 행보도 문제였다.

태유, 태보 역시 부친 서계의 성정을 닮아 대단히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이와 같은 기질은 약관(弱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우암 계열과의 논전에서 늘 선봉에 서게 하였다.

우암이 태조 이성계에게 존호 〈昭義正倫〉을 가상하자는 의논을 제기하였을 때 「박세채(朴世采)」는 소위 〈화가위국론(化家爲國論)〉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였는데, 이 반대 논의에 윤증과 가까운 젊은 사류가 가세하여 마침내 좌절시켰다. 이는 우암 북벌론의 근거가 되는 〈존명의리론(尊明義理論)〉을 무살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조선 건국의 정론(正論)적 명분(名分)이 부정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이에 분노한 우암은 당시 젊은 사류들의 공격을 받고 있던 훈신(勳臣) 「김익훈(金益勳)」을 옹호하여 사태는 우암과 젊은 사류의 감정 싸움으로 악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태조존호가상〉에 반대하여 「박태유」의 상소문 내용이 우암에게 입수되어 상소문의 문자를 트집잡는 우암 계열로부

14) 박태보는 그 조카가 남구만의 누이집으로 남구만과도 외숙, 생질간이 된다.

터의 탄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박태유는 〈고산 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거기서 얻은 풍토병으로 그만 요절하고 말았다.

태유의 아우 태보 역시 소론의 맹장으로 활약하며 우암과 대립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시수(吳始壽) 사건〉이다.

현종이 돌아간 후 치제하러 온 청피 조문사 「장효례(張孝禮)」는 두 개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며 이는 선왕 현종이 신하들의 견제를 받아 그 평생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유를 설명하였다.

청사가 귀환한 후 접반(接伴)의 업무를 맡았던 오시수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면서 조정은 일대 분란에 휩싸였고 오시수가 이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지명한 역관 「박정신」은 청사 장효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므로서 더욱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은 장효례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물었는 바, 장효례 또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므로써 마침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이를 최초로 발설한 오시수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는 오시수가 송시열을 배척하려고 의도적으로 지어 낸 말이라는 공론에 밀려 처벌 문제가 대두되었다.

박태보는 이 문제에 조지겸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의론을 제기하였고 오시수가 처형되면서 결국 함께 탄핵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가능하면 노, 소론 당론을 중재하여 원만한 정국 운영을 기하려는 숙부 박세채나 외숙 남구만에게도 명확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는 등 그는 소론을 이끌며 언제나 논쟁의 선봉에 섰었다.

마치 부친 박세당의 면모를 보는 듯한 박태보의 활약은 마침내 그를 파국으로 몰아간다.

희빈 장씨의 원비 폭봉을 반대하는 상서의 소두(疏頭)가 되었던 그는 엄혹한 장문(杖問)을 받던 중 원찬(遠竄) 원로(遠路)에 나서자 마자 장독으로 요절하게 된다.

정치 현장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서계의 형념이 과연 어디로 향하였을까는 물문가지의 사실이다.

서계는 자신의 아들들이 소론의 맹장으로 나서는 일을 처음에는 적극 만류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변화를 따라 점차 그들을 지지 격려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암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두 아들 뿐이 아니었다.

그의 인척들 역시 반 우암의 정치 구도 안에 있었다.

그의 동종 족제인 박세채[1]는 희니논쟁의 와중에서 명재와 우암을 중재하고자 노력하며 소위 〈황극탕평책(皇極蕩平策)〉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니 기본적으로는 소론의 당론을 지지하고 있었고, 처제 남구만 역시 소론의 지지자였다. 더구나 남구만은 서계와 함께 수업하고 토론하며 청년기를 더불어 보냈고 서계 출사(出仕) 시에는 물론 퇴관 이후에도 서계의 창암동 유거를 자주 방문하며 친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창암동 석천 골짜기 계류 암반(巖盤)에는 약천의 유묵(遺墨)으로 전해지는 〈수박동천(水落洞泉)〉 초서 암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장외자(場外者)인 서계와 우암이 다시 부딪힌 사건이 바로 서계의 선조 박상충의 추시(追諡) 현창(顯彰)과 관련한 기년(紀年) 문제였다.

우암은 박상충의 유배와 이에 따른 죽음을 〈尊明義理〉의 표상(表象)으로 상징하여 이를 현창하도록 조정에 건의하였고 숙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박상충을 청몽주와 함께 추시(追諡)하고 아울러 개성에 사우(祠宇)를 건립하도록 명하였다.

물론 반남 일문으로는 이 현창이 가문의 광영(光榮)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는 비(碑)를 건립하기로 하고 그 비명(碑銘)의 찬술을 박세채에게 위임하였는데 문제는 그 비갈(碑碣)의 건립 연기(年紀)에 〈숭정(崇禎)〉연호(年號)를 사용한 것이었다.

비문 끝에 단 두 글자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박상충의 생애를 평가하는 관점(觀點)이 달린 문제였다.

서계는 박상충의 순국이 〈고려〉라는 〈국가〉에 헌신한 결과이지 결코 〈명〉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그를 현창하는 비문에 하필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연호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조가 조국 고려가 아닌 〈명〉에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되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다시 또 우암의 〈춘추대의〉론과 서계의 〈군신의리〉론이 부딪힌 것이다.

그는 연사치명(年紀之名)이란 수사로 바뀌기 마련이고 숭정(崇禎), 강희(康熙)는 단지 서로 다른 칭호에 불과한 것으로써, 삼대(三代) 이래 망해 버린 나라의 연호를 사용한 예는 중국에도 없었다며 비현실적인 〈숭명사상(崇明思想)〉을 비판하고, 나아가 고구려, 백제는 국토의 험함과 자신의 작은 힘만을 믿고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자주외교를 고집하다가 망했으며 이와는 달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당에 대한 합리적인 사대 외교의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들과 조카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를 누누히 강조하였고 그 결과 아들 태보 역시 숙부 박세채에게 비문의 개찬(改撰)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심각한 대립을 보이게 된다.

박세채가 이 비문의 개찬을 맡설였던 것은 애당초 이 논의가 우암에게서 나왔고 우암의 〈崇明義理論〉이 얼마나 절박한 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쟁논의 결론이 우암과의 충돌로 연결될 것을 저어하였던 탓이었으니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서계와 우암의 소신이 상충한 사건이었다.

서계의 은거로서도 해결은 커녕 더욱 증폭되기만 한 이 갈등은 마침내 그의 사상과 저술의 성격을 〈반우암〉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모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흔히 〈탈주자학〉으로 지적되는 그의 저서들의 저자 배경에는 그의 평생의 악연이었던 이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갈등은 서계의 말년에 이르러 마침내 〈비현 신도비〉라는 화산으로 분출되어 버리는 것이다.

7. 서계의 저작

1) 사변록

서계의 대표적 저술인 『사변록(思辨錄)』은 그러나 미완성인 채로 남고 만다.

그가 결전의 새로운 주해(註解)에 착수한 것은 숙종 6년 그의 나이 32세 때였다. 이 해에 〈大學思辨錄〉을 짓고, 50세 때인 숙종 13년에 〈中庸思辨錄〉을, 60세 때에 〈論語思辨錄〉, 61세 때에 〈孟子思辨錄〉, 63세 때에 〈尙書思辨錄〉을 짓고나서, 65세 때에 〈詩經思辨錄〉에 착수하였으나 〈小雅〉〈세목편〉에 그친 채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책은 일명 「通說」로도 불리며 모두 14책으

15) 박세채의 서계는 8촌 형제간으로 사제의 연치가 위였다.

로 구성되었는 데, 1冊이 〈大學〉, 2冊이 〈中庸〉, 3冊이 〈論語〉, 4, 5 冊이 〈孟子〉, 6, 7, 8, 9 책이 〈尙書〉이며, 제 10冊에서 14책까지가 미완으로 끝난 〈詩經〉이다.

「白軒 神道碑文」이 〈宋時烈〉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책은 〈경전을 훼손(毁損)〉한 혐의로 변파(辨破)의 대상이 되었다. 경전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는 이 책의 주해가 주자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명확하지 않은 〈대학〉의 장귀를 정자(程子)의 설에 따라 다시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변록〉에서 문제가 되는 소위 주자와 다른 주해는 대학장귀의 개정보다는 주해 그 자체에 있었다. 서계는 주희의 경전 주해가 지나치게 고원(高遠)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성인의 가르침은 본래가 평이(平易)한 것인데 이를 지나치게 사유화하여 본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리고 이 지적의 진의는 우암에 의하여 절대화 된 주자를 가변적(可變的) 인식의 대상으로 속화(俗化)하는 데 있었고 이를 통하여 도통(道統)의 계승자로 공인된 우암과 그의 도통주의를 공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우암의 문인들이 〈사변록〉을 문제 삼은 이유, 즉 멋대로 장구를 바꾸었으며, 그 주해가 주자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다는 두 가지에 대하여 서계의 문인들이 변호한 바 역시 그 주지(主旨)는 주자의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절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주자 스스로도 경전을 해석하며 〈未詳孰是〉, 〈闕疑待問〉, 〈不敢强解 以俟知者〉 등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오히려 제자들에게 선유의 해석에 얽매이지 말라고 강조하였다는 것과, 「채침」, 「황간」 등 주자의 적통 제자들 역시 주자설을 전신(專信) 한 것은 아니라는 예를 들어 반박하였다.

동시에 〈회재(晦齋)〉「이언적(李彦迪)」, 〈퇴계(退溪)〉「이황(李滉)」, 〈사계(沙溪)〉「김장생(金長生)」, 〈계곡(谿谷)〉「장유(張維)」 등 우리 조선의 선유(先儒)들도 주자의 주석을 고치거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서계의 제자 「이탄(李坦)」은 특히 「조익(趙翼)」의 예를 들어 조선의 학계에서 주자의 학설만이 절대화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서계는 단지 성인(聖人)만이 〈渾然天理〉하다는 이론을 반박하며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천리(天理)〉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사람에게 저마다 타고난 기질(氣質)이 있음은 인정하나 그것이 절대 불가변의 천성(天性)은 아니기 때문에 〈學而能之〉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는 봉건적 신분 질서의 근본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주자의 〈理一分殊〉와 〈性卽理〉를 부정하고 〈一旦豁然貫通〉 역시 부정하므로써 개별 사물의 理를 인식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궁하여 경험과학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이는 사실상 주자 성리학의 전면 부정이었으며 유교 경전에 대한 뚜렷한 해석 차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통주의자 우암의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서계야 말로 더불어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문(斯文)의 난적(亂賊)일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무시와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계의 이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인식론과 실천론 모색의 단서를 여는 획기적인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2) 도덕경 주해

서계는 유학자이면서도 〈도덕경(道德經)〉을 주

해하였는 데 이는 조선조 최초의 사건이었다.

주자와 정치, 학문의 궤를 같이하던 명재 윤증조차 서계가 도덕경을 주해하는 사실을 알고는 간담이 서늘하여져서 이를 말릴 정도로 이는 일견(一見) 무모한 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단(異端)의 경전을 주석하였는데 스스로 밝힌 이유는 「노자(老子)」의 도가 비록 성인의 가르침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 의도는 역시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다는 것과 노자의 말은 비록 간략하여도 그 의미는 깊어서 정사(政事)에 유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의 학설이 진대(晉代)의 학자들에 의하여 왜곡된 상태 그대로 유전(流轉)되어 왔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

「김학목」에 의하면 박세당은 사변록에서 주희의 해석이 지나치게 고원, 즉 어렵다고 비판하고 경전 본래의 평이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사서와 삼경을 주해하였지만 도덕경의 경우 오히려 주자의 고원한 해석으로 이를 주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방법으로 유가의 논리로 도덕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본체론적(本體論的) 기반을 확립하였는 데 이는 성리학의 도체인 〈理〉를 도덕경의 〈無〉나 〈樸〉, 즉 〈質朴〉에 동일시함으로써 〈道〉의 〈用〉에 해당하는 〈禮〉나 〈文〉으로서의 名分을 평가절하(平價切下)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시유학의 〈文質彬彬〉을 성리학의 〈體用不可分離〉로 환원한 것은 文의 기반이 質朴임을 인식하게 하여 당시 文의 극성을 비판하려 한 것이고 質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도덕경의 사상을 이용하여 文에 치우치는 풍조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는 주자적 명분론을 주지(主旨)로 강조하는 우암 계열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도덕경을 해석해 보임으로 그들의 반성을 촉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론은 서계의 사유를 실학 발생의 한 단초로 보는 평가안(評價眼)을 제공하기도 한다.

3) 장자 주해 〈남화경주해산보(南華經註解刪補)〉

서계의 〈장자(莊子)〉 주해는 그 본의가 역시 유학자로서 유학의 정체(正體)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물론 〈장자〉 또한 이단의 경서로서 이를 주석하는 일은 상당한 모험에 속하는 일이었으며, 후배 〈남당(南塘)〉「한원진(韓元震)」이 통론(通論)으로 장자를 비평한 일은 있으나 이를 귀퀴마다 집주(集注)한 것은 서계의 이 책이 유일한 것이라 하겠다.

서계는 우선 〈修身〉으로 장자의 용어를 대체 설명한다. 이는 장자를 이해하는 기본 관념이 도덕경과 마찬가지로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세는 그러나 서계의 장자 이해를 대단히 편협(偏狹)한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예컨대 장자가 말하는 〈자유(自由)〉는 어떠한 윤리적, 형식적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 초월(超越), 해방(解放)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나, 서계는 이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수신(修身)〉 즉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선(善)의 실천과 시비(是非)의 선택을 제시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규범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는 서계가 기본적으로 유학적 교양에 기반(基盤)하여 장자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가가 유교를 공격할 때의 논지(論旨)는 유가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인간의 본성을 속박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고, 유가의 도덕 규범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

라지는 가변성(可變性)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변성으로 관념적(觀念的) 절대(絶對) 개념, 즉 〈불변지도(不變之道)〉를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道〉 자체를 가변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동시에 서계가 견지한 〈德〉의 관념은 소위 말하는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 결국 장자의 〈자유〉와는 다른 〈주관적 가치〉에 머물게 된다.

결국 서계의 장자 주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방편(方便)임을 알 수 있다.

즉 외각(外角)의 시각으로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성리학은 물론 유학 그 자체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사유만을 절대화하는 시각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실학적 사유로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실학의 개념을 보다 확고히 정립(定立)해야 한다는 전제(前提)가 필요하겠으나 우선 하나의 가정으로 제시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8. 은거지 장암동 석천

1) 서계와 「매월당(梅月堂)」

서계는 은거 이후의 평생을 주경야독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은거지인 수락산 석천동 계곡에 선재(先在)하였던 한 인연을 따라 한 인물에 대한 추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가 바로 〈매월당(梅月堂)〉「김시습(金時習)」이다.

매월당은 실의(失意)의 기간, 전국을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선객(禪客)으로 떠도는 중에 한 때 수락산에 은거한 적이 있었고 그 때 그의 처소가 바로 호명(號名)이 된 〈매월당〉이었다.

서계는 그를 사모하여 그의 또 다른 아호인 〈동봉(東峰)〉에 대비한 〈서계(西溪)〉로 자신의 아호를 정할 정도였다. 김시습의 생몰년이 1435-1493년이므로 서계와는 약 200년의 세월을 격(隔)하지만 그래도 서계는 그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아마도 정절도 정절이지만 그의 관심을 끌어 간 것은 자기와 비슷한 낙백(落魄)의 처지를, 그것도 같은 공간에서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서계는 자신의 석천동 유거 공간 안에 두 군데 그를 위한 추모의 장소를 만들게 된다. 추모의 장소가 두 군데가 된 것은 매월당이 비속비승(非俗非僧)의 삶을 살았기에 이 모두를 포괄(包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는 유교식 추모공간인 〈청절사(淸節祠)〉였고 또 하나는 불교식 추모공간인 〈석림사(石林寺)〉였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석림사〉였다.

〈석림암기(石林庵記)〉에 따르면 그는 친히 자주 매월당 옛 터를 탐사하였으나 김시습의 자취는 이미 세월에 묻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그의 재산(在山) 시(時) 흥성하던 〈흥국사〉의 일부 건물 즉 〈성전〉이 남아 있어 몇 명의 승려가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고, 후대에 지어져 옛 〈은선암〉의 이름을 딴 작은 암자에 십육, 칠 명의 승려가 독경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수락산 서편 쪽에 매월당의 발자취를 기념할 만한 사찰이 전혀 없어 아쉬워 하던 중에 〈은선암〉의 승려 「석현」과 「지흠」의 권고를 받아 서계는 그 공력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암자를 짓고 이름을 〈석림사〉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수락산의 승경을 사랑하였지만 자신이 탐승하는 그 승경에 남은 김시습의 발자취를 밟

으며 스스로를 매월당의 후계자로 자부하기도 하였다.

종남에 있던 옛 일은 이제 없는데
도산의 풍류를 누가 이을고
[illegible] 그 곁에 살아
홀로 사랑하는 종남에 오른다네
종남은 높이 솟아 은하수에 닿았고
도산의 옳은 도는 그 앞을 대로세
[illegible] 무궁을 알리
도산의 남긴 자취를 잊을 일 없는 날
산 아래에 거처며 가만히 노래하노라면
종남에 뜬 달이 시내물에 비치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매월당에 대한 추모는 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김시습의 영당을 건립하는 일에 매달렸다.

친히 〈매월당영당권연문〉을 짓고 사방에 호소하여 의연금을 모아 마침내 영당을 이루고 무량사에 봉안된 매월당 영정을 모사 해 와 그 영당에 모셨다.

이어 양주 사림의 청액 운동이 결실하여 마침내 숙종 30년 〈청절사〉라는 사액이 내렸고, 서계 사후의 일이지만 문인 이덕수와 유언보의 노력으로 영당 앞 계반에 〈청풍정〉이라는 아담한 정자도 마련하여 풍취를 더하게 되었다.

환로를 떠나 산림에 은둔한 서계의 흉중, 그 안에 울울하였던 그의 심사를 엿볼 수 있는 이 매월당 추모 영당은 그러나 서원 훼철령에 무너지고 그 옛 터에는 노량진에서 이건 해 온 아들 박태보의 사액서원 〈노강서원〉이 흥성하게 자리하고 있다.

시대를 격하였으나 다 함께 군주를 향하여 충절의 열화를 피워 올렸던 매월당과 박태보, 그 절의의 크기를 재는 일이 얼마나 하잘데기 없는 일일까만 이제라도 그 자리에 청절사 옛 사우를 재건하고 노강서원은 또 그대로 자신이 묻혀있는 부친의 고택 한 자락에 옹근히 세우는 것 그것이 선렬을 추모하는 후배들의 할 일이 아닐까 싶다.

2) 서계의 문인들

서계의 은거는 원히 농포를 경영하는 바쁜 나날로 점철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문학(文學)을 듣고 그에게 배우려는 제자들이 사방으로부터 이곳 석천동에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가르침을 베풀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 서울 사대부의 자제(子弟)로 과거(科擧) 보는 글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가서 수업(受業)을 청하면 박세당은 정성되게 사도(師道)로 자처하여 경론(經論)을 마음대로 고쳐서 사사로이 전해 주었는데, 여러 해가 되어 일이 비로소 발각되었다.[65]

실시와 변천에 가득 차서 변역되어 기록한 실록의 졸기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열심을 오히려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 서계의 문인록에 남아 있는 그의 문인 명

65) 숙종 29년 4월 28일 (계묘)

단에는 모두 87인이 올라 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덕수」, 「최창대」, 「이탄」, 「김주신」, 「조태억」등 소론 명기의 자제들로 당대의 존재를 방라하고 있다. 여간이 강주어 진 서원도 아니요 그렇다고 허름한 현치 관리도 아닌 일개 산림처사의 문인이 이 정도라면 그를 향한 배움의 열정이 만만치 않았음을 능히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석천동 계곡에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캐산정〉이라는 정자가 남아있다.

"아홉길의 흙산을 쌓았어도 마지막 한 삼태기가 모자란 다면 그 공력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그의 가르침이 형상화된 소박하나 참 깊은 유적이다.

3) 수락산 석천동

주경야독, 자기에 힘을 내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번잡한 와중에서도 시계는 석천동 승경을 찾아 자주 수락산록을 올랐고 계절을 따라 그 심취를 즐겼다.

계류가 멈어지는 곳에 바위의 높고 낮음을 따라 물줄기이도 되고 폭포도 되었으니 이를 일러 〈석천〉이라 이름하였다. 맑은 물줄기가 바위를 따라 흘러 큰 바위 위의 여울이 되어 솟구치니 그 물은 물대로 더욱 맑고 바위는 바위대로 더욱 희어 아름답고 즐거워서 세계의 시든 곳이여![1]

그는 눈앞에 보이는 수락산의 모든 경치를 사랑하여 봉우리마다는 〈圓日峰〉, 〈弄月峰〉, 〈白鶴峰〉, 〈彩雲峰〉, 〈仙鳧峰〉등, 골짜기마다는 〈仙遊〉, 〈道藏〉, 〈北雲〉, 〈栖夏〉등, 능경마다는 〈翠微亭〉, 〈招鶴臺〉, 〈歡玉亭〉, 〈濯纓亭〉, 〈飛泉潭〉의 운치있는 이름을 붙여 놓고 스스로 자족하였다. 이름 짓느라 골몰하며 유유자적하는 그 순간만큼은 농경의 고단함도, 학업의 번뇌도, 우환과의 침통도 모두 잊고 선경에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아울러 그들 찾아오는 벗들과 한때 즐기는 시재의 산정은 서계가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었던 아이도 최상의 술 안주였으리라.

[illegible]

[illegible]

벗들과 함께 수락산을 오르며 느낀 시흥을 노래한 세 수 중 한 절이다.

특히 그는 취승대를 사랑하여 〈취승대기〉를 남겼는데 그 경치의 기묘함을 〈天作之巧〉라 자찬(自讚)하며 방진(方丈), 야복(野服)에 지팡이 짚고 선 듯이 하심, 저녁으로 그 정치를 즐겼다고 하였다.

취승대에 4대(臺)가 있으니 계류의 북쪽에는 시대의 북대, 건너편에 동대, 남대가 있어 각각의 풍취를 지녔으니 봄에는 동대에서 꽃을 즐기고, 여름이면 남대에서 바람을 맞으며, 가을에는 서대의 달을 보고, 겨울이 되면 북대의 눈을 완상하였다. 그렇다고 동대에 달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서대에 꽃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남대에 눈

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곽대에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19]

서계가 이 계곡을 완상하며 백헌당의 남긴 자취를 더듬던 때로부터 어느 새 다시 300년. 우리는 개발의 논리 아래 허물어져 가는 이 골짜기에서 조선 후기를 치열하고 고독하게 살아 간 한 지성인의 앞서가던 사유의 흐린 자취를 다시 더듬고 있다.

9. 백헌신도비문

백헌 이경석은 국난 수습에 일신을 던져 분투하였던 조선 후기의 명상이었다. 호란의 와중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으며 두 왕자를 따라 심양에 부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충, 노력하였고 조선의 북벌 계획이 누설됨에 이르러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백마산성에 위리 안치됨은 물론 청으로부터 최대 위험 인물로 지적되어 〈[illegible]〉의 단서까지 붙었다.

그는 실로 국난에 헌신(獻身)한 현신(賢臣)이었다. 그가 이름이 위로에 나가게 한 산림 제사 중에 바로 우암 송시열이 있었다.

백헌의 손자 이하성(李[illegible])이 조부를 변무하며 올린 상소에는 당시의 상황을,

> 신의 조부가 전형([illegible])을 맡을 적에 송시열([illegible])은 전 참봉([illegible])으로 학행([illegible])의 이름이 있어서 맨 먼저 추천하여 높은 벼슬길에 오르게 하였는데, 송시열이 인하여 종(宗)이 되었으며 매양 도성([illegible])에 들어오면 베옷과 짚신으로 문병(門[illegible])에 왔습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는 예(禮)가 서독(書牘) 사이에 나타났으며, 주공([illegible])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송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어긋나기 시작하였고 호란 이후 백헌이 부득이한 화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암의 위치가 백헌을 능가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우암은 〈숭명의리〉〈춘추대의〉를 전면에 내세워 정론을 장악하였고 결국은 북벌을 추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암은 백헌이 찬술한 〈삼전도비문〉을 시비에 올렸고 객관적으로는 떳떳할 길이 없던 비문 찬술은 그 과정의 배경이나 정학의 풍기피정을 묵과한 채 필론의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현종 9년(1668)에 백헌에게 내려진 궤장이었다. 오리 이원익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맞이하는 인신 최고의 광영을 당하여 백헌은 〈궤장연〉을 베풀었고 당대의 현관 모두가 참석하여 이를 축하하며 하문(賀文)을 지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우암의 〈궤장연서〉에 슬그머니 등장하는 문자 〈수이강([illegible])〉이 사단을 수면 위로 돌출시키고 만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 문자 안에 내포된 가혹한 비난의 뜻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현종의 온천 행에 문안하는 신하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여 올린 이경석의 차자가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오해한 우암이 〈대죄차자〉를 올리며 그 가운데 〈[illegible]〉의 숨은 뜻을 밝혀 이는 실상 백헌을 宋의 역신을 빗대어 욕한 것임을 확실히 하자 마침내 물의가 크게 끓어올

17) 석천유기

18) [illegible] 〈[illegible]〉 三首 중

19) [illegible] 〈[illegible]〉

왔다. 정작 백헌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우암의 문인들도 그 가혹한 처사를 의심하게 되었으나 당시 우암의 정치적 입지에 눌려 묵공론으로만 경황하였는데, 우암은 여론이 자기에게 극히 불리함을 알고도 자신의 소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당시에는 비록 부득이 하게 강요되었다하더라도 어찌 짐작하여 이를 면할 방도가 없었을까? 이는 아첨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만이 지극하였을 뿐, 분통하여 품은 한을 참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하려는 뜻은 거의 없었으니 사람의 성품이 단 한 터럭만큼이나마 있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대체로 그 사람은 실제는 없이 단지 칭송만 받으려는 마음으로 오랑캐의 세도를 끼고 칠성을 저선해 왔다. 만약 경인년의 작은 일이 아니라면 개마저도 그의 똥을 먹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암의 이와 같은 맹공에도 불구하고 백헌은 끝내 상대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백헌에게 몰린 중망이나 세론(世論)의 방향을 돌릴 수도 없었다. 정작 「삼전도비」를 둘러싼 우암의 시비에 대한 규탄은 서계로부터 나왔다.

존저 이후 우암에서 비롯된 각종 사단에 직, 간접으로 연결되며 그와의 갈등을 증폭시켜가던 서계는 그의 말년 후손으로부터 부탁 받은 백헌의 신도비명을 찬술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화산처럼 분출시켜 버렸다. 유심하고 쓴 일종의 선언이었다. 백헌도 우암도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그의 필사는 마치 논죄하는 판관처럼 단호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노성인〉이 없으면 어찌 전형(典刑)이 있으리오 하였으니, 전형이 있고 없고는 바로 치란(治亂), 존망(存亡)에 관계되는 일이다. 〈노성(老成)〉은 또한 전형(典刑)이 나오는 곳이니 지금은 〈노성〉을 다시 볼 수 없다하여도 다행이 전형이 아직 있어 이로써 우리의 자손과 백성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니, 오호라 노성인(老成人)이 나라에 있음으로 그 끼치는 바가 이렇게 막중(莫重)하도다.

서경에 이르기를 "〈노성인〉을 모욕하지 말아라 〈노성인〉의 귀중함이 이와 같도다" 하였으니 그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천하에 상서롭지 못함이 막대한 것이요, 감히 상서롭지 못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마땅히 그 상서롭지 못함에 대한 보응(報應)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일 것이니 또한 두렵지 않은가?

詩曰 雖無老成人 尚有典刑 典刑有無 治亂存亡係焉 老成又典刑所自出 老成今不可復見 幸其典刑之猶在 而以能保我子孫黎民 嗚呼 老成之於有國也 其係之若是重矣 書曰 無侮老成人

老成之重如此 有侮之者 則天下之不祥莫大焉 敢於爲不祥者 亦必有不祥之報 報爲天道之常也 可不懼乎

제멋대로 꾸미고 방자하게 속여 세상에 헛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다.

올빼미는 봉황새와 그 성품이 달라 자주 울어대고 자주 싸움을 내는 법이니 착하지 못한 자가 미워한다 하여도 그 일을 군자가 괴로워할 일이 무엇인가.

行假肆誕世有聞人 梟鳳殊性載鳴載嚇 不善者惡 君子何病

백헌을 〈노성인〉 〈군자〉 〈봉황〉에 비유하여 우암을 〈불상인〉 〈문인〉 〈불선자〉 〈올빼미〉로 격하한 이 비문이 알려지자 우암의 문인들은 벌떼 같이 들고일어나 서계를 규탄하였고 이 비문은 물론 〈사변록〉의 내용까지 문제 삼아 마침내 그를 〈훼성모성〉, 〈사문난적〉으로 몰아갔다.

서계의 비문 찬술이 작심한 선언이었듯 우암의 문인들 역시 작심한 맹공이었다. 관진을 총동원하여 집요하게 서계를 탄핵하였다.

마침내 국왕 숙종은 〈비문〉과 〈사변록〉을 궁중

에 들어 읽은 후 사변록의 변파를 명하였고 거듭되는 주청을 받아 서계를 옥과에 유배하고 문제의 글들을 불태울 것을 명하였다.

서계가 대죄하고 있는 사이 그의 처치를 둘러싸고 우암의 문인들과 서계의 문인들, 그리고 백헌의 자손까지 가세하여 치열한 논전(論戰)이 벌어졌고 그의 노쇠한 병구(病軀)와 35년에 이르는 청절한 산림 유거, 그리고 아들 박태보의 충절을 감안하여 옥과 원찬(遠竄)은 철회되어 겨우 석천동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폭염도 지치는 초가을 8월 21일, 서계는 75세의 파란 만장한 일생을 접고 사세(辭世)하여 두 부인 남씨와 정씨의 곁 양지 바른 유택(幽宅)에 묻혔다. 그가 평생 사랑해 온 석천동의 증경을 굽어보는 고택의 뒤 언덕이었다.

10.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

서계는 자신의 죽음에 이르러 장례를 간단히 할 것과 졸곡(卒哭)하면 바로 조석(朝夕) 상식(上食)을 폐지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른바 상년 상식의 폐지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정은 다시 비난과 옹호의 양론으로 끓어올랐다.

예(禮)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해괴한 짓거리라는 빗발치는 비난과 함께, 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만일 고경의 정신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 또한 불린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양론이 팽팽히 맞서게 된다.

서계가 남긴 뜻은 무엇이었을까?

당대의 통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충격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그의 유언을 예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아의 패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는 평생을 현실론자로 살았고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해 왔다.

그런 그의 눈으로 볼 때 고경의 정신과 규정을 무시한 채 〈주자 가례〉만을 존중하는 현상이 오히려 경전의 근본 정신을 훼손(毁損)하는 이른바 해경이었고, 아울러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하례(虛禮)로 보였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조정을 장악한 우암의 도통주의가 사체의 근본으로 예사에 주자를 내세우는 명분론 역시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박세당(朴世堂)의 집안에서는 조석의 상식(上食)을 폐한다고 말한 것이 매우 해괴합니다. 고례(古禮)에 바로 다시는 궤식(饋食)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주자(朱子)가 이미 정론(定論)함이 있고, 우리 나라 제도는 또한 3년 동안의 일제(日祭)를 행하는데, 별도로 다른 믹논을 내어 공공연히 정폐(停廢)하였으니, 성훈(聖訓)을 어기고 방례(邦禮)를 등진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박세당은 평생 은밀한 사리를 찾고 괴이한 짓을 하여 바로 하나의 이단(異端)이기 때문에 매사가 이렇습니다. 고례(古禮)로 말하더라도 〈의례(儀禮)〉에는 '졸곡(卒哭)하면 다시는 하실(下室)에 궤식(饋食)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이른바 하실에 궤식한다는 말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궁(檀弓)에는, '이미 부하면 오직 조석으로 곡배(哭拜)한다.' 하였으니, 이는 상식이 없는 듯하나 장황거(張橫渠)와 사마광(司馬光)은 다 상식하는 예(禮)를 행하였고,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예는 마땅히 후한 것을 따라야 하며, 또 참람한 혐의가 없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이미 성복(成服)하면 조석(朝夕)의 곡전(哭奠)과 조석의 상식이 있는데, 장례 후에 이르면 조석전을 그치고, 소상(小祥)에는 조석곡을 그치며, 대상(大祥)에는 궤연을 철거

30) 우암 연보
21) 「[illegible]」 (國[illegible])
22) 「[illegible]」 ([illegible])

한다.' 라고 하였는데, 박세당이 주자에 대해 이론을 제했기 때문에, 이 예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23]

서계를 비난하는 여론의 논지는 분명하다. 고례에는 서계가 주장하는 그대로 되어 있으나 뒷시(주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시비의 판단 기준이 오직 주자의 문자에 구속되어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정작 유교의 본 고장 중국에서는 이미 양명학을 거쳐 고증학으로 나가고 다시 서학을 융합하는 과정에 이르고 있었거늘 이 땅은 아직도 고착된 사유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으니 서계의 영혼이 있어 이 답답한 논의를 방청하고 있었다면 그 소회(所懷)의 울울(鬱鬱)함을 어디에서 풀 수 있었을까?

서계 종댁에 전해오는 고문서에는 서계의 두 아들과 손자들이 발전시켜 온 〈안신경제〉 글씨들이 다수 전한다. 당시를 풍미하던 송설체를 마다하고 대를 이어 면면히 내려 간 반듯하고 분명한 자획길에서 학문과 삶을 대하는 서계의 반듯하고도 성실한 자세와 면모를 볼 수 있다면 과장일까?

11. 맺는 말

서계의 생평(生平)을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선 후기 내외를 미혼하고 계기하는 혼란의 와중에서 스스로의 자아를 확립하고 반듯하면서도 뚜렷한 소신으로 한 생애를 살아간 한 개혁 사상가, 아마도 그처럼 치열하게 자신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와 삶의 여건에 충실하였던 지식인도 드물 것이다. 해야할 말과 해야 할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었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굽히는 법도 없었다. 조정에 나아가 사대부의 의리를 강당함에 성충(誠忠)을 다하였고, 물러나 스스로 몸을 경작함에 게으름과 거리낌이 없었다. 좋은 가장(家長), 훌륭한 스승이었고 벗을 아는 풍류인이었으며 시흥(詩興)을 다스릴 줄 아는 뛰어 난 문인(文人)이기도 하였다.

그의 깊은 사유는 300년 낡은 울타리를 넘었고, 그 생각의 자유로움은 이단(異端)의 인습을 무시하였으며, 그의 저작(著作)들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그의 언행은 지금도 범인(凡人)들의 사표(師表)로 뚜렷하다. 세태의 무상함을 이미 알았으니 백관(百官)으로 불러도 용기지를 떠날 줄 몰랐고, 한 번 붓을 들어 꾸짖으매 온 나라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밝은 빛을 낳는 법, 남긴 유언에 시비가 구구하였어도 그 뚜렷한 가르침을 굳이 실천하기에 두려움을 몰랐던 자손들이 있어 뭇별처럼 가득한 준걸(俊傑)들의 이름을 셀 수 있으니 〈창리〉「박종길(朴宗吉)」, 〈우상(右相)〉「박종훈(朴宗薰)」, 〈대사헌(大司憲)〉「박재명(朴載明)」, 〈이조판서(吏曹判書)〉「박사수(朴師洙)」, 〈금성위(錦城尉)〉「박명원(朴明源)」과 〈연암(燕巖)〉「박지원(朴趾源)」, 〈우상(右相)〉「박규수(朴珪壽)」, 〈금릉위(錦陵尉)〉「박영효(朴泳孝)」가 그들이다. 이 어찌 우연이리오?

선생 가신지 이제 300년 무수한 동심이 이 안뜰을 스쳐 갔어도 서계 골짜기에 부는 바람은 아직도 향기롭다.

23) 숙종 30년 7월 20일 (무오)

반남박씨 고문서 도판해설

1. 박동선봉군고신 朴東善封君告身

1640(仁祖 18), 紙本墨書, 110×90.3㎝, [施命之寶]

1640년 박동선(1562~1640)을 錦川君에 봉하는 告身.

이 해는 박동선이 사망하던 해이다. 박동선은 박세당의 조부로 1590년(宣祖 23) 문과에 합격하여 검열·정언·장령·대사간·이조참판·형조판서를 거쳐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에 이르렀다.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 閔仁伯·李廷龜·李時發·金世濂 등과 교유가 깊었다. 광해조에 대북정권이 수립되자 벼슬을 단념하고 廣津(광나루)에 은거하였으나, 대북 당로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한때 유배형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곡절이 많았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들 박정이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고, 인조조의 서인정권에서는 중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박동선이 금천군에 봉해진 것은 아들 박정의 靖社勳功에 따른 것인데, 말미에 「故議政府左參贊朴東善以原從功臣一等依例傳封爵」이란 봉작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 고신 역시 박동선·박정의 종손 계열인 朴世堅의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어야 하지만 박정의 공신교서 및 초상화와 함께 정조연간에 서계종택에 위탁된 것이다.

박동선은 서계가문의 연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즉, 서계가문이 朴尙衷→朴紹로 이어지는 반남박씨 大宗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한 때가 바로 박동선 대이다. 반남박씨는 박소의 아들(5子)과 손자(16孫) 대에 여러 계파로 분파되었는데, 박동선은 朴紹의 장자 朴應川의 5자였다.

2. 박정초상화 朴炡肖像畵

仁祖年間(1625年頃), 軸, 絹本彩色, 170×90㎝, 簇子 227×185㎝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인조반정공신 錦洲君 朴炡(1596~1632)의 초상화.

畵家는 미상이고 제작된 시기는 1625년경으로 추정된다. 1625년경으로 추정한 것은 박정에게 靖社功臣敎書가 내린 것이 이 해이고, 여기에 도상 제작에 관한 특전이 열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사공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공신들에게는 나라에서 圖像(초상화)를 그려주었는데, 박정의 이 초상화 역시 훈공에 따른 賞典의 한 형태였다. 박정은 28세에 인조반정에 참여하였고, 이 초상화는 그의 30세 때 모습을 그린 것이다. 17세기 초엽 초상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명품이다.

현재 서계종택에는 박정의 초상화가 2점이 전한다. 하나는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세당 대인 17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모본이다. 4세에 아버지를 여읜 박세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초상화를 통해 해소했다고 한다. 「공(박세당)이 태어난지 네 해만에 忠肅公(박정)이 별세하여 성장해서도 儀形을 기억하지 못하여 충숙공의 유상을 뵈어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西溪行狀」(

記(畵記)의 기록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에 박세당은 1684년 종형 朴世堅의 아들인 조카 朴泰尙과 상의하여 模本 제작에 착수하였는데, 저본이 된 것이 바로 이 초상화이다. 다만 몇 개의 모본이 제작되었는지는 미상인데, 여러 개를 제작하여 박세당·박태상 등이 分藏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 하나가 서계종택에 전하는 모본인 것이다. 그런데 1625년 경에 제작된 초상화는 계통상 박정의 장자인 朴世圭의 후손가에 소장되어야 한다. 영조 말년까지 박정의 초상은 朴世圭(大司諫) → 朴泰素(兵曹佐郞) → 朴弼恩(副司直) → 朴師昌(承旨) → 朴好源(府使)으로 이어지는 박정의 봉사위 종가에게 전래되어 왔다. 그런데 박호원의 아들 朴相甫가 1777년(英祖 52) 역모에 연루되어 온 집안이 파탄지경에 이르면서 박정의 자손 중 家勢가 가장 온전했던 서계종택에 위탁해 둔 것이라 한다. 앞에서 소개한 朴泰尙의 畵記(畵記), 박정의 功臣敎書 등도 초상화와 함께 위탁된 것이다.

3. 박정정사공신교서 朴炡靖社功臣敎書

1681(肅宗 7), 軸, 絹本墨書, 90×293㎝, [施命之寶]

1625년 인조가 朴炡(1596-1632)을 奮忠贊謨靖社功臣(三等靖社功臣) 3等에 책봉하고 내린 교서.

교서는 공신을 책봉할 때 내리는 증표로 여기에는 공신이 누리는 각종 제도적 특권과 土地·奴婢 등의 下賜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급 비단에 한지로 배접된 이 교서에는 인조반정의 훈훈 김류 등 모두 53명의 공신 명단이 등급별로 열서되어 있다. 1등은 10명, 2등은 15명, 3등은 28명이다. 이 중 1등 공신 金自點·沈器遠, 2등 공신 沈器成, 3등 공신 金鍊은 이름을 알 수 없도록 검게 칠해져 있는데, 이들은 후일 역모에서 삭적되었기 때문이다.

박정은 3등 제14위에 등재되어 있는데, 당시 그의 관직은 通訓大夫 行議政府舍人知製敎 兼春秋館編修官이었다. 박정은 박세당의 아버지로 27세의 나이로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錦洲君에 봉해지고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그는 광해군의 난정, 대북정권의 전횡, 거기에 따른 아버지 박동선의 정치적 수난을 목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정에 참여하여 勳府의 중진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 교서는 1625년 당시의 원본이 아니고 1681년에 재발급된 것이다. 말미의 「舊軸失於丙子兵亂今七年辛酉五月二十一日因傳敎改造」라는 주기에 따르면, 1625년에 발급된 원본이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소실되자 이로부터 56년 뒤인 1681년에 숙종의 傳敎에 따라 원본에 준하여 다시 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실 또는 유실된 공신교서가 후대에 왕명에 의해 재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배가된다. 교서의 내용은 撰述者인 李明漢(白洲)의 글이고, 글씨는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사헌부지평 朴泰維(白石)가 썼다. 박태유는 박세당의 장자로 박정에게는 손자가 된다.

참고로 이 교서는 계통상 박정의 장자 朴世圭→泰素→弼恩→師昌→好源의 후손가에 세전되어야 하는데, 현재 서계종택에 소장된 것은 박호원의 아들 박상보의 정치적 부침과 관련이 있다. 즉 박상보는 1777년(英祖 52) 역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이 敎書와 박정의 肖像畵 등 선대의 주요 文籍과 遺物을 西溪宗宅에 위탁해 둔 것이라 한다.

4. 박세당초상화 朴世堂肖像畵

肅宗年間(1690年頃), 軸, 絹本彩色,

115×58.6㎝, 額子 140×78㎝

1690년 경 曺世傑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朴世堂의 초상화.

현재 서계종택에는 박세당의 초상화 2점이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대에 모사된 것이다. 그런데 서계가문의 가전에 따르면, 박세당의 초상화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두 3점이었고, 2점은 분실했다고 한다. 최근 필자는 박세당의 후손이 지은 『노을에 지는 별』(朴贊勛著)의 삽도에서 박세당의 초상화 1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분실한 2점 중의 1점이며, 약 150년 동안 「西溪影堂」에 봉안되어 온 구본으로 박세당의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귀중본이다.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유복을 걸친 서계 노년의 모습이 역력하여 마치 山林處士를 연상케 하는 명품이었다. 여기서 소개하는 이 초상화와 삽도로 수록된 초상화는 동일인의 작품으로 화가는 조세걸로 추정된다. 화가를 조세걸로 추정한 근거는 박세당과 조세걸의 관계, 초상화와 관련된 박태보의 『定齋集』 기사이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박세당과 조세걸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1668년(顯宗 9)이었다. 당시 박세당은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평양에서 조세걸을 만났는데, 이 때 조세걸은 박세당에게 자신이 그린 8폭의 화첩[仙人圖]을 선물로 증정하였다. 조세걸이 어떤 이유에서 화첩을 선물했는지는 미상이지만 박세당의 학식과 엘리트 관료로서의 입지가 크게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박세당과 조세걸이 다시 만난 것은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690년경이었다. 당시 서계는 60세의 老儒가 되어 있었고, 조세걸은 천재적 재능을 바탕으로 화가로 대성해 있었다. 지난날의 두터운 인연 때문인지 조세걸은 양주 석천동의 서계를 방문하고 6폭의 산수화를 그려 주었다. 이 그림은 이상경을 그린 산수화가 아닌 석천동일대의 경치를 6폭에 담은 것이었다. 서계의 표현대로라면 「瀟湘八景圖」에 비길 만한 수작이었으나 현재 작품이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산수화의 畵題에 초상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화제 일부를 보자.

> (조세걸이) 금년에 西溪에 들러, 내가 훌륭한 선비인줄 알고 形狀을 그려주고는, (공력을 들여야 할) 화畵에는 마음과 기교를 다하였다고 말했다.(今年來過西溪上 謂我佳士圖其狀 自言好畫費心匠)

비록 화첩에 붙인 題詩이지만 조세걸이 박세당을 위해 초상화를 그려주었음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세걸 스스로 묘사에는 마음과 기교를 다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秀作이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6폭 중에는 서계가 해질녘에 지팡이를 짚고 산문을 산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노을에 지는 별』에 수록된 초상화에는 서계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보의 『定齋集』 기사를 보기로 하자.

> 泰輔(태보)는 일찍이 문생들과 상의하여 평안도 畵師 조세걸로 하여금 대인(西溪)의 초상을 그리고자 하였으나 일을 매듭짓기 전에 화사가 돌아가 버렸다. 평산부사 유득일이 옹교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래견하니 '옹교가 평산은 세걸의 집과 길이 통하고 연락 또한 용이하니 朱叔(俞得一)은 유념하여 (세걸에게) 내 말을 전하여 나의 바람을 이루도록 해 주시오'라고 했다. (『定齋後集』 卷5, 「己巳疑獄錄」(上))

이 기사는 1689년 5월 4일 박태보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그를 문병온 평산부사 兪得一에게 박세

당 초상화의 완성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즉 박태보는 이전에 이미 조세걸에게 아버지의 초상화 제작을 의뢰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하자 죽음에 임박하여 동료들을 통해 다시 한번 부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본다면 조세걸의 서계방문은 서계와의 친분과 박태보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박세당 초상화의 제작에는 아들 태보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서계의 초상화를 그린 조세걸(1636~1705)은 어떤 화가였는가? 그는 평양 출신으로 가세가 부유하여 어릴적부터 중국의 명畵를 보면서 그림 공부에 열중했다고 한다. 이후 관명국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화재를 인정받았고, 산수화와 인물화의 대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이때 숙종연간에는 숙종의 어진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은 명공이었다. 초상화의 대표작으로는 숙종어진과 [illegible]([illegible])의 초상화가 있다.

그는 기환자제들의 요청을 받아 상당수의 명품을 그리거나 전사해 주었는데, [illegible]을 위해 그린 [illegible], 김창흡을 위해 전사한 「[illegible]」·「[illegible]」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그는 1682년(肅宗 8) 김수증의 요청을 받아 그 유명한 화악산의 곡운구곡의 실경을 그린 「谷雲九曲圖」를 완성하였는데, 서계에게 그려준 「[illegible]」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박세당 백패 朴世堂白牌

1660(顯宗 1), 紙本墨書, 102.2×44.5cm, [科擧之寶]

1660년 박세당이 생원시에서 2等 第7人으로 입격하고 받은 백패.

당시 박세당의 나이는 32세였고, 2등 7인은 100명 중 12등에 해당하는 석차이다. 박세당은 이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설행된 별시 문과에서 장원으로 합격했다.

6. 박세당홍패 朴世堂紅牌

1660(顯宗 1), 紙本墨書, 110.5×88cm, [科擧之寶]

1660년 박세당이 別試 文科에서 甲科 第一人, 즉 壯元으로 합격하고 받은 홍패.

홍패는 文武科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로, 붉은 장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박세당은 어려서 고모부 鄭思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청년기에는 서숙 南二星, 처남 南九萬과의 학문 교유를 통해 석학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였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어머니, 할머니, 중형(仲兄)의 상을 당하여 응시의 기회를 놓쳤다가 32세 되던 1660년 현종의 즉위를 기념하여 설행된 별시 문과에서 당대의 수재들을 제치고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박세당이 殿試에서 작성했던 試券도 현존하고 있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중 장원은 6品, 2등은 正7品, 3등은 7품 그 이하는 9품직에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그만큼 장원을 우대했음을 의미하는데, 박세당 역시 관례에 따라 정6품직인 成均館典籍에 초임 발령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의 관직체계에서 9品에서 5품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니 같은 합격자라도 석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세당의 두 아들 泰維·泰輔도 문과에 합격하여 3부자 모두 科榮을 누렸다. 특히 태보는 1677년(肅宗 3) 문과에서 장원하여 [illegible]에 이어 父子 壯元의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7. 박세당홍문관교리고신 朴世堂弘文館校理告身

1669(顯宗 10), 紙本墨書, 53.5×77cm, [施命之寶]

1669년 박세당을 홍문관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

관에 임명한 고신.

홍문관은 국왕의 학술자문부서로 문신(문과출신) 중 홍문록에 錄選되어야만 홍문관원이 될 수 있었다. 홍문관의 중견 관료인 교리(정 5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한직으로 모든 문신들이 선망한 직책이었다. 지제교는 왕명을 대찬하는 직임인데, 주로 홍문관·예문관의 관료들이 의례 겸직하였다. 정면시독관 역시 홍문관의 관원들은 의례 겸직하였는데, 왕과 신하들이 학술을 토론하고 정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다. 박세당은 문과에 장원한 엘리트 문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한지 10년만에 통훈대부 홍문관교리에 오르는 초속 승진을 하고 있었다.

8. 박세당통진현감고신 朴世堂通津縣監告身

1670(顯宗 11), 紙本墨書, 54.3×75.5cm, [施命之寶]

1670년 박세당을 통훈대부 行通津縣監에 임명한 고신.

통진현감은 외방의 수령직에 불과하지만 박세당의 생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직인 동시에 사실상의 최종 관직이었다. 박세당은 1699년 문과에 장원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문신으로 발돋움하였으나, 謫海에서의 부침을 여러 차례 겪으며 관직에 염증을 느끼고 1686년 正月 양주 水落山에 정착하여 비슬을 단념하였다. 기록상 그의 최종 관직은 判中樞府事였지만 수락산 입거 이후 수행한 관직은 1682년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것과 통진현감이 전부였다. 박세당이 통진현감에 재직한 것은 1670년 8월에서 1671년 8월까지 만 1년이었다. 통진현감 앞에 행자가 붙은 것은 階高職卑(行), 階低職高(守)라는 行守法에 따른 표기 방식이다. 통훈대부는 3품의 품계이고, 통진현감은 6품직이기 때문에 행자를 붙인 것이다.

9. 박세당홍문관부제학고신 朴世堂弘文館副提學告身

1683(肅宗 9), 紙本墨書, 53×77.6cm, [施命之寶]

1683년 박세당을 通政大夫 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에 임명하는 고신.

홍문관 부제학은 사실상의 홍문관의 館長으로 당대 최고의 문신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그러나 박세당은 1671년 이후로는 어떤 관직에도 부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세당의 필화인 「先訓」에는 박세당이 노비를 시켜 楊州牧使에게 올린 副提學 사직 箚子의 草本이 여러 점 수록되어 있다.

10. 박세당대사간유지 朴世堂大司諫有旨

1681(肅宗 7) 紙本墨書, 47.5×71.5cm, [承政院印]

1681년 숙종이 박세당을 사헌부 대사간으로 임명하고 출사를 종용하는 유지.

유지는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서로 敎旨·傳旨·重旨들의 원조를 종용하는 예우적 성격의 유서가 주류를 이룬다. 유지는 승지가 왕명을 받아 직접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담당 종5품의 官銜과 姓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署押하는 것이 유서 작성의 일반적 형태였다. 이는 유지가 왕명이기 때문에 출납과 전달 과정이 세세히어야 했고, 전달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유지의 작성자는 同副承旨 李昊이다.

유지는 본문의 배면 좌측에 종서로 官銜과 姓을 기록하여 수급자를 표시하였는데, 배면을 훼손하는 것은 문서를 접으면 이 면이 표지처럼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 유지의 경우 「司憲府大司諫朴開斯」이라 기록되어 있다. 朴은 곧 박세당을 말하고, 開斯은 열어보라는 뜻이다. 그 하단에

녹서된 「楊州」는 박세당의 거주지를 말한다. 지금은 서계종택이 의정부시 관할이지만 당시는 楊州牧 소관이었다.

현재 서계종택에는 박세당과 관련된 4점의 有旨가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지금 소개한 유지이고 나머지 3점은 1683~1688년 사이 박세당을 弘文館副提學에 임명하고 출사를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세당은 1670~1671년까지 通津縣監에 재임한 것 외에는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수락산 石泉洞에서 학문과 후진양성에 진념하였다. 이 유지 역시 박세당에 대한 숙종의 知遇가 잘 나타나 있지만 박세당은 대사간에 부임하지 않았다.

11. 박세당시권 朴世堂試券

1660(顯宗 1), 紙本墨書, 72.6×251㎝ [科擧之寶]

1660년 박세당이 당시 문과의 殿試에서 작성한 시권.

과거 답안지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합격자에 한해 본인에게 반환하였다. 문과 장원 합격자의 원본 시권으로는 이 것이 유일하다. 시권의 우측에는 수험번호 및 신원사항, 그리고 시험문제(試題)가 쓰여져 있고, 내용은 중국의 故事 「[illegible]」에 대한 論文이다.

유려한 필체에다 고관자의 수정, 수험자의 等第 표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과거사·교육사 연구에 더없이 중요한 자료이다.

12. 박세당호구단자 朴世堂戶口單子

1702(肅宗 28), 紙本墨書, 116.6×70.5㎝

1702년 박세당이 74세 때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본.

당시의 법제에 따르면, 매식년(3년)마다 호주가 자신의 호구상황을 기록한 호구단자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올리면 관에서는 내용상의 오류를 점검한 뒤 1통은 호적대장 작성용으로 관에 비치하고, 1통은 다시 호주에게 반환하였다. 다만 이 호구단자는 원본이 아닌 초본이며, 서계종택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호적자료이다. 당시 박세당의 관직은 資憲大夫 知中樞府事였고, 거주지는 西面 長水院里 [illegible]였다. 그런데 이 주소가 지금의 서계종택을 말하는 지는 확실치 않다. 서계종택의 소재지는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양주목 둔야면 長岩洞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자동이 행정상의 명칭이기 보다는 가문 또는 지역내의 비공식적인 명칭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적으로는 서계종택이 장수원리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 해설에서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서술을 진행하기로 한다.

「[illegible]」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세당이 수락산 장자동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668년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지금의 종택 규모와 같은 가옥은 없었고 草堂을 짓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집 등에서 자주 나오는 초당이 바로 그의 주거했던 곳이다. 일찌감치 영달을 포기한 그였기에 주거 의식도 매우 소박했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세당은 [illegible]에서 자신의 집을 두고 인위적인 울타리는 없었지만 복숭아나무(桃), 살구나무(杏), 배나무(梨), 밤나무(栗) 등 천연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했다. 현재의 서계종택은 5세손인 朴宗吉대에 건립된 것이다.

호구단자를 통해 박세당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박세당의 집에는 자신을 비롯하여 李氏(妾), 며느리(鄭氏), 아들(泰翰), 손자([illegible]), 손부(李氏), 손자([illegible]), 손녀 등 8명이 살고 있었다. 일견 여느 집과 별다른 차이가 없

어 보이지만, 이 가족 구성은 박세당 말년의 시련이 생생하게 반영된 형태였다.

우선 두번째 부인 光州鄭氏마저 사망하여 妾인 70세 연하의 李召史가 부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일찍이 과부가 된 맏며느리를 부양하고 있었다. 정씨 부인은 장자 태유의 두번째 부인으로 1686년 남편을 사별한지 20년 가까이 수절하고 있었다.

태한은 박세당의 3자로 광주정씨 소생이다. 弼基와 任氏는 장손부부이며, 필손은 태한의 아들이다. 7세의 손녀 역시 태한의 딸로 추정된다. 박세당은 1686년 장자 泰維를, 1689년에는 차자 泰輔를 잃으면서도 父子의 애통함을 참고 학문에 주력하는 한편, 70이 넘은 나이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했다. 「생계가 어려운 태보의 아버지(朴世堂)에게 음식물을 내리라」는 肅宗實錄의 기사에서도 그가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3.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2(景宗 2), 紙本墨書, 54×80cm, [司諫院印]

1722년 박세당의 諡號 「文節」에 대한 사간원의 서경완의.

조선시대에는 인사 발령은 물론 시호에 대해서도 사헌부·사간원의 인준 절차인 서경을 거쳐야 했다. 시호를 받기 위해서는 諡狀을 지어 예조에 올리면 예조에서 검토하여 奉常寺로 보내고→봉상시에서 다시 弘文館으로 이송하여 홍문관의 應敎 이하 3원이 3望을 의정하면→홍문관의 應敎 1員은 다시 봉상시정 이하 제원과 더불어 (3망을) 의정하고→의정부의 舍人·檢詳 중 1원이 署經하여 행장을 아울러 이조(吏曹)에 보고하고 입계하여 왕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시호서경은 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행해졌다.

박세당의 諡號인 文節에 대한 시주는 勤學好問(文)과 好廉自克(節)로 나타난다. 조선시대는 文治主義를 표방했기 때문에 文字 諡號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같은 文字라도 諡註의 내용에 따라 등급이 달랐다. 예컨대 孔子(文成)는 經天緯地(文)이었고, 李滉(文純)은 道德博聞(文)이었다. 李滉·李珥·金長生·柳成龍 등 조선시대 대부분의 도학자들은 道德博聞(文)이었다. 박세당의 경우 그의 학자적 면모와 업적을 고려할 때 道德博聞이 합당할 것 같은데 勤學好問으로 정해진 것이 다소 의문스럽다. 시호 또는 시주가 해당 인물의 생애와 업적과 맞지 않을 때는 改諡·改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박세당의 시호도 이듬해인 1723년에는 文節에서 文貞으로 개시되었으나 文字의 諡註는 바뀌지 않았다.

諡號署經完議에는 연호 위에 해당 관서의 官印을 찍고, 직인 위에는 「署經」이라 墨書하게 되어 있었다. 이 완의 역시도 거기에 준해 작성되었고, 해당 관서인 사간원의 직인도 찍혀 있다. 그리고 관원들의 직명을 품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기록하고 완의에 참여한 관원은 자신의 직임 아래에다 서압을 했다.

14.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3(景宗 2), 紙本墨書, 56×79cm, [司憲府印]

박세당의 시호 문절(文節)에 대한 사헌부의 서경 완의. 시호 서경은 사헌부·사간원의 고유 권한으로 양사(兩司)의 관원 각 3원이 서경에 참여하였는데, 이 문서는 장령 2원과 지평 1원이 서경한 것이다.

15.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3(景宗3), 紙本墨書, 56.6×81cm, [司憲府印]

박세당의 시호 문정(文貞)에 대한 사헌부의 서경 완의. 이 시기 장령 2원과 지평 1원이 합의하여 처리한 문서이다.

16. 박세당시호서경완의 朴世堂諡號署經完議

1723(景宗 3), 紙本墨書, 58×79.5㎝, [司諫院印]

1723년 박세당의 시호를 文節에서 文貞으로 개시할 때 작성한 사간원의 서경완의.

文貞에 대한 시주는 勤學好問曰文, 淸白守節曰貞이다. 署經 관행으로 보아 이 완의는 대사간·정언·헌납이 합좌하여 처리한 것이다.

17. 박세당처의령남씨추증고신

朴世堂妻宜寧南氏追贈告身

1700(肅宗 26), 紙本墨書, 74.2×91㎝, [施命之寶]

1700년 박세당의 전처 의령남씨를 貞夫人에서 貞敬夫人으로 추증하는 고신.

정경부인은 실직 2품 이상 官의 부인에게 내린 外命婦의 최고 품계였다. 당시 박세당이 종1품인 判中樞府事에 임명되면서 의령남씨도 정경부인에 추증된 것이다.

18. 박세당처정씨숙부인추증고신

朴世堂妻鄭氏淑夫人追贈告身

1680(肅宗 6), 紙本墨書, 67.6×91.5㎝

박세당의 처 광주정씨를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고신. 당시 박세당은 통정대부 수공청도관찰사 겸병마절도사 순찰사에 임명되므로써 법전에 따라 정씨에게는 정부인의 직첩이 내린 것이다. 정씨 부인은 박세당의 후처로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슬하에 아들 태한(泰翰)을 두었다.

19. 박필기혼서 朴弼基婚書

1695(肅宗 21), 紙本墨書, 66×73㎝

1695년 12월 24일 박세당이 장손 弼基(1681~1739)의 혼례시에 豊川任氏 집안에 보낸 납폐문서.

박필기는 任霽英의 딸과 혼인하였으니 문서상의 신부측 婚主는 임천영의 동생이다. 신랑측의 혼주가 박세당인 것은 그가 친조부인 점도 있지만 당시는 필기의 아버지 泰維가 사망하고 없었다.

혼례문서는 매우 정중한 글자였으므로 순부나 양식이 매우 까다로웠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외교문서와 같아 상대방에게는 존칭을 쓰는 반면, 자신에게는 겸칭을 쓰고, 상대방을 지칭할 때는 항상 尊照이었다. 혼주, 즉 발급자의 성명 위에는 반드시 本貫을, 성명 아래에는 「拜」자를 썼다. 관직의 유무나 고하를 막론하고 혼서에 관함을 쓰는 법은 없었다.

20. 박필기유서 朴弼基諭書

1732(英祖 8), 紙本墨書, 58.5×257㎝, [諭書之寶]

1732년 영조가 晉州牧使 朴弼基에게 내린 유서.

유서는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訓諭·命令書로 주로 觀察使·節度使 등의 방백이나 수령에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유서는 박필기의 治政을 치하하고 賞을 내리는 내용이다. 영조는 당시 경상감사 趙顯命의 장계를 통해 박필기가 軍布를 감각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賑恤에 노력하여 수령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 유서를 내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으로 말(馬) 1필을 하사한 것이다. 박필기는 西溪의 장손으로 용궁현감을 거쳐 錦山郡守를 지냈다.

학문과 문장에 능하여 『[illegible]』를 남겼다. 특히 그는 아버지 朴泰維를 이어 [illegible]의 대가로서 이름이 높았다.

21. 박필기금산군수고신 朴弼基錦山郡守告身

1737(英祖 13), 紙本墨書, 55×78.7cm, [施命之寶]

1737년 박필기를 금산군수에 임명하는 고신.

박필기는 박세당의 長孫으로 문과 출신은 아니었지만 숙종 말년부터 음직으로 출사하여 參奉, 直長, 主簿, 龍宮縣監, 錦山郡守 등을 역임했다. 참고로 박필기는 1732년 용궁현감 재직시에 선정을 베풀어 영조로부터 兒馬 1匹을 하사받았으며, 그러한 치적에 힘입어 司評·僉正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최종 관직인 금산군수에 임명된 것이다.

22. 박사심통덕랑고신 朴師心通德郎告身

1722(景宗 2), 紙本墨書, 51.5×75.2cm

통선랑 박사심(1703-1775)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고신. 조선시대 인사발령에 있어 4품 이상은 교지(敎旨)로, 그 이하는 교첩(敎牒)으로 임명하였다. 문반은 이조에서, 무반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였는데, 통덕랑은 정5품의 문반 품계이므로 이조에서 주관한 것이다. 박사심이 통덕랑에 임명된 것은 처부 원주목사 최창민(崔昌敏)의 자급 남승분을 대가(代加)받은 것이다.

23. 박사심이조참의추증고신

朴師心吏曹參議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101.5cm

통덕랑 박사심을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추증하는 고신.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인데, 손자 박종길(朴宗吉)이 가선대부 공조참판에 임명되면서 법전에 따라 추증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실직 2품 이상의 관료에게는 3대를 추증하는 제도가 있었다.

아버지는 본인과 동일한 품계, 조부는 아버지보다 한 자급 낮게, 증조부는 조부보다 한 자급 낮게 추증하였다.

24. 박헌원가선대부추증고신

朴獻源嘉善大夫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101.3cm

박헌원(1740-1808)을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하는 고신. 박헌원의 실직은 통훈대부 금산군수(錦山郡守)였으나 아들 박종길이 가선대부 공조참판에 오르면서 법전에 따라 아들과 동일한 품계로 추증된 것이다. 박헌원의 자는 예중(禮仲), 서계의 현손이다. 음직으로 출사하여 금산군수를 지냈다.

25. 박헌원처동래정씨정부인추증고신

朴獻源妻東萊鄭氏貞夫人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3×101cm

박헌원의 처 정씨를 숙인에서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고신. 정씨는 박헌원의 초취로 본관은 동래, 유학 만순의 딸이다. 처음에 박헌원이 통훈대부가 되면서 숙부인이 되었다가 아들 박종길의 현달로 인해 정부인에 추증된 것이다.

26. 박헌원처청주한씨정부인추증고신

朴獻源妻淸州韓氏貞夫人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3×101cm

박헌원의 처 한씨를 숙인에서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고신. 한씨는 박헌원의 삼취로 본관은 청주, 익유(益游) 딸이다. 박헌원이 통훈대부가 되면서 숙부인이 되었다가 아들 박종길의 현달로 인해 정부인에 추증된 것이다.

27. 박남원선공감가감역관차정첩

朴南源繕工監假監役官差定帖

1801(純祖 1), 紙本墨書, 52×71cm

이조에서 봉사랑 박남원(1760~1823)을 선공감의 가감역관에 차정하는 첩. 박남원은 서계의 8세 대한의 증손으로 자는 명유(明有)이다. 벼슬은 통훈대부 장악원정에 이르렀고, 후에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선공감은 토목과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로 관원이며, 가감역관은 선공감의 임시직으로 주로 문음(門蔭)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28. 박남원장악원정고신 朴南源掌樂院正告身

1823(純祖 23), 紙本墨書, 51.4×75cm

박남원을 통훈대부 장악원정에 임명하는 고신.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장악원정 실무를 주관하는 직책이었다. 조선시대 관제에서 당상관이 되기 위해서는 장악원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요직으로 인식되었다.

29. 박종길통정대부고신 朴宗吉通政大夫告身

1825(憲宗 1), 紙本墨書, 59×88cm

박종길(1783~1873)을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고신. 가자 사유에 따르면, 박종길은 순조 국상시에 국장도감의 도청으로 봉직한 공로로 인해 통정대부에 임명되었다. 국장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喪事)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魂殿 : 왕이나 왕비의 국상 뒤에 종묘에 배향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던 사당)에 반우(返虞 : 장사 지낸 뒤 神主를 집으로 모셔옴)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도청은 위원의 확정과 전체업무를 지휘하는 직책이었다.

30. 박종길홍패 朴宗吉紅牌

1827(純祖 27), 紙本墨書, 80.5×64㎝, [科擧之寶]

1827년 朴宗吉(1783~1873)이 문과 丙科 19人으로 합격하고 받은 홍패.

박종길은 박세당의 5세손으로 문과에 합격하여 공조판서를 지냈다. 박세당의 종통으로는 서계와 함께 가장 고관을 지낸 인물이다. 합격 당시 그의 관직이 6품직인 新寧縣監인 것으로 보아 이미 음직으로 출사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3品(通訓大夫) 이상의 현직의 관료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처럼 박종길은 환력도 화려했고, 위존하는 서계종택을 중수하는 등 위선사업에도 노력하였다.

31. 박종길강원도관찰사교서

朴宗吉江原道觀察使敎書

1846(憲宗 12), 紙本墨書, 112×119cm

박종길(1783~1873)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하고 선정을 당부하며 내린 교서. 조선시대의 관직은 본직과 겸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박종길의 본직은 강원도관찰사였으나 겸직으로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원주목사를 겸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를 임명·파견할 때에는 교서를 내려 선정을 당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방백(方伯)에 대한 예우 조처이기도 했다.

32. 박종길강원도관찰사유서

朴宗吉江原道觀察使諭書

1846(憲宗 12), 紙本墨書, 56.3×81cm

헌종이 박종길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하고 내린 유서. 유서는 왕의 명령서로 특히, 밀부 또는 신부를 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관문서의 하나였다. 박종길에게는 조선왕조에서 운영하던 40

여개의 밀부(密符) 중에서 제31부가 반사되었다. 관찰사는 행정은 물론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조정에서도 철저하게 시확·통제하였는데, 비상시에도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밀부와 부합해야만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다.

33. 박종길한성부우윤고신 朴宗吉漢城府右尹告身

1846(憲宗 12), 紙本墨書, 53.7×76cm, [施命之寶]

1846년 박종길(1783~1852)을 가선대부 한성부우윤에 임명하는 고신.

박종길은 박세당의 5세손으로 1827년 문과에 합격하여 호조좌랑, 형조정랑, 사헌부지평, 동지사(서장관), 홍문관교리·응교, 사헌부장령, 승지, 대사간, 병조참의, 공조참판 등의 요직을 역임하고 1846년 한성부우윤에 임명되었다. 한성부 우윤은 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직임인데, 위로 판윤과 좌윤이 있었다. 박종길은 박세당의 직계 자손 중에서는 가장 고관인 工曹參判을 지냈다. 사후에는 철종이 禮官을 보내 致祭할 정도로 관료로서의 치적이 크고 덕망도 높았다.

34. 박종길가의대부고신 朴宗吉嘉義大夫告身

1852(哲宗 3), 紙本墨書, 57×79.5cm

박종길을 가의대부에 임명하는 고신. 시종신의 아버지 중 나이 70 이상인 자에게 가자하라는 전교에 따라 가의대부에 임명된 것이다. 당시 아들 박승수는 행부호군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가의대부는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이다. 가의대부급에 해당하는 관직은 돈녕부(敦寧府)·의금부·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윤·우윤, 대사헌, 개성·광주·강화·수원 유수(留守), 홍문관·예문관(藝文館)·규장각의 제학(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좌·우유선(左右諭善), 8도관찰사, 부윤(府尹) 등이었다.

35. 박종길혼서 朴宗吉婚書

1801(純祖 1), 紙本墨書, 65.5×79.2cm

박종길과 연안이씨의 혼례시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낸 납폐문서. 작성자는 박종길의 아버지 박현원이고, 수급자는 연안이씨의 숙부 이나수(李洛秀)이다. 박종길은 이로수(李潞秀)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당시는 이로수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숙부가 혼주 역할을 대행한 것이다.

전통시대의 혼례 과정은 크게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초행(醮行)·전안(奠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남귀여가혼의 풍속에 따라 혼례는 신부집에서 이루어졌다. 납폐는 신부측에서 허혼하면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예백을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 예백함과 함께 납폐문서를 보냈다.

이 혼서를 통해서 박종길의 초혼 연령은 19세임을 알 수 있는데, 후일 연안이씨가 사망하자 박종길은 경주이씨 이집량의 딸과 재혼하였다.

36. 박종길사제문 朴宗吉賜祭文

1852(哲宗 3), 紙本墨書, 48.5×60.5cm

1852년 2월 19일 철종이 朴宗吉의 영전에 내린 제문.

왕이 내린 제문이므로 賜祭文이라고도 한다. 사제문은 朝廷 重臣의 사망시나 謚號를 내릴 때 함께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先正臣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賜祭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제문은 예관을 파견하여 치제하였는데, 박종길의 경우는 禮曹佐郎 李秉恒이 파

천되었다.

37. 박종시종사랑고신 朴宗蓍從仕郎告身

1807(純祖 7), 紙本墨書, 53.5×73.5cm

유학 박종시(1778~未詳)를 종사랑에 임명하는 고신. 아버지 신녕현감 박남원의 자급상승분을 대가받은 것이다. 종사랑은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이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典經)·정자(正字)·기사관·검열(檢閱)·학록(學錄)·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부봉사(副奉事)·재랑(齋郞)·훈도·사용(司勇)·수문장 등이 있었다. 박종시의 자는 [illegible], 서계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신녕현감 南源이다.

38. 박종망종사랑고신 朴宗望從仕郎告身

1827(純祖 27), 紙本墨書, 53×74cm

장사랑 박종망(1798~1852)을 종사랑에 임명하는 고신. 형 통훈대부 신녕현감 박종갑의 자급상승분을 대가받아 임명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가제도는 아들·손자·외손·형제 등 그 범위가 다양하였는데, 그 중 형제간의 대가 사례는 그리 흔치 않다. 박종망의 자는 [illegible], 서계의 5세손이며, 금산군수를 지낸 한원(漢源)의 3자이다.

39. 박승수홍패 朴昇壽紅牌

1845(憲宗 11), 紙本墨書, 95.5×73cm, 『科擧之寶』

1845년 박승수(1806~1873)가 문과 별과 제3인으로 합격하고 받은 홍패.

박승수는 박세당의 6세손으로 아버지는 종갑이다. 직계로 朴泰輔 → 朴弼正 → 朴師[illegible] → 朴[illegible] → 朴宗[illegible]에 이어 6번째의 문과 합격자가 되었으며, 벼슬은 이조참판을 지냈다. 그는 헌종~고종조의 소론 중진으로 활동했고, 장인 [illegible](: 1781~1852)은 [illegible]의 정통을 계승한 名儒였다.

40. 박승수홍문관부수찬고신

朴昇壽弘文館副修撰告身

1850(哲宗 1), 紙本墨書, 53×75.4cm

박승수를 통훈대부 홍문관부수찬에 임명하는 고신. 부수찬지제교는 본직이고,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 실록기주관이 의례 겸직되었다. 지제교는 왕명을 대찬하는 문서 교직이고, 실록기주관은 헌종 실록청의 기주관을 겸했음을 의미한다.

41. 박승수통정대부고신 朴昇壽通政大夫告身

1851(哲宗 2), 紙本墨書, 55.5×60.5cm

박승수를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고신. 가례도감(嘉禮都監)의 도청과 낭청 이상을 수행한 자에게 가자하라는 전교에 따라 승진 임명된 것이다. 가례도감은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혼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로 국혼의 의논이 확정되면 설치되었고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폐지되었다. 도청은 가례도감·책례도감(冊禮都監)·존호도감(尊號都監) 등 국가의 중요 의례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의 관직이다. 품계는 3~5품관으로서 차출되었는데, 통상 홍문관의 응교·교리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도감의 실무책임자로서 행사의 준비와 시행을 총괄하는 구실을 담당하였고, 특히 문서(文書)의 일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5·6품의 낭청(郎廳) 6인이 있었다.

42. 박승수우영장차정전령 朴昇壽右營將差定傳令

1857(哲宗 7), 紙本墨書, 63×68cm

황해감사가 서산부사 박승수(1806~1873)를 우

영장에 차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전령.

전령은 조선시대 관부에서 관하(管下)의 관리·면임(面任)·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여기서의 우영장은 영장(營將) 또는 진장(鎭將)의 하나로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소속되어 지방 군대를 통솔하는 직책이었다.

43. 박승수승정원동부승지고신

朴昇壽承政院同副承旨告身

1865(高宗 2), 紙本墨書, 55×75.3㎝, [施命之寶]

1865년 박승수(1806~1873)를 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에 임명하는 고신.

박승수는 박세당의 6세손으로 1845년 문과에 합격하여 내외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1865년 승정원 우승지에 임명되었다. 承旨은 이조참의이다. 아버지 朴宗吉에 이어 양대로 문과에 합격하며 당상관을 지냄으로써 서계가문의 중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44. 박승수혼서 朴昇壽婚書

1820(純祖 20), 紙本墨書, 63×80cm

박승수와 창녕성씨의 혼례시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낸 납폐문서. 작성자는 박승수의 아버지 박종길이고, 수급자는 창녕성씨의 아버지 성근묵(成近默)이다. 성수침(成守琛)·성혼(成渾)을 배출한 명가와 혼인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예에 따라 납폐를 행한다는 뜻이 유려한 문장으로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박승수의 처부 성근묵은 성혼의 후손으로 소론의 학문적 구심점으로 인식된 명유였다. 서계가문 역시 소론의 명가로 창녕성씨와의 통혼은 당내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45. 박승수문과합격시권 朴昇壽文科合格試券

1845(憲宗 11), 紙本墨書, 60×246.5cm

박승수가 별시문과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 시제는 언필칭요순(言必稱堯舜)이란 제하의 부(賦)였다. 박승수는 이 시험에서 병과 제3인으로 합격하였다.

46. 박제경사헌부감찰고신 朴齊敬司憲府監察告身

1894(高宗 31), 紙本墨書, 53.2×75㎝, [施命之寶]

1894년 박제경(1831~1904)을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는 고신.

박제경은 박세당의 7세손이다. 생원에 입격한 뒤 문음으로 출사하여 혜민서별제, 사복시주부, 송화현감 등을 거쳐 1894년 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다. 1902년에는 고종이 기로소에 들어갈 때 조관 4품 이상으로 나이가 70 이상인 자에게 가자하라는 특명에 따라 通政大夫에 올랐다.

47. 박제경시권 朴齊敬試券

1864(高宗 1), 紙本墨書, 71.6×152㎝

1864년 朴齊敬이 생원시에 입격할 때 작성한 시권.

48. 박제경서부도사차정첩 朴齊敬西部都事差定帖

1869(高宗 6), 紙本墨書, 55×73cm

이조에서 진사 박제경(1831-1904)을 서부도사에 차정하는 첩.

서부는 한성부의 오부 중 하나이고, 도사는 실무를 주관하는 관직이다. 박제경의 자는 용긴, 서계의 7세손으로 아버지는 이조참판 승수이다. 1864년(고종 1)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

고, 통정대부 의령군수에 이르렀다.

49. 박제경통정대부칙명 朴齊敬通政大夫勅命

1902(光武 6), 紙本墨書, 40.2×58.5cm

박제경을 4품 통훈대부에서 정3품 통정대부로 승진 임명하는 칙명.

칙명은 고신과 같은 성격이나 고종이 광무개혁으로 황제에 등극하면서 고신에서 칙명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연도 왼쪽에 부기된 사유에 따르면, 고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조관 4품 이상으로서 나이가 78세 된 자를 가자하라는 칙명에 따라 승진된 것이다.

50. 박인양시권 朴仁陽試券

1879(高宗16), 紙本墨書, 67×165.5cm

박인양(1853~1880)이 25세 때 과거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 시제는 차공지지(此公之志)라는 제하의 부(賦)였다. 박인양은 서계의 8세손으로 자는 공미(孔美)이다.

51. 서계유묵 西溪遺墨

嘉宗年間, 帖, 紙本墨書, 36×25cm, 朴範緖 所藏.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西溪 朴世堂(1629~1703)의 詩文·簡札 등을 수록한 遺墨帖.

구성은 上·中·下 3帖이며, 영조연간 후손에 의해 成帖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계는 書家로서 명성을 날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생을 學人으로 사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著述과 詩文을 남기게 되었고, 그 중 일부가 유묵집으로 꾸며져 一家의 珍藏으로 世傳되어 온 것이다.

현재 서계종택이나 서계 후손가에는 「先蹟」·「先蹟」·「西溪詩筆」·「西溪簡牘」·「溪上簡牘」 등 다양한 명칭의 서계 유묵집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이 「西溪遺墨」은 필첩으로서의 형태적 완결성과 내용적 다양성이 단연 돋보이는 귀중본으로서 소장자는 서계의 10세손인 朴範緖 선생이다.

「西溪遺墨」은 (上)·(中)·(下) 중 (上)에는 詩文이, (中)·(下)에는 書簡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형태적으로는 詩文과 書簡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각 첩의 특성을 살리고, 書簡의 경우는 年月順으로 수록하여 열람의 편의를 고려한 성첩자의 치밀한 구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詩文과 書簡, 書體에 있어서는 楷行草書, 字大에 있어서는 大中小字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西溪遺墨의 가장 완벽한 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帖의 내용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西溪遺墨』(上)

詩文을 중심으로 꾸며진 (上)帖에서는 서계의 大·中·小字 및 楷·行·草書體를 두루 감상할 수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서계의 어떤 필첩보다 서체와 내용이 다채롭고, 粧帖 상태 역시 매우 우수하여 일가의 珍藏文獻임을 실감케 한다.

(上)帖에는 주로 중국 名士들의 시문이 초록되어 있는데, 이들 시문의 내용에서 성첩자의 편집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즉 성첩자는 서계의 많은 글씨 중에서도 자연에 대한 사랑과 혼탁한 세상과 멀어지고자 했던 서계 본인의 탈속한 심정이 반영된 내용의 글씨들만 엄선하여 여기에 수록한 것이다.

평소 서계가 隱者의 전형으로 여기며 동경해 마지 않았던 陶潛明의 글이나 호방한 隱士의 심경을 담은 李白·呂岩 등의 唐詩들이 상당수 수록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西溪遺墨」(上)에 수록된 유묵의 현황

순번	작성연월일	내 용
1	未詳	〈靑肖泉石〉 4字
2	未詳	〈碧山淸流春風秋月〉 8字
3	未詳	〈滿袖淸風〉 4字
4	丁丑五月(1697:肅宗 23)	李正臣의 過嶺詩를 차운한 7言絶句 原題:次李邦彦過嶺詩韻
5	丁丑五月(1697:肅宗 23)	李正臣의 觀日出詩를 차운한 7言絶句 原題:次觀日出韻
6	己卯孟春(1699:肅宗 25)	李正臣에게 써 준 陶淵明의 歸去來辭 全篇
7	未詳	作者 未詳의 古詩
8	未詳	당나라 詩人 呂岩의 敎童
9	未詳	당나라 邹參진의 漁父
10	未詳	당나라 詩人 靈澈의 7言絶句
11	未詳	작자 미상의 唐詩 5言絶句
12	未詳	당나라 詩人 李白의 7言絶句 原題:山中答俗人
13	未詳	당나라 문인 徐文長의 5言律詩 原題:仲夫子廟
14	丙子正月八日(1696:肅宗 22)	李正臣에게 써 준 陶淵明의 五柳先生傳의 全篇

맨 앞에 수록된 大字 글씨인 「靑肖泉石」, 「碧山淸流春風秋月」, 「滿袖淸風」은 서계의 煙霞癖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씨이다. 사실 서계가 석천동으로 들어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자연에 대한 사랑이었고, 石泉經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무렵에는 이른바 「永平別業」의 조성 계획까지 세운 점에서 그가 얼마나 자연에 대한 애착이 깊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1688년에는 金剛山 유람의 소회를 담은 「北征錄」을 짓고, 생질 南鶴鳴의 부탁으로 「風遊錄」의 序文을 지은 사실에서도 서계가 당대 글자의 煙霞癖으로 정평이 나 있었음을 말해 준다. 楷書에 行書의 필치를 가미한 이 글씨는 서계의 몇 안 되는 大字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한편 (上)帖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삼당수의 글씨가 門人 李正臣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소개한 大字 다음에 수록된 「次李邦彦過嶺詩韻」(7言絶句)과 「次觀日出韻」(7言絶句)은 1697년(肅宗 23) 5월 서계가 門人 李正臣의 過嶺詩와 觀日出詩을 차운한 것이다. 이 시는 「石泉錄(下)」·(「西溪集」 卷4)에도 「次李生正臣過嶺詩

詞」과 「又次韻自悼詞」이란 題目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잠시 李正臣의 가계와 행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후술하겠지만 『西溪遺墨』(上)·(中)·(下)는 사실상 서계와 이정신 사이의 師友往復帖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上)帖에 수록된 詩 2首와 陶淵明의 글 2편은 물론 (中)·(下)帖에 수록된 간찰의 대부분도 이정신에게 보낸 것이다. 『西溪遺墨』을 이해함에 있어 이정신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李正臣(1660~1727)의 字는 邦彦, 號는 松壑堂, 本貫은 延安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벌을 자랑하던 연안 이씨 館洞派의 일원으로서 직계 가계는 李廷龜(月沙) → 李明漢(白洲) → 李萬相(琴谷) → 李鳳朝(觀庵) → 李正臣(松壑堂)으로 이어진다. 이정구의 후손들이 주로 노론으로 활동한 것과는 달리 이정신의 집안은 소론에 속해 있었다.

그의 가계가 소론이 된 것은 조부 李萬相(1622~1645)의 행적과 관련이 깊었다. 더욱이 이명한의 三子로 태어난 이만상은 1642년(仁祖 20) 진사시에 합격한 뒤로는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학행과 문장을 바탕으로 당대의 명사·석학들과 두루 교유하였다. 특히 서계와 친교가 두터웠던 그는 朴世堂·徐文重과 함께 자손 대대로 친목을 도모하고 세의를 다지기 위해 「世講契」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 세강계는 후일 근기지역 소론들의 친목계로 확립되기에 이르는데, 좌목에는 반남박씨 「西溪家門」, 달성서씨 「徐文重家門」, 연안이씨 「李萬相家門」, 전주이씨 「李敦?·李敦?家門」, 경주김씨 「金柱臣家門」 등 소론 세가의 자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정신은 서계문하에 입문하게 되었고, 조부 이래의 가풍에 따라 소론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名門 관동세가에서 성장한 이정신은 1681년 약관의 나이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1695년에는 유서로 입사하여 광릉·장릉참봉을 지냈다. 본격적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것은 1699년(肅宗 25) 문과에 합격하면서였다. 이후 그는 정언·수찬·응교·장령·헌납 등 삼사의 청요직을 두루 지냈고, 경종 연간에는 호조참판·사은부사·도승지·병조참판 및 경기·함경도관찰사 등 내외의 요직을 역임하며 소론의 중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이른바 신임사화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유배되는 곡절이 있었고, 이로부터 3년 뒤인 1727년 6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정신은 李德壽·崔昌大·李栻·金柱臣·趙泰億 등 서계문하의 쟁쟁한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고, 특히 서예에 조예가 깊어 당대에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서계가 그에게 많은 글씨를 써 주고, 書信을 통해 고급의 法書를 품평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정신의 서예에 대한 남다른 기호에 바탕하는 것이다. 이정신의 대표작으로는 「仁祖大王長陵碑陰記」(李觀命 撰)의 篆記와 예안 소재 광산김씨의 정사인 「雲巖精舍」(1700年 作) 현액 글씨가 있다.

이 외에도 그는 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자신의 당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역대 명서가들의 필적을 모은 『海東名蹟』(2책)을 편집함으로써 한국 서예사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바로 이러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스승 서계가 자신에게 증여한 詩文·簡札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보관하게 되었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西溪遺墨』으로 꾸며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위의 두 차운시 바로 뒤에 있는 「贈李秀才」와 맨 말미에 수록된 「五柳先生傳」은 晉 나 陶淵明의 글로 이 역시 본인 李正臣에게 贈부한

것이다. 서계가 歸去來辭를 써 준 1699년(肅宗 25)은 이정신이 문과에 합격하던 해로서 당시 李正臣의 나이는 40세였다. 서계는 왜 막 문과에 합격한 제자에게 하필이면 仕路의 다단함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도연명의 탈속한 심경이 담겨진 귀거래사를 써 준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서계의 인생 여정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서계는 문과에 장원하여 한동안 모든 문신들이 선망하던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현종연간 한때 조정을 술렁이게 했던 公義·私議論爭의 와중에서 이른바 삼간오사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점차 사환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1668년에는 일체의 관직을 마다한 채 수락산으로 들어와 환사를 자처했던 것이다. 그 때 서계의 나이가 40세였다.

결국 서계는 불혹의 나이에 이제 막 사환을 시작하는 제자에게 歸去來辭를 써 줌으로써 벼슬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귀거래사는 스승이 애제자에게 내린 誡辭와 같은 것이었다. 행초체로 쓴 이 글씨는 70세를 넘긴 老儒의 원숙한 격조가 돋보이는 명품이다. 말미의 「五柳先生傳」은 이보다 3년 전인 1696년 정월 8일에 西溪의 草堂에서 李正臣에게 써 준 것이다. 이 역시 도연명처럼 영리를 도모하지 말고 초연하게 살 것을 당부한 글이라는 점에서 내용상 歸去來辭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 두 편의 글 중간 중간에 몇몇 誤字가 섞여 있어 아쉬움을 남기는데, 이 중에는 수정한 것도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도 있다.

이외 다른 시문들의 대부분도 野人·處士이고 싶었던 서계의 심사를 대변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당나라 詩人 宋客의 5言絶句 「清晝猶自渴 乾我富壁 城市春露幽 還山弄明月」와 李白의 山中答俗人 「問余何意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은 서계 草書의 대표작으로 자못 필치가 활달하여 눈길을 끈다. 「山中答俗人」 뒤에 있는 5言律詩는 淸나라 학자 徐文駒의 『仲夫子廟』를 초록한 것인데, 山東省 曲阜에 있는 孔子의 사당을 참배하고 지은 詩다.

『西溪遺墨』(中)·(下)

詩文으로 구성된 『西溪遺墨』(上)과는 달리 (中)·(下) 帖은 西溪의 書簡을 모아 꾸민 전형적인 簡札帖이다. (中)帖에는 29점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28점은 문인 李正臣에게, 나머지 1점은 처남 南九萬(藥泉)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下)帖에 수록된 25점의 글씨(簡札·題跋) 중 19점은 西溪의 간찰이고, 나머지 6점은 차자 朴泰輔(定齋)의 간찰이다. (下)帖 표지 우측 상단에 「白石兄弟帖」이라고 附記한 것도 이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부기와는 달리 장자 朴泰維(白石)의 글씨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서계의 간찰은 시기적으로 1679~1702년까지 23년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이때 서계는 당대 조선의 학계가 주목하는 名儒로 성장하여 양주 수락산 石泉洞에서 학문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의 대표적 저술인 『思辨錄』과 『穡經』이 탈고되고, 기호일대의 준재들이 모여들어 「西溪門下」를 형성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西溪遺墨」(中)·(下) 帖에 수록된 간찰의 대부분은 문인 李正臣에게 보낸 것이다. (中)帖에 수록된 28점과 (下)帖에 수록된 18점을 합하면 모두 46점이 수록된 셈이다. 다시 말해 「西溪遺墨」(中)·(下)帖은 이정신에게 보낸 간찰을 모아 꾸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西溪遺墨」(上)에 수록된 시문들의 상당수가 이정신에게 증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본

「西溪遺墨」은 이장신 집안에서 서계의 유묵을 집첩하여 서계 본손에게 되돌려 준 것이거나 아니면 서계의 후손이 이장신 집안에 소장된 선대의 필적을 회수하여 粧帖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장첩의 경위를 자세하게 알 길은 없지만 장첩의 형태와 양식이 현재 서계종택 및 서계 후손가에 소장된 서계 관련 다른 簡帖類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帖에는 李正臣에게 보낸 11점과 南九萬에게 보낸 1점이 수록되어 있다. 시기적 범위는 1679년에서 1696년까지 약 20년 동안이다. 간찰의 수신자를 의미하는 李進士・李上舍・李・楙은 李正臣의 관칭인데, 이정신은 1681년에 進士試에 입격하였고, 1695년에 蔭職 참봉이 되었으며, 1699년 문과에 합격하여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이들 간찰은 그 일부가 『西溪集』(卷19) 「簡牘」에 수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문집에서는 빠져 있는 유일본들이다.

(中)帖 맨 마지막의 領議政에게 보낸 간찰은 수신자를 南九萬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편지는 『西溪集』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서계가 교유한 인물 중에서 領議政을 지낸 사람은 南九萬・崔錫鼎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남구만은 서계의 손아래 처남으로 평소 친교가 막역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편지의 수신자인 영의정은 남구만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西溪遺墨】(中)에 수록된 簡札 현황

순번	수신	작성연월일	비 고
1	未詳(李正臣)	己未七月初八日(1679:肅宗 5)	안부를 묻고 節扇을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함
2	李進士	乙丑正月初七日(1685:肅宗 11)	안부를 묻고 자신과 아들 泰輔의 근황을 전함
3	李上舍	乙丑七月初二日(1685:肅宗 11)	안부를 묻고 병마에 찌든 근황을 전함
4	李進士	丙寅六月初五日(1686:肅宗 12)	장자 泰維를 安葬하고 난 뒤 아버지로서의 통절한 심사를 전함
5	李進士	丁卯二月二十六日(1687:肅宗 13)	장자 泰維의 일주기에 즈음하여 비통한 심사를 전함
6	李進士	丁卯四月二十日(1687:肅宗 13)	안부를 묻고 泰維의 기일을 보낸 뒤의 심사를 전함
7	李進士	戊辰七月晦日(1688:肅宗 14)	자식의 상을 당한 상대를 위로함
8	李進士	戊辰九月初四日(1688:肅宗 14)	北關을 거쳐 金剛山을 유람한 소회를 전함
9	李進士	己巳二月晦日(1689:肅宗 15)	衰病에 지친 근황을 전하고 음식을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함
10	李進士	己巳閏三月十七日(1689:肅宗 15)	안부를 전하고 相面하기를 간절히 바람
11	李進士	己巳四月十一日(1689:肅宗 15)	상대의 王大夫人의 병환을 걱정하고 해산물을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함
12	李進士	己巳六月初五日(1689:肅宗 15)	상대의 慰問에 사례하고 근황을 전함

순번	수신	작성연월일	비 고
13	李進士	己巳八月初五日(1689:肅宗 15)	안부를 묻고 해산물을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함
14	李進士	未 詳	상대의 왕대부인의 병환을 걱정하고 근황을 전함
15	李進士	庚午二月卄五日(1690:肅宗 16)	상대의 慘慽를 위문하고 李甥의 瘧病에 따른 고충을 전함
16	李進士	辛未八月卄三日(1691:肅宗 17)	借讀한 『儀禮』의 반납이 늦어진 것을 사과하고 근황을 전함
17	李進士	辛未十二月十二日(1691:肅宗 17)	李甥의 瘧病 치료를 위해 藥材를 부탁함
18	李進士	壬申十二月十三日(1692:肅宗 18)	안부를 묻고 枉臨해 줄 것을 부탁함
19	李參奉	乙亥七月卄七日(1695:肅宗 21)	안부를 묻고 복분자와 산복숭아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함
20	未詳	乙亥八月十五日(1695:肅宗 21)	안부를 묻고 山果를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함
21	李參奉	乙亥九月初四日(1695:肅宗 21)	詩書 관련 책자를 빌려준 것에 사례하고 重陽日會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함
22	李參奉	乙亥十一月五日(1695:肅宗 21)	상대 아버지의 환난을 걱정하고 자신의 근황을 전함
23	李參奉	乙亥十二月十七日(1695:肅宗 21)	臨政의 득실을 논하고 왕림해 줄 것을 당부함
24	李參奉	丙子正月初五日(1696:肅宗 22)	野史의 차용을 논의하고 손자 弼基의 혼례 등 자신의 근황을 전함
25	李參奉	同 日(1696:肅宗 22)	相面의 기회가 허사가 되었음을 아쉬워하고 근황을 전함
26	李參奉	丙子正月卄八日(1696:肅宗 22)	粉葛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해동이 되면 우량한 것을 다시 구해 줄 것을 부탁함
27	李參奉	丙子六月十六日(1696:肅宗 22)	山藥을 보내준 것에 사례하고 牛馬의 꼴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함
28	李參奉	丙子九月十三日(1696:肅宗 22)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함
29	南議政 (南九萬)	未 詳	조정을 떠나려 하는 상대에게 出處의 신중함을 당부함

한편 (下)帖 역시 대부분 李正臣에게 보낸 간찰로 채워져 있다. 1699년(肅宗 25) 4월 19일에 보낸 간찰(No.10)에서 수신인을 李先達로 표기한 것은 이때 이정신이 庭試文科에서 병과 제4인으로 합격함으로써 李參奉에서 李先達로 칭호가 바뀐 것이다. 일반적으로 先達은 무과 합격자를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문과합격자도 선달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후부터는 李注書·文學·持平·正言 등 이정신의 공식 관함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는 이정신의 실

게 환력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15번~18번까지 4장의 간찰은 내용상 慰狀에 해당한다. 이정신은 1701년 3월 25일에 부친 李鳳翊의 喪을, 1702년 7월 11일에 모친 晉山柳氏의 상을 당했다. 4장의 위장은 연이어 両親喪을 당한 李正臣을 위로하는 내용이다.

【西溪遺墨】(下)에 수록된 簡札의 현황

순번	수신	작성연월일	비 고
1	李參奉	丙子臘日(1696:肅宗 22)	이정신에게서 각 종 書畵帖을 차람한 뒤 趙孟頫·文徵明 등의 書品을 논하고 孟光의 畵帖은 좀 더 차람할 뜻을 전함.
2	李參奉	丁丑十二月廿一日(1697:肅宗 23)	상대 稼庭의 峩眉 신설을 경하하고 추신으로 부탁한 表稿를 定訂하여 환송하되 遣作한 맞에 원숙하지 못함을 토로함
3	李參奉	同 晩	아들의 병환을 걱정하고 放糧 및 서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상의하고 당부함
4	李參奉	同 早	아들의 병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부탁하고 각종 처방을 상의함
5	李參奉	戊寅三月廿三日(1698:肅宗 24)	안부를 묻고 참마(薯蕷)와 숯(炭)을 보내줄 것을 부탁함
6	李參奉	戊寅十二月十六日(1698:肅宗 24)	士友·門人들의 흉사와 전염병에 따른 고충을 전하고 炭石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함
7	李參奉	己卯正月廿五日(1699:肅宗 25)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함
8	李參奉	己卯二月五日(1699:肅宗 25)	안부를 묻고 자신의 病情을 전함
9	李參奉	己卯三月晦日(1699:肅宗 25)	부채(節扇)을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숯(炭)을 보내줄 것을 부탁함
10	李光達	己卯四月十九日(1699:肅宗 25)	상대의 문과 합격을 축하하고 병환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致賀하지 못함을 아쉬워 함
11	李正臣	己卯八月十九日(1699:肅宗 25)	紅柿를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하고 士友間의 喪葬에 왕림해 줄 것을 당부함(西溪의 친필이 아님)
12	李正臣	己卯十二月二十五日(1699:肅宗 25)	음식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士友·門人들의 길흉사를 전함(西溪의 친필이 아님)

순번	수신	작성연월일	비 고
13	李文學	庚辰五月廿日(1700:肅宗 26)	음식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왕립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함
14	李持平	辛巳正月初四日(1701:肅宗 27)	松子와 蜜甁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하고 병환에 시달리는 근황을 전함
15	李正言	壬午七月二十日(1702:肅宗 28)	母喪(豊山 洪氏)을 당한 상대를 위로하는 글
16	李正言	辛巳七月七日(1701:肅宗 27)	父親喪(李鳳朝)을 당한 상대를 위로하고 종이(休紙)를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함(西溪의 친필이 아님)
17	李持平	壬午元月十四日(1702:肅宗 28)	복중에 있는 상대를 위로함에 아울러 상대 조모의 병환을 우려하고 橘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함(西溪의 친필이 아님)
18	李正言	壬午八月二十一日(1702:肅宗 28)	상대 先妣의 葬禮를 묻고 감(柿)을 보내준 것에 대해 사례함
19	未詳	未 詳	延安李氏 臣字 항렬의 人名錄
20	李進士(伯翼)	戊辰六月廿一日(1688:肅宗 14)	西溪影幀의 제작에 따른 제반 절차를 논의함
21	李進士	戊辰七月初六日(1688:肅宗 14)	-
22	李進士	卽 日	-
23	李進士	卽 日	안부를 묻고 科擧 日程과 試官으로 참여 여부에 대해 얘기함
24	李進士	戊辰七月二十六日(1688:肅宗 14)	西溪影幀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함
25	未詳(政丞)	丙寅六月初七日(1686:肅宗 12)	안부를 묻고 부채(節扇)를 선물한 것에 대해 사례함

19번 글씨는 서계의 필적이기는 하나 簡札도 慰狀도 아닌 일종의 人名錄이다. 여기에는 敬臣·正臣 등 31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延安李氏 月沙 李廷龜의 玄孫에 해당하는 '臣'字 항렬의 인사들로 李正臣과는 三從 범위 내에 있다. 이 중에는 延安李氏族譜(館洞派譜)에서 확인되는 인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實名이기보다는 臣字 항렬에서 釋名할 수 있는 좋은 이름들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下)帖에 수록된 西溪 簡札 19점 중 4점은 서계의 親筆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필한 것인데, 己卯八月十九日(No.11), 己卯十二月二十五日(No.12), 辛巳七月七日(No.16), 壬午元月十四日(No.17)에 보낸 簡札·慰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서계의 말년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부득이 가족 중 누군가가 대필하게 된 것이다. 대필자는 서계의 두 아들 泰維·泰輔를 제외한 泰翰(3子), 弼基(長孫), 李濂(사위)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하 6점의 간찰은 모두 박태보의 글씨인데,

수신인은 미상이다. 그마나 20-24번 간찰의 수신자는 字가 伯翼인 李進士임을 알 수 있으나 마지막의 간찰은 정승 반열에 있는 고관으로만 추정될 뿐 정확한 인적 사항은 미상이다. 이처럼 수신자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伯翼(伯益)에게 보낸 간찰은 西溪集續의 제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주목을 끈다. 서계영정은 1600년 경에 평양 출신의 화가 조세걸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걸은 서계와의 친분관계와 아들 박태보의 적극적인 주선을 통해 서계영정을 그리게 되었는데, 「西溪集」, 「定齋集」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산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어디까지나 2차 자료로서 조세걸을 서계영정의 화자로 확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본 서첩에 수록된 5점의 박태보 간찰에는 畵師의 물색과 섭외, 비단·아교·물감·종이 등 부대 장비의 마련, 채색·목식의 형태와 양식 등 영정 제작에 따른 제반 절차와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서계영정의 작자 확정은 물론 조선후기 초상화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박태보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명서가의 한 사람이었던만큼 이 간찰들은 서예사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태보 간찰의 수신자인 伯翼(字)이란 인물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사마방목을 확인한 결과 숙종 연간에 활동한 인물 중 字가 伯翼이고 진사시에 입격한 인물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1688년 7월 26일에 보낸 박태보의 5번째 편지에는 伯翼이 伯益으로 표기되어 있어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伯益란 字를 가진 인물 중에서 유념할 사람은 1683년(肅宗 9)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한 李昌謙이다.

물론 이창겸 역시 생년이 생년(1645년생), 본관(平昌), 아버지의 성명(李時禪)과 관직(府使) 외에는 더 이상의 인적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거주지가 평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사 조세걸이 바로 평양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박태보는 조세걸과 동향이고 통교가 용이했던 이창겸에게 서한을 보내 화사의 섭외 등 영정제작에 따른 제반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관련 연구자의 세밀한 검증이 절실히 요구된다.

52. 선독 先牘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6×22.5cm, 朴範緖 所藏.

朴世堂의 간찰첩.

박세당의 간찰 중 주로 아들에게 보낸 것을 성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첩의 후반부가 탈락되어 현재는 장자 泰維에게 보낸 간찰 3점만 남아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전반부는 장자 泰維, 후반부는 차자 태보에게 보낸 간찰을 수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첩의 형태와 양식이 서계유국·선적 등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손자 마필거가 조부의 간독을 모아 성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태유의 졸년이 1686년이므로 이 간독들은 대체로 서계의 나이 40대인 1680년대에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노년의 글씨와는 달리 필치가 자못 활달해 보인다. 간찰의 내용은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安信類가 주종을 이룬다.

53. 선조유필 先廻遺筆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8×33cm, 朴範緖 所藏.

朴世堂의 필첩으로 詩稿·輓詞 등 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첩자와 성첩 시기는 미상이다.

여기에 수록된 서계유묵은 작품성을 고려한 글씨라기보다는 대부분 시고의 草本들이다. 따라서 필첩으로서의 정연한 맛은 덜하지만 필치에 꾸밈이 없어 자연스러움은 오히려 배가되어 있다. 수록된 시고는 크게 知舊·門人에게 보낸 贈詩와 士友의 죽음을 애도하는 輓詩가 중심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謫居 중인 門人 李命世에게 증시한 「寄呈李注書天保謫居」와 승려와의 학문 토론의 사회가 담긴 「僧顯純問道有朝聞夕死與一貫之異且說云云輔以詩答之感而作此」라는 제목의 詩가 가장 눈길을 끈다.

李命世는 전주이씨 출신으로 西溪門下의 高弟 중 한 사람이다. 1687년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1697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注書에 재직하던 1701년(肅宗 27) 소론의 영수 南九萬과 함께 禧嬪 張氏의 사사를 반대하다 國母(仁顯王后)에 대한 불경죄에 걸려 극변에 유배되었다. 서계의 贈詩는 곧 正論을 고수하다 유배된 제자의 기절을 높이 평가하고 謫居의 고초를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로도 서계는 적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안부를 전할 정도로 이명세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초고라 그런지 중간 중간에 수정·가필한 흔적이 있다.

한편 두번째 詩稿는 승려 顯純이 西溪를 방문하여 『論語』의 구절인 「朝聞道夕死可矣」와 「吾道一以貫之」의 모순성에 대해 질문하자 차자 朴泰輔가 시를 지어 답하였고, 서계 역시 여기에 감응되는 것이 있어 이 詩를 지은 것이다. 顯純의 인적 사항은 미상이나 금강산 인근에 소재한 사찰의 승려로 추정된다. 1688년 서계는 조부 朴東善과 아버지 朴炡의 迎諡禮에 참여하기 위해 北關巡營으로 간 바 있었고, 回路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당시의 詩稿를 수록한 것이 「後北征錄」(『西溪集』 卷3)인데, 이 시고 역시 「後北征錄」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지은 연도는 1688년이 확실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顯純은 금강산 某處의 승려임이 분명한 것 같다.

54. 가장유묵 家藏遺墨

肅宗年間(1695年頃), 帖(36面), 紙本墨書, 21.5×35㎝.
朴範鵬 所藏

朴東善·朴世堅·朴泰尙·朴泰維·朴泰輔·朴泰翰·朴弼遠 등 반남박씨 西溪一門의 遺墨帖.

성첩자와 성첩 시기는 미상이나 영조·정조연간 朴泰翰의 자손이 성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동선은 서계의 조부이고, 박세견은 서계의 중형이며, 박태유·태보·태한은 서계의 아들이다. 수록된 유묵은 시고·간찰·祭文·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家藏遺墨에 수록된 遺墨의 현황〉

작 성 자	연 대	유묵종류	비 고
朴東善(1562~1640)	未詳	簡札	兵曹參議宅에 보낸 安信
朴世堅(1619~1683)	1666(顯宗 7)	詩稿	「遙和舍弟韻」
朴泰尙(1636~1696)	1695(肅宗 21)	簡札	叔父(西溪)에게 보낸 安信
朴泰維(1648~1686)	未詳	簡札	아버지(西溪)에게 올린 安信
朴泰輔(1654~1689)	1687(肅宗 13)	簡札	아버지(西溪)에게 올린 安信
朴泰翰(1673~1746)	10月 17日	簡札	조카(朴弼遠)에게 보낸 安信

작 성 자	연 대	유묵종류	비 고
朴泰翰(1673~1746)	7月 14日	簡札	조카(朴弼基)에게 보낸 答信
	2月 23日	簡札	조카(朴弼基)에게 보낸 答信
	12月 20日	簡札	조카(朴弼基)에게 보낸 答信
	12月 27日	簡札	조카(朴弼基)에게 보낸 答信
	1710(肅宗 36)	簡札	조카(朴弼基)에게 보낸 答信
	1712(肅宗 38)	簡札	아들(朴弼遜)에게 보낸 答信
	13日	簡札	아들(朴弼遜)에게 보낸 答信
	1708(肅宗 34)	呈文	朝廷에 올린 呈文 草本
朴弼遜(1691~1763)	1720(肅宗 46)	祭文	백숙모 海州鄭氏의 靈筵에 올린 祭文

西溪의 유묵은 이미 별도의 첩으로 제시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 것 같지만 朴世堂의 유묵이 수록되지 않아 아쉽다. 현재 서계종택 또는 서계후손가 소장 유묵류의 시기적 상한은 서계 代인데, 여기에는 서계의 조부 朴東善의 간찰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문헌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수록된 많은 글씨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글씨는 역시 박태보의 간찰이다. 둘 다 아버지 서계에게 올린 이 간찰은 비록 서간문이기는 하지만 당대 명필의 필치를 감상할 수 있는 명품이며, 지면의 활용 또한 매우 돋보인다. 박태한 간찰의 상당수는 조카 박필기에게 보낸 것인데, 당시 박필기는 鐵山郡守에 재직 중이었다. 서계가문은 1686년 박태유가 사망하고, 1689년 박태보마저 정쟁에 희생되면서 수난이 가중되었고, 1703년 서계마저 타계함으로써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一家의 家事를 주관한 인물이 바로 막내아들 박태한과 손자 박필기였다. 박태한의 편지가 숙질간에 가사를 논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맨 마지막에 수록된 박필손의 유묵은 1720년 12월 15일 백모 해주정씨의 소상시 祭文이다. 해주정씨는 朴泰維의 後配夫人으로 슬하에 弼基·弼禛 두 아들을 두었다.

55. 서계잡문 西溪雜文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6.5×27.5cm

박세당 친필 詩文의 초본. 묘지명·묘갈명·시장·제문·교서가 중심을 이룬다. 이 글의 대부분은 『서계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친필 초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56. 서계잡록 西溪雜錄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6.5×26cm

박세당 친필의 잡록. 전반부는 학술·의학·농업 등에 관한 초록집이고, 중반부는 1664년(현종 5) 황해도 암행어사 수행시의 활동상을 적은 『(해서수행일기)海西隨行日記』가 필사되어 있다. 이 일기는 암행어사의 노정과 업무수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말미에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는 울릉도의 연혁, 풍속, 토산, 자연환경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일부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으로 표류했다가 1600년 경 해선(海船)을 타고 울릉도를 탐방한 경험이 있는 어느 승려로부터 들은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해안의 환경, 초목의 서식상태, 촌락의 구조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17세기 중반 울릉도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57. 계상간독 溪上簡牘

顯宗年間. 帖. 紙本墨書. 25×35cm

박세당 편지의 초본. 계상은 자신이 살던 수락산 서재를 칭한다. 이탄(李坦), 심유경(沈有慶), 심여경(沈汝慶), 정하징(鄭夏徵), 김홍키(金弘基), 이유일(李惟一) 등 友人 및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초본들인데, 서체 만년의 글씨가 돋보인다. 이 편지들은 서책집에 수록되지 않아 그 자료의 가치가 높다.

58. 서계유계 西溪遺戒

1686(肅宗 22). 帖. 紙本墨書. 18.4×31.5cm

1686년(肅宗 22) 서계가 별세에서 자손들에게 내린 유계.

본 문서는 박세당의 친필본은 아니고 후대에 자손들에 의해 전사되어 심책된 것이다. 참고로 박세당은 본 유계를 남긴지 7년만인 1713년에 사망하였다. 당시 박세당은 병으로 인해 유언을 적은 글을 자손들에게 구술하였고, 그의 아들 또는 손자 중 누군가가 이를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세당은 이로부터 7년이 지난 1713년에 세상을 떠나지만 이 유계에는 자신의 상례(喪禮) 때 사용할 관곽(棺槨)과 제수(祭需)의 규모, 조상제례에 따른 제반 의절, 자손들의 학업과 처신, 형제간의 우애 등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곡진한 어조로 당부하고 있어 다른 유언에 비해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박세당은 아마 자신이 정치·학문적으로 화를 당했고, 아들 박태보까지 장쟁에 희생되었기 때문에 자손들에 대한 근심과 우려가 누구보다 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59. 명옹간첩 明翁簡帖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3×48cm 朴範緖 所藏.

明齋 尹拯이 박세당에게 보낸 簡札을 모아 구성한 第帖.

모두 9점의 簡札이 수록되어 있다. 윤증과 박세당은 朴世采·南九萬·崔錫鼎 등과 함께 소론의 대표적 학자·관료로서 친분이 깊어 분자 왕래가 잦았다. 더욱이 윤증은 박세당의 큰 박세후의 처남이었고, 박세당의 차자 泰維가 박세후를 계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 사이에는 사돈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계가문에 윤증의 간독이 다수 소장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간찰의 대부분은 안부를 묻는 안신이거나 상사를 위문하는 위장인데, 명재 특유의 달박하고 함축된 필치를 감상할 수 있다.

여러 글씨 중에서도 내용상 흥미를 끄는 것은 윤증이 박세당의 次孫의 혼사와 관련하여 규수를 소개하는 간찰이다. 아직까지 전통시대 혼인의 성립 과정이 세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간찰은 당시 士家에서 혼처를 어떻게 물색하고, 또 중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윤증은 次孫의 定婚 여부를 묻은 다음 韓氏 가문의 妻子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次孫은 곧 朴泰觀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증의 누이가 박세후의 혼인하여 후사가 없자 조카 태보를 양자로 들였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필모이다. 계통상 박필모는 박세후와 파평윤씨의 가통을 계승한 봉사손이었기 때문에 윤증이 필모의 혼례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 것이다.

처자는 韓永箕의 딸을 말하는데, 윤증은 그녀를 매우 아름답고 정숙한 처녀로 칭찬해 마지않았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처자를 소개함에 있어 처녀 본인의 인품과 행실보다는 친가·외가 등의 가계가 더없이 중요한 요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증의 표현에 따르면, 한영기는 군수 韓䎘의 아들로 조부는 참판을 지낸 韓必遠이었다. 나아가 한영기는 윤증과는 재종간인 尹搢의 사위였으며, 尹搢는 곧 [illegible]과 李廷龜의 사위였다. 내외의 가계가 이처럼 혁혁하니 처녀의 현숙함은 일가의 심사인 바 婚事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윤증의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윤증의 적극적인 주선에도 불구하고 박태보는 끝내 靈山辛氏 辛[illegible]和의 딸과 혼인하였다.

60. 박세당묘표 朴世堂墓表

1731(英祖 7), 帖, 拓本, 34×21.2㎝

박세당의 묘비 탁본첩. 前面 大字는 「朝鮮國崇政大夫行吏曹判書西溪朴先生世堂之墓」이고, 비문의 내용은 박세당의 自撰墓表와 李德壽가 찬한 陰記이다. 전면 대자와 본문의 글씨는 박세당의 손자 박필기가 썼다. 1731년은 비를 세운 연도로 박세당의 28주기에 해당한다. 「潘南世家」·「朴氏家藏」·「敬休」라는 수장인으로 보아 이 첩은 竪碑를 주도하고 글씨를 썼던 朴弼基의 애장본으로 수립 직후에 탁본하여 장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첩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박세당의 자찬 묘표이다. 박세당은 1703년 고종하기 수년전에 이미 묘표를 지어 자신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다.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거나 순취해 하지 않았다」는 묘표의 한 구절이 말해주 듯 이 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한 지성의 초상화와도 같은 것이었다. 현재 서계 후손가(朴泰昌) 소장의 원첩에는 자찬묘표의 草本이 장첩되어 있다. 이후 박세당은 1702년 李景奭(白軒)의 신도비명을 마지막으로 절필하였으나 『思辨錄』에 따른 斯文亂賊에 휘말려 수난을 겪다 1703년 8월 21일 양주 石泉洞의 정침에서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음기의 찬자 李德壽(1673~1744)의 字는 仁老, 號는 西堂, 본관은 全義이다. 그는 西溪門下의 고제로 서계 사후에는 스승의 현양에도 노력하여 묘갈명을 찬하는 한편 1729년에는 청절사 건방의 개울가에 청풍정을 건립하기도 했다.

61. 반남선생포증기사비 潘南先生褒贈紀事碑

1682(肅宗 8), 帖, 拓本, 21.5×35㎝

朴尙衷(潘南先生)의 褒贈 전말과 사적을 적은 碑文의 탁본.

撰者는 朴世堂이며, 書者는 역시 후손인 朴泰維이다. 비문의 말미에는 陰記 형식으로 수립 당시 子孫 참가자의 명단이 追刻되어 있다. 보존 상태가 다소 불량하여 홈을 메운 흔적이 많고, 일부 글자는 마모되어 있다. 西溪集의 저본인 「[illegible]稿」에도 비문의 초본이 필사되어 있으며, 총 字數는 891字이다. 이 비문은 朴泰維의 여러 글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 중의 하나로 顔眞卿體의 서풍이 유감없이 발휘된 명품이다.

62. 야천신도비명 冶川神道碑銘

1590(宣祖 23), 帖, 拓本, 23.2×35.7㎝

朴紹(冶川)의 神道碑銘 탁본첩.

비명의 撰者는 朴淳이다. 篆額는 金應南이 썼고, 본문은 韓濩(石峯)의 글씨이다. 1590년은 竪碣한 연도이다. 士林의 名賢이라는 박소의 명성에 걸맞게 撰者와 書者가 당대 최고의 명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朴淳(1523~1589)은 명조·선조조의 명신으로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김응남 역시 좌의정을 지낸 명사였다. 김응남은 南應雲·金[illegible]과 함께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篆書의 대가로 비갈 글씨를 많이 남겼다. 특히 조광조의 신도비명은 盧守愼(撰), 李山海(篆)와 만들어 낸 역작이다. 참고로 이산해는 김응남의 처남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첩에는 김응남의 篆額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탁본첩은 한호의 서예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호는 徐敬德·朴淳 등 당대 명사들의 비갈 글씨를 많이 썼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에 쓴 것으로 여러 비갈 글씨 중에서도 역작으로 꼽히고 있다.

신도비의 주인공인 朴紹(1493~1534)의 字는 彦胄, 號는 冶川, 諡號는 文康이다. 반남박씨의 중흥조로서 趙光祖·朴英·金安國·李彦迪 등 사림파의 명사들과 교유가 깊었다.

63. 충숙공신도비 忠肅公神道碑

1712(肅宗 38), 帖, 拓本, 36×23㎝

忠肅公 朴炡의 신도비명 탁본.

비명의 찬자는 李景奭이다. 「靖社功臣吏曹參判錦洲君贈判書忠肅朴公神道碑銘」이라 쓰여진 篆額은 崔錫鼎의 글씨이고, 비명의 본문은 증손 朴弼基의 글씨이다. 1712년은 외손 李濟 등이 비를 세운 연대인데, 말미에 수갈의 연혁 등을 담은 이제의 陰記가 追刻되어 있다.

篆額의 書者 최석정(1646~1715)의 字는 汝和, 號는 明谷·存窩, 본관은 전주이다. 병자호란 당시 주화파의 거두 崔鳴吉의 손자로 南九萬·尹拯 등과 함께 소론의 영수로 활동했고,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六書에 통달한 명서가로 篆書에도 능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전서의 대표작은 忠肅公神道碑 외에도 趙珩(1606~1679)의 「忠貞公墓碑」를 들 수 있다. 특히 충정공묘비는 그가 비명을 찬하기도 했는데, 본문의 글씨는 조형의 아들이며 名筆로 이름이 높았던 東岡 趙相愚(1646~1715)가 썼다.

朴弼基(1681~1739)는 朴炡의 증손으로 號가 醒齋이다. 아버지 泰維, 숙부 泰輔를 이어 명서가로 이름이 높았고, 역시 명필이었던 종제 弼周와 함께 碑碣의 글씨를 많이 썼다. 대표작으로는 忠肅公神道碑 외에도 朴世堂墓碣銘이 있다.

64. 박태유필적 朴泰維筆蹟

1684(肅宗 10), 木版本, 91.2×32㎝

박태유(白石)의 글씨로 내용은 漁父辭이다. 1684년 季秋에 草原에서 쓴 이 글씨는 정쟁의 와중에서 外職으로 좌천된 박태유의 심경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말미에 「潘南朴氏泰維」, 「士安」이라 새겨진 인장이 보이는데, 士安은 그의 字다.

주지하다시피 박태유는 아우 朴泰輔와 함께 晉唐筆體를 유행시킨 명서가였다. 1681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검열·대교 등의 한림직과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고 1683년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諫官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던 그는 宋時烈 등 노론들을 탄핵하다 도리어 高山道察訪에 좌천되는 곡절이 있었다. 이 글씨는 찰방으로 재직하는 동안 역도 체계상의 高山道 소관이던 草原驛에서 쓴 것이다. 하필이면 漁父辭를 쓴 것은 간신들의 모략에 빠져 추방되었던 屈原의 故事와 직언으로 인해 좌천된 당시 자신의 처지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65. 박태보묘갈명 朴泰輔墓碣銘

1744(英祖 20), 帖, 拓本, 18×34.3㎝

박태보의 묘갈명 탁본첩.

撰者는 尹拯이고, 書者는 아들 弼謨이다. 1744년은 竪碣한 연도로 박태보가 사망한 지 55년만이다. 전면 大字는 「朝鮮通訓大夫弘文館副提學校理贈吏曹判書文烈公朴泰輔之墓」이다. 박태보(1654~1689)는 박세당의 차자로 字는 士元, 號는 定齋이다. 1677년(肅宗 3) 문과에 장원하여 수찬·교리·정언·지평 등 삼사의 청요직을 역임했고, 1682년에는 모든 문신이 선망하던 湖堂에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吳道一·韓泰東·林泳·趙持謙 등과 함께 소론 강경파로 활동하였는데, 1689년 仁顯王后의 폐출을 반대하다 국문을 받고 珍島로 유배되던 도중 노량진에서 사망했다. 당시 서계는 태보가 중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입경하였으나 이미 의금부에 하옥된 뒤였다. 이후 혹형을 당한 태보가 유배 가 출옥하자 서계는 회생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노들강변에서 아들을 영결하였다. 이때 서계는 태보에게 평소에 보아 둔 장지가 있는지를 물어 본 다음 조용하게 죽음에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차마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그 말을 마친 서계는 밖으로 나와 오열하고 말았다. 이윽고 태보가 사망하자 哭子의 아픔을 억지로 참으며 태보가 점지한 김포로 가지 않고 자신의 산소 건너편 언덕에 망자의 시신을 묻고, 태유의 차자 弼謨를 양자로 들였다. 현재 그의 산소는 서계종택 뒤편에 있다. 찬자 尹拯은 박태보의 외삼촌이고, 필모는 그의 양자이다.

66. 박필기묘갈 朴弼基墓碣

1769(英祖 45), 帖, 拓本, 36.2×23.2㎝

朴弼基의 묘갈 탁본첩.

비문의 찬자는 李[illegible]이다. 「朝鮮通訓大夫鐵山郡守朴公弼基之墓」란 전면 大字는 朴弼謨의 글씨이고, 이하 본문은 朴師亨의 글씨이다. 1769년은 비를 세우고 刻字한 연도이다. 박필모는 박필기와 친형제 사이였으나 박세견의 양자로 나간 숙부 태보를 계후하여 계통상으로는 6촌 형제간이었다. 박태유·태보를 이어 필기와 함께 명서가로 이름이 높았다. 박사형은 박필기(1712~1782)의 3자로 군자감정을 지냈다.

67. 신락·신석하묘갈명 申洛·申錫夏墓碣銘

1694(肅宗 20), 帖, 拓本, 35.8×24㎝

申洛·申錫夏 부자의 묘갈명 탁본첩으로 표제는 碑帖이다.

이 탁본첩이 西溪宗宅에 소장된 것은 비문의 撰者와 관련이 깊다. 「司僕寺主簿申公洛之墓」로 시작되는 신락의 묘갈명은 朴世堂이 찬했고, 申錫夏의 묘갈명은 박태상이 찬한 것이다. 박태상(1636~1696)은 박세당의 중형 박세견의 아들로 자는 士行, 號는 晩休堂·存省齋이다. 1671년(顯宗 12) 문과에 장원하여 양관대제학·이조판서를 지내는 등 환로가 혁혁하였다. 숙부 박세당과의 교유도 긴밀하여 1694년(肅宗 20)에는 [illegible] 박정의 화상 모본을 제작하기도 했다.

두 묘갈명 모두 書者는 申暻이다. 申暻의 자는 公亮, 본관은 평산이다. 영의정 신경진의 증손으로 신락에게는 아우가 된다. 박태보와 교유가 깊었다. 「定齋集」에는 신경이 쓴 王羲之에 박태보가 제발을 붙인 「題申公亮暻所寫王羲之」이란 글이 실려 있다. 신경은 글씨에 능하여 특히 楷書·隸書에 특장이 있었는데, 이 비문은 그의 해서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품이다. 작품으로는 「[illegible]」과 「[illegible]」 등이 있다.

68. 동명 銅銘

17世紀(故帖), 帖, 木版本, 32.3×19㎝

雪庵의 필첩으로 내용은 張載(橫渠)의 東銘이다.

東銘은 西銘과 함께 좌우명을 이루며, 원제는 砭愚銘, 訂頑銘이던 것을 정자가 각기 東銘과 西銘으로 개명한 것이다. 雪庵은 원나라 말기의 승려로 법명은 溥光이고, 자는 玄暉이다. 독특한 筆法을 통해 당대에 이미 명서가로 이름이 높았고, 우리 나라의 서가들도 그의 大字筆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韓濩(石峯)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설암의 大字는 무미하면서도 힘이 있어 조선후기에는 扁額 글씨의 대표적인 서체로 자리 잡았다. 설암의 글씨로는 동명 외에도 「春雨帖」 등이 우리 나라에 널리 유행되었다.

이 서첩은 박태유 수장본으로 「白石軒」·「士安」이란 그의 堂號印이 있다. 白石軒은 박태유의 號이고, 士安은 字다. 박태유는 顔眞卿體의 명서가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통해 그가 다양한 書體를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69. 대당중흥송 大唐中興頌

年代未詳, 帖, 拓本帖, 34.2×18㎝

顔眞卿의 서첩으로 내용은 元結이 撰한 大唐中興頌이다.

안진경의 글씨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 글은 安祿山의 난을 진압한 뒤 당나라의 中興을 頌讚하는 내용으로 浯溪의 石崖 위에 새긴 것인데, 흔히 磨崖碑로 불리기도 한다. 동명과 마찬가지로 이 책시 박태유 수장본으로 그가 안진경체를 섭렵하는 데 한 구실을 하였다. 박태유의 글씨 중 안진경체가 가장 핍진하게 구사된 것은 후술할 「潘南先生俛齋紀事碑」이다.

70. 고금서법 古今書法

雍正年間, 帖, 拓本, 36.6×19.3㎝

「大唐平百濟國碑銘」의 탁본이다.

이 비는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정림사(址) 오층석탑에 자신의 공적을 새긴 것으로 흔히 소정방공적비로 잘 알려져 있다. 민족 수난사의 한 장면인 동시에 고대 서예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탁본이 서계종택에 소장된 시기는 박세당 당대인 17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물론 탁본 어디에도 탁본하여 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하지만 지질이나 글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17세기 중후반의 탁본으로 파악된다.

71. 탄연필첩 坦然筆帖

1125(仁宗 3)-1130(仁宗 8), 帖, 拓本, 14×18㎝

한국 4대명필의 한 사람인 坦然의 필첩.

「眞樂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1130년)와 「祭淸平山居士眞樂公之文」(1125년)이 수록되어 있다. 「眞樂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는 文殊院의 중수기로 撰者는 金富轍이다. 탄연이 중수기의 글씨를 쓴 것은 진락공과의 사승관계와 연관이 깊은데, 비문의 말미에서 탄연은 진락공에 대해 자신을 門人이라 쓰고 있다. 말미의 연기에 따르면, 김부철의 記文을 비석에 새긴 것은 1130년으로 진락공이 사망한지 5년 뒤의 일이다. 「祭淸平山居士眞樂公之文」은 1125년 이자현의 문인들이 스승의 영전에 올린 제문이다. 글과 글씨 모두 탄연이 짓고 쓴 것인데, 문수원기와는 달리 필치가 자못 굳건하다.

眞樂은 고려 중기의 은자 李資玄(1061-1125)의 諡號이다. 그의 字는 眞精, 號는 息庵·淸平居士·希夷子, 본관은 인천이다. 명문 仁州李氏 가문에서 태어나 1089년 과거에 급제하여 大樂署丞이 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춘천의 淸平山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세운 普賢院을 文殊院으로 고쳐

고 詩와 偈頌를 짓고 安貧으로 일관했다. 예종이 여러 차례 조정에 불러들이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방 급제자인 郭輿(1058~1130)가 그를 방문하여 출사를 종용하자 아래의 시를 지어 사양의 뜻을 완곡하고도 운치있게 표현하였다.

따스한 기운이 이내와 산에 퍼지니
어느새 봄으로 바뀌어 가는데
옛 친구 仙苑에 푸른 기가 그윽하게 지내는 이를 찾아왔구나
맑디맑은 숲에 깊은 산에 살면 보는 소리 망망을 그윽하게 없고
푸른과 같이 내 한평생 할 일은 일신을 위함이 아니었네
산새들 맑은 이 마당에 세세를 소리 요란하구나
어느날 함께 걸어두고 산의 말씨를 맺었는가
거의 바람이 이 마을에서 함께 지내자만 하였는가
물러난 장사의 정신에 기르던 책 읽음

坦然(1070~1159)은 고려시대의 高僧으로 俗姓은 孫氏, 號는 默庵이다. 廣明寺의 慧炤國師 曇眞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132년 大禪師가 되어 국사의 자문에 응하였고, 1146년에는 王師가 되었다. 글씨는 왕희지체의 명서가로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대표작으로는 문수원 중수기 외에도 예천의 복룡사비, 삼각산 승가사 중수비 등이 있다. 徐居正도 "우리 나라의 필법은 신라의 金生이 제일이고, 姚克一·坦然·靈業이 그 다음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었다.

72. 박세당필첩 [선적] 朴世堂筆帖 [先蹟]

顯宗~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4.7×22.3㎝

박세당의 필첩.

작품성을 고려한 청시본이 아니라 대부분 祭文·呈狀·上疏의 초본들이다. 맨 앞에 수록된 「潘南先生贈諡記事碑」는 박세당의 선조 朴而敬의 포증 신빈과 사적을 담은 비문으로, 撰者는 朴世堂이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박세채의 부탁으로 박세당이 수정·보완한 교정본이다. 末尾으로 「以下」라 씌어져 있는데, 이것은 刻字를 위해 자수를 배악한 것이다. 본문은 모두 16건이 수록되어 있다. 정장은 所志로도 불리며 요즈음의 진정서와 같다. 진정의 대상은 巡營이며, 대부분 신병으로 인해 관직을 사양하는 내용이다. 당시의 행정체통에 따르면, 민원인이 순영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순영에서는 이를 조정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정의 주체가 박세당이 아닌 노비라는 사실일 것이다. 신병으로 인해 직접 진정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진정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노비가 상전을 대변하는 형식의 진정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소송이나 토지·노비 등의 매매시에 노비가 상전을 대변하는 경우는 허다하지만 관직을 사양하는 정문에서 대명을 쓴 것은 극히 드물다. 물론 이 정문들은 박세당이 직접 작성한 친필 초본인데는 분명하고, 중간 중간에 刪削한 흔적이 보인다.

73. 가장유묵 家藏遺墨

17世紀, 帖, 紙本墨書, 44.5×37㎝

朴泰維·朴泰輔 형제의 필첩.

표지 내면에 「潘南世家」·「朴弼基印」·「敬伯」 등 박필기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조 연간에 朴弼基가 성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필기는 박태유의 아들로 그 역시 명필로 이름이 높았고, 현재 西溪宗宅에 소장된 필첩류의 대부분은 그가 성첩한 것이다. 이 필첩에는 주로 兄弟·從友·士友간에 唱酬·和答한 시고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1681년에서 1685년 사이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조험을 이루는 것은 역시 泰維·泰輔 형제가 唱酬唱和하는 형태의 詩稿일 것이다. 예컨대 「次上日韻贈土亢」(朴泰維作)·「次韻敬酬舍兄篇苑書懷之作」

(朴泰輔作)・「見上元和示三章謂之若沉[illegible]五體[illegible]復次以寄之」(朴泰維作)・「復用前[illegible]書懷」(朴泰維作)・「次兄上[illegible]字韻」(朴泰輔作) 등이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74. 세강계첩 世講契帖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4.0×25.5㎝

17세기 중후반 근기지역 少論들이 世誼를 다지기 위해 결성한 친목계의 계첩.

이 계첩은 계원의 명단인 座目과 계의 규칙을 적은 規憲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에는 朴世堂・徐文重・李萬相 등 모두 58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7세기 중엽 이후 소론의 핵심으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좌목의 형식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맨 앞에 나이 또는 관직에 따라 배서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비중 또는 연치에 따라 장을 달리하여 명단을 기재한 점이다. 특히 맨 모두에 해당하는 朴世堂・徐文重・李萬相의 경우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생년(또는 생년월일)과 본관만 명기하였는데, 이는 尊長에 대한 예우적인 표현인 동시에 본 세강계가 朴世堂・徐文重・李萬相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좌목에 기재된 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座目에는 生年과 字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 解題에서는 성명과 本貫만을 기록한다.

〈世講契員의 名單〉

林世[illegible](羅州人) 李[illegible]成(完山人) 金[illegible]臣(慶州人) 林世[illegible](羅州人)
李[illegible](韓山人) 尹世[illegible](海平人) 林世[illegible](羅州人) 李[illegible](全義人)
林世[illegible](羅州人) 林世[illegible](羅州人) 張 [illegible](德水人) 金[illegible](慶州人)
李[illegible](完山人) 李[illegible](德水人) 李[illegible](韓山人) 許 [illegible](陽川人)
李[illegible](全義人) 李[illegible](德水人) 具[illegible](綾城人) 具[illegible](綾城人)
徐宗[illegible](達城人) 李[illegible](德水人) 朴[illegible](潘南人) 林世[illegible](羅州人)
林世[illegible](羅州人) 李[illegible](韓山人) 李 [illegible](德水人) 朴[illegible](潘南人)
李 [illegible](完山人) 李[illegible](完山人) 李[illegible](完山人) 朴[illegible](潘南人)
李[illegible](完山人) 李[illegible](完山人) 林[illegible]台(羅州人) 徐[illegible](達城人)
李[illegible](韓山人) 林[illegible](羅州人) 李 [illegible](完山人) 李 [illegible](完山人)
徐[illegible](達城人) 徐 [illegible](達城人) 李[illegible](韓山人) 朴[illegible](潘南人)
林[illegible](羅州人) 金[illegible](慶州人) 李 [illegible](完山人) 朴[illegible](潘南人)
林[illegible](羅州人) 李[illegible](韓山人) 金[illegible](慶州人) 林[illegible](羅州人)
金[illegible](慶州人) 李[illegible](韓山人) 朴[illegible](潘南人)

이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반남박씨 朴世堂家門, 달성서씨 徐文重家門, 전주이씨 李[illegible]・李[illegible]家門, 경주김씨 金[illegible]家門, 한산이씨 李[illegible]家門, 덕수이씨 李[illegible]家門, 능성구씨 具[illegible]家門, 나주임씨 林[illegible]家門, 해평윤씨 尹[illegible]家門, 덕수장씨 張[illegible]家門 등 대략 10개 가문으로 정리된다. 계헌은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매년 춘추 [illegible]에 술과 안주를 지참하여 講信하며 큰 연고가 아니면 모두 참석한다.
- 춘추 契會時 외에 [illegible]을 만나면 각기 술을 지참하여 世誼를 다진다.
- 修契時에는 有司가 公文을 발송하여 날짜를 정하며, 계원 중에 연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문을 발송하여 날짜를 물린다.
- 계원 중에 凶喪을 당하면 즉시 통보하여 [illegible]에 맞추어 [illegible]한다.
- 有司는 2명이며, 임기는 1년이다. 유사는 계회시에 교체한다.

75. 오련계좌목 五聯契座目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3.5×30.5㎝

반남박씨, 월성이씨, 전주이씨, 성산이씨, 성주이씨 등 5개 가문의 자제들이 결성한 계의 좌목.

이 계는 반드시 형제가 참여해야 했으므로 계원의 수는 10인이 되는 것이다. 반남박씨에서는

박태유(朴泰維)·태보(泰輔) 형제, 월성이씨에서는 이동룡(李東龍)·동린(東麟) 형제, 성주이씨에서는 이택(李澤)·탁(濯) 형제, 성산이씨에서는 이지석(李志奭)·지윤(志尹) 형제, 성주이씨에서는 이휘(李徽)·징(徵) 형제가 계원으로 참가하였다. 맨 말미에 하재라 하여 유선웅(劉信雄), 서선문(徐善文) 두 사람의 명단이 별서되어 있다. 자격 규정을 형제에 한정하여 제를 모우는 때는 그리 흔치가 않다. 인명의 기록방식에 있어 성명 아래에 사와 생년을 쌍행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본관을 기록한 것은 다른 계안류와 유사하다. 여기에 수록된 5개 가문은 모두 소문의 명가들이다.

76. 영당첨배록 影堂僉拜錄

1852(哲宗 3)-1864(高宗 1). 帖. 紙本墨書. 24×35cm

1852년부터 1864년까지 12년간 서계선생의 영당을 배알한 인사들의 명단.

서계영당은 가묘와는 별도로 서계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된 건물로서 현재 종택에 전하는 서계영정이 바로 여기에 봉안되었다. 일찍이 서계는 청첨사[동몽사우]를 건립하여 김시습의 영정을 모시고 그에 대한 추념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 서계영당의 건립도 청첨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에는 이유원 이하 모두 101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관직자가 대부분이고 중간 중간에 후손의 이름도 보인다. 사림 인사들은 서계문인의 후손이거나, 외손계열 또는 소론계열의 가재들로서 맨 앞에 기록된 이유원은 후일 영의정에 오른 현달한 인물이었다. 이를 통해 소론에서 차지하는 서계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명단의 기재방식은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본관과 관직, 그 아래에 첨배한 연월을 기록하였다. 이름 위에 기록된 〈선(仙)〉자는 고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전통적인 표기 방식이다.

77. 종중예목절목 宗中禮木節目

1738(영조 14). 帖. 紙本墨書. 23×26.2cm

반남박씨 서계문중의 예목 규정.

선대의 시향(時享)·첨사(節祀) 등에 소용되는 祭需 비용을 자손들에게 예목조로 수납하였고, 특히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예목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문서는 후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감사(監司)는 30양, 유수(留守)는 20양, 목사(牧使)·부사(府使)는 10양, 군수(郡守)·판관(判官)·현령(縣令)·현감(縣監)은 7양, 찰방(察訪)은 5양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8. 서계영당시향시거안 西溪影堂時享時擧案

1858(哲宗 9)-1882(高宗 19). 帖. 紙本墨書. 20.5×21.8cm

서계영당 시향시의 집사분정기.

서계영당의 시향 날자는 10월 초정이다. 집사는 3헌관, 즉 초헌·아헌·종헌관 이하 집례(執禮)·대축(大祝) 등 모두 17개 역할로 구성되어 있고, 후손들을 대상으로 분정이 이루어졌다. 초헌관은 종손이 맡는 것이 원칙이었고, 아헌·종헌관에는 후손 중 나이가 많거나 관직이 높은 사람이 차정되었다. 예컨대 1858년 시향 때의 초헌관은 서계의 6세손 박승수(朴昇壽)이고, 아헌·종헌관은 박종희(朴宗夏)·박종위(朴宗瑋)였다. 자손들을 중심으로 집사분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계영당의 시향은 당시의 서원·사우와는 달리 집안 행사로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계종택에는 이 문서 외에 1800년에서 1908년까지의 거안도 남아 있다.

79. 장서목록 藏書目錄

1920年代, 帖, 紙本墨書, 27.8×27.5cm

1920년대에 파악된 潘南朴氏 定齋宗宅의 藏書目錄.

소장 도서 중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1926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성자는 현 종손의 조부인 朴勝麟(1876~1937)으로 추정된다. 經史子集에 걸쳐 365종 1,984책이고, 이 중 갑으로 표기된 58匣과, 질로 표기된 2秩을 합하면 최초한 2,500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80. 대학언해 大學諺解

1695(肅宗 21), 活字本, 23.6×35.6cm, [宣賜之記]

1695년 박세당이 숙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 『大學諺解』.

「康熙三十四年三月內賜工曹判書朴世堂大學諺解一件命除謝恩」이란 내사기가 있고, 내사 업무를 담당한 관리는 우승지였다(右承旨臣李 『署押』).

81. 시전대전 詩傳大全

肅宗年間, 木版本, 34.3×21.5cm, [西溪樵叟]

朴世堂 手澤本 詩傳大全.

「西溪樵叟」라 새겨진 방형의 인장이 있다.

82. 인경집해 麟經集解

英祖年間, 筆寫本, 29×21cm

朴弼基 편저의 春秋註釋書.

83. 훈학집요 訓學輯要

英祖年間, 筆寫本, 29.3×19.3cm, [潘南]·[朴弼基印]·[敬休].

朴弼基가 편찬한 훈학 저침사.

저자의 手稿本으로 학계에 공개되지 않은 유일본이다. 편찬 연도는 미상이나 영조 연간으로 추정된다. 「潘南」·「朴弼基印」·「敬休」 등 저자의 藏書印이 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 등 성리학의 근본 이론의 내용과 확분하는 사람의 자세와 그 정진방법 등에 대한 訓學書로서 율곡의 擊蒙要訣에 비견되는 저술이다. 격몽요결이 어린이(童蒙)를 위한 저술이라면 訓學輯要는 성인 또는 대학생들을 위한 저술이다. 서술 체제는 주자의 近思錄의 체제를 따랐다. 원래는 6책(禮·樂·射·御·書·數)이나 현존하는 것은 3책(禮·御·書)이다. 중심 要目은 道體·學要·致知·存養·克己·道體·立志·講學·思辨·學術·人品 등이다. 교육사 연구의 중요 자료이다.

저자 박필기는 박세당의 손자로 자는 敬休, 號는 晩悟이다. 학식과 筆法으로 명성이 있었고, 벼슬은 용궁현감·금산군수 등을 지냈다. 유고로 『晩悟遺稿』(筆寫本)가 전한다.

84. 만오유고 晩悟遺稿

英祖年間, 筆寫本, 30×20.4cm

朴弼基의 定稿本 遺稿.

85. 삼반예식 三班禮式

1868(高宗 5), 木版本, 30×20cm, [宣賜之記]

朴昇壽가 高宗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 『三班禮式』.

「同治七年七月日內賜三班禮式一件行護軍朴昇壽命除謝恩」, 「同謝承旨臣洪『署押』」이란 內賜記가 있다. 삼반예식은 흥선대원군 李昰應이 편집한 大君·왕자 및 관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의식 법도에 관한 책으로 1866년(高宗 3)에 목판으로 초간되었다. 현재 서계종택에 전하는 이 책은

「戊辰改刊本」으로 초간된 지 2년 뒤인 1890년에 간행된 것이다.

삼반예식은 상·하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대군·왕자들과 정1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내직 문관들이 지켜야 할 의식범도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堂上의 문관 및 무관들이 지켜야 할 의식범도, 모든 관원들의 衙門에 있어서의 의식절차, 앉을 수 있는 곳과 내려야 할 곳에 관한 조례(條例),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인사절차, 권행과 벌칙에 관한 조항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하권에는 외직 관원이 지켜야 할 의식범도에 관한 조항, 관원이 공무로 행차할 때의 의식절차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그리고 1890년에 간행된 중간본에는 권말에 承旨 등이 행차할 때의 의식절차에 관한 조항이 첨부되어 있다.

86. 반양이선생유고 潘陽二先生遺稿

1669(顯宗 10), 木版本, 32.9×20.8㎝

朴尙衷·朴誾의 문집 합집.

1670년에 쓴 宋時烈의 序文과 1669년에 쓴 朴世堂의 서문이 있다. 편집·간행자는 朴世采이다. 두 사람의 유고를 합집으로 간행한 것은 반남박씨들의 현조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들을 현창함으로써 종족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일문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목적 또한 내포되어 있었다. 반남박씨는 선조 이래로 박소의 5자 16손에 의해 문벌가문으로 성장하면서 先代에 대한 현양·추모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박상충의 묘소와 潘南先生墓碑記事蹟의 건립이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두 현조의 합집을 간행하여 가문의 학문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87. 정재집 定齋集

英祖年間, 木版本, 32×20.6㎝

朴泰輔의 문집.

영조연간 楊州에서 간행한 초간본으로 原集·別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일 정재집은 1862년 6대손 朴齊寬이 星州牧使 재임시에 遺文遺文을 수집·편차하여 後集을 간행하였다.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재집은 초간본의 原集·別集에 後集을 합부한 朴齊寬 刊本이다. 초간본 판목은 당초 양주 石林寺에 장판하였으나, 西溪集의 판목이 성주 雙溪寺에 守藏되자 그 인근에 입자를 지어 보관하다 6대손 朴齊寬이 다시 성주의 靑巖寺로 이관했다고 한다. 현존 여부는 미상이다.

88. 누산 편액 樓山 扁額

朝鮮後期, 葉志詵(書), 39.2×90.3㎝

淸나라 金石學者 葉志詵의 글씨로 현재는 서계종택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 역시 원래는 樓山亭·觀瀾亭 등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葉志詵의 字는 東卿, 중국 漢陽 출신이다. 금석학에 매우 조예가 깊어 『平安館金石錄』을 재록하였고, 방대한 분량의 碑帖類를 소장했다고 한다. 글씨 또한 뛰어나 『國朝書人輯略』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隸書體로 쓴 이 글씨는 渾厚雄健한 기풍이 돋보이는 명품이다. 두 개의 印章 중 위의 것은 「葉志詵印」, 아래의 것은 「東卿氏」라 새겨져 있다. 西溪宗門에서 섭지선의 글씨를 소장하게 된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추정컨대 1808년 서계가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赴燕하여 葉志詵과 교유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글씨를 기수한 것이 아닌가 싶다.

89. 관어정 편액 觀魚亭 扁額

朝鮮後期, 書者未詳, 39.3×95㎝

西溪宗宅의 사랑채의 樓上에 걸려 있는 扁額

이다. 書者는 미상이다. 현재는 종택 樓上에 걸려 있으나 원래는 서계가 石泉洞의 溪上에다 정자를 짓고 편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상으로 觀瀾亭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觀魚亭을 지었다는 기록은 없다. 관란정과 관어정이 동일한 亭子일 가능성도 있다.

90. 정매당 편액 征邁堂 扁額

純祖年間, 朴齊敬(書), 38×80.5㎝

서계종택의 정침에 걸려 있는 편액으로 書者는 서계의 7세손 朴齊敬(1801~1904)이다. 현재의 서계종택은 서계의 5세손 朴宗吉 대에 건립된 것인데, 박종길 당대에는 堂號를 개시하지 않았다가 손자인 朴齊敬 대에 와서야 懸板하게 된 것이다. 두 개의 인장 중 위의 것은 음각으로 「石樵」, 아래의 것은 양각으로 「朴齊敬印」이라 새겨져 있다. 石樵는 石泉洞의 樵叟라는 의미의 박제경의 雅號이다.

여 백

서계 박세당 종택 고문서 도판목록

1. 朴東善封君告身
1640(仁祖 18)
紙本墨書
110×60.9cm

2. 朴矩肖像畫
作者未詳
仁祖年間(1625年頃)
軸
絹本彩色
170×90cm
筵子 227×185cm

3. 朴矩靖社功臣敎書
李明漢(撰)·朴泰維(書)
1681(肅宗 7)
軸
絹本墨書
80×259cm

4. 朴世堂肖像畫
作者未詳(傳 曹世傑作)
肅宗年間(1690年頃)
軸
絹本彩色
85×58.6cm
筵子 149.8×78cm

5. 朴世堂白牌
1690(肅宗 1)
紙本墨書
102.8×44.5cm

6. 朴世堂紅牌
1690(肅宗 1)
紙本墨書
110.5×88cm

7. 朴世堂弘文館校理告身
1690(肅宗 10)
紙本墨書
33.5×77cm

8. 朴世堂通津縣監告身
1670(肅宗 11)
紙本墨書
54.3×75.5cm

9. 朴世堂弘文館副提學告身
1683(肅宗 9)
紙本墨書
58×77.6cm

10. 朴世堂大司諫旨告
1681(肅宗 7)
紙本墨書
47.5×71.5cm

11. 朴世堂試券
1690(肅宗 1)
紙本墨書
72.6×28.1cm

12. 朴世堂戶口單子
1705(肅宗 28)
紙本墨書
110.6×70.5cm

13. 朴世堂盡號署經完議
1722(景宗 2)
紙本墨書
54×80cm

14. 朴世堂盡號署經完議
1722(景宗 2)
紙本墨書
56×79cm

15. 朴世堂盡號署經完議
1723(景宗 3)
紙本墨書
56.6×81cm

16. 朴世堂盡號署經完議
1723(景宗 3)
紙本墨書
54×79.5cm

17. 朴世堂妻宜寧南氏追贈告身
1700(肅宗 26)

紙本墨書
74.2×39cm

18. 朴世堂妻鄭氏淑夫人追贈告身
1680(肅宗 6)
紙本墨書
67.8×91.5cm

19. 朴弼基婚書
1666(顯宗 21)
紙本墨書
68×73cm

20. 朴弼基論書
1732(英祖 8)
紙本墨書
58.5×25.7cm

21. 朴弼基錦山郡守告身
1737(英祖 13)
紙本墨書
70×78.7cm

22. 朴師心通德郎告身
1723(景宗 3)
紙本墨書
51.5×75.3cm

23. 朴師心吏曹參議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101.5cm

24. 朴獻源嘉善大夫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101.3cm

25. 朴獻源妻東萊鄭氏貞夫人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3×101cm

26. 朴獻源妻清州韓氏貞夫人追贈告身
1844(憲宗 7)
紙本墨書
76.3×101cm

27. 朴南源繕工監假監役官差定帖
1801(純祖 1)
紙本墨書
52×71cm

28. 朴南源掌樂院正告身
1825(純祖 25)
紙本墨書
51.4×77cm

29. 朴宗吉通政大夫告身
1855(憲宗 1)
紙本墨書
59×88cm

30. 朴宗吉紅牌
1827(純祖 27)
紙本墨書
80.7×64cm

31. 朴宗吉江原道觀察使教書
1846(憲宗 12)
紙本墨書
112×139cm

32. 朴宗吉江原道觀察使論書
1846(憲宗 12)
紙本墨書
96.8×81cm

33. 朴宗吉漢城府右尹告身
1851(憲宗 17)
紙本墨書
53.7×76cm

34. 朴宗吉嘉義大夫告身
1852(哲宗 3)
紙本墨書
57×79.5cm

35. 朴宗吉婚書
1801(純祖 1)
紙本墨書
69.5×70.2cm

36. 朴宗吉賜祭文
1862(哲宗 13)
紙本墨書
86.5×85cm

37. 朴宗始從仕郎告身
1867(高宗 7)
紙本墨書

53.5×73.5cm

38. 朴宗望從仕郎告身
1827(純祖 27)
紙本墨書
53×74cm

39. 朴昇壽紅牌
1845(憲宗 11)
紙本墨書
96.5×73cm

40. 朴昇壽弘文館副修撰告身
1850(哲宗 1)
紙本墨書
53×75.4cm

41. 朴昇壽通政大夫告身
1851(哲宗 2)
紙本墨書
75.5×80.5cm

42. 朴昇壽右營將差定傳令
1857(哲宗 7)
紙本墨書
63×68cm

43. 朴昇壽承政院同副承旨告身
1865(高宗 2)
紙本墨書
55×75.3cm

44. 朴昇壽婚書
1820(純祖 20)
紙本墨書
63×80cm

45. 朴昇壽文科合格試券
1845(憲宗 11)
紙本墨書
60×246.5cm

46. 朴齊敬司憲府監察告身
1894(高宗 31)
紙本墨書
63.2×75cm

47. 朴齊敬試券
1864(高宗 1)
紙本墨書
71.5×152cm

48. 朴齊敬西部都事差定帖
1869(高宗 6)
紙本墨書
55×73cm

49. 朴齊敬通政大夫勅命
1902(光武 6)
紙本墨書
402×58.5cm

50. 朴仁陽試券
1859(高宗 16)
紙本墨書
67×166.5cm

51. 西溪遺墨
朴世堂(書)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5×25cm

52. 先贈
朴世堂(書)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5×22.5cm

53. 先祖遺筆
朴世堂(書)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8×33cm

54. 家藏遺墨
朴東善・世堅・泰恒・泰維・泰輔・泰翊 等(書)
17世紀
帖
紙本墨書
44.5×37cm

55. 西溪雜文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6.5×27.5cm

56. 西溪雜錄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6.5×29cm

57. 溪上簡牘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5×32cm

58. 西溪遺戒
1696(肅宗 22)
帖
紙本墨書
16.4×31.6cm

59. 明鶴簡帖
尹拯(書)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3×46cm

60. 朴世堂墓表
朴弼基(書)
1731(英祖 7)
拓本
34×21.2cm

61. 潘南先生褒贈紀事碑
朴泰觀(書)
1682(肅宗 8)
拓本帖
21.5×35cm

62. 治川神道碑銘
韓濩(書)
1590(宣祖 23)
拓本帖
23.2×35.7cm

63. 忠肅公神道碑
洪錫輔(篆)·朴弼渭(書)
1712(肅宗 38)
拓本帖
36×23cm

64. 朴泰維筆蹟
朴泰維(書)
1684(肅宗 10)
木版
31.2×32cm

65. 朴泰輔墓碣銘
朴弼渭(書)
1744(英祖 20)
拓本帖
18×34.3cm

66. 朴弼基墓碣
朴弼淵·朴師正(書)
1769(英祖 45)
拓本帖(34面)
36.2×21.3cm

67. 申琢·申錫夏墓碣銘
申琓(書)
1694(肅宗 20)
拓本帖
33.8×24cm

68. 東銘
雲谷(書)
17世紀(追刻)
帖
木版
32.3×19cm

69. 大唐中興頌
顏眞卿(書)
年代未詳
拓本帖
34.2×18cm

70. 古今書法
作者未詳
肅宗年間
拓本
36.0×19.3cm

71. 坦然筆帖
坦然(書)
1125(仁宗 3)~1130(仁宗 8)
拓本帖
14×18cm

72. 朴世堂筆帖 [先蹟]
朴世堂(書)
顯宗~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0.7×22.3cm

73. 家藏遺墨
朴泰維·朴泰輔
肅宗年間(1665年頃)

帖
紙本墨書
21.5×35cm

74. 世講契帖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34.8×25.5cm

75. 五聯契座目
肅宗年間
帖
紙本墨書
23.5×30.5cm

76. 影堂瞻拜錄
1852(哲宗3)-1864(高宗1)
帖
紙本墨書
24×35cm

77. 宗中禮木節目
1738(英祖 14)
帖
紙本墨書
23×26.2cm

78. 西溪影堂時享時擧案
1858(哲宗 9)-1882(高宗 19)
帖
紙本墨書
20.5×21.8cm

79. 藏書目錄
朴承驄(書)
1920年代
成册本
紙本墨書
27.8×27.5cm

80. 大學諺解
1695(肅宗 21)
活字本
23.6×35.6cm

81. 詩傳大全
肅宗年間
木版本
34.3×21.5cm

82. 麟經集解
朴泰輔(編著)
英祖年間
筆寫本
29×21cm

83. 訓學輯要
朴弼基(編著)
英祖年間
筆寫本
29.3×49.3cm

84. 晩悟遺稿
朴弼基(著)
英祖年間
筆寫本
30×20.4cm

85. 三班禮式
1868(高宗 5)
木版本
30×20cm

86. 潘陽二先生遺稿
朴世采(編)
1669(顯宗 10)
木版本
32.9×20.8cm

87. 定齋集
朴泰輔(著)
英祖年間
木版本
32×20.8cm

88. 樓山 扁額
施志洗(書)
朝鮮後期
38.2×90.3cm

89. 觀魚亭 扁額
書者未詳
朝鮮後期
30.3×96cm

90. 征邁堂 扁額
朴齊敬(書)
純祖年間
38×80.5cm

■주 관 | 의정부 문화원

■기 간 | 2003년 8월 28일~9월 1일

■장 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기획 | 의정부 문화원

■도판제공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도판해설 | 김 학 수

■도판편집 | 손 계 영

■도판촬영 | 유 남 해

이 서은 문화관광부, 경기도, 의정부시의 지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003 문화관광부 8월의 문화인물

서계 박세당 종택 고문서

2003년 8월 22일 초판 1쇄 인쇄

2003년 8월 26일 초판 1쇄 발행

엮 은 이 | 의정부 문화원

펴 낸 곳 | 동문당 P&I(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48-8

전 화 | (02) 2268-6111 / 팩 스 (02) 2274-5331

전자우편 | dongmd@kornet.net

비 매 품